창간호 | 2024

마음의 창



Korean Bio Senior Group

Laguna Woods, California

마음의 창



목차

6 · 인사의 말 | 이영범
10 · 라구나우즈 찬가

권두시

11 · 마음의 창 | 김소향
12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윤동주
14 · Bio Senior Group 목적
16 · Bio Senior Group 휘호
17 · 만족할 줄 알자 | 곽병희

1. 마음의 창을 열면서

20 · 천국의 환희 | 이명하
22 · My sweetie-pie … | 성명자
24 · Qchord와의 소중한 만남 | 이은주
27 · 뛰어라 멍띠! | 고영주

2. 가족을 그리며

32 · 나의 언니 | 성명자
34 · 어머니와의 추억을 산책하며 | 박미선
36 · 큰언니 | 이영옥
39 · 어머니를 생각하며 | 이시자
45 ·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 박승원

3. 두고 온 고향 하늘

50 · 향수 | 고정자
52 · 그리운 나의 소녀 시절 | 고계희
55 · 다시 온 그날 | 황현상
60 · 이 몸이 새라면 | 임건식
62 · 내 백성을 잊지 않았다 | 김유배
64 · 미국 이민 생활과 나의 영어 | 손기용

4. 주님의 크신 은혜라

74 ·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 | Ellen Kim
76 · 믿음으로 사는 나의 신앙 여정 | 윤호원
79 · 내 소망 주께 있네 | 이경재
82 · 하나님 영광 나의 영광 | 이영범
87 · 아마존 여름 단기 선교를 마치고 | 신학선
90 ·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 이성수
92 ·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 윤순애
94 · 나의 기도 | 이상애
95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 전신자
100 · 하나님의 은혜 | 최숙영

5. 만남과 이별의 길목에서

106 · 만남 | 김경자
111 · 제4차 이민을 준비하면서 | 김원기
115 · 창 | 고 윤민제
118 · 유가족과 친지에 드리는 … | 고 윤종식
122 · 고인을 기리며 | 이신애
125 · 내가 만난 한순옥 선생님 | 이영범
129 · 이수만과 셀러스 | 김일홍

6. 사색의 창가에서

136 · 소중한 지금 | 이영범
138 · 고국 방문에서 배운 것 | 이강민
141 · 나이 타령 | 류재풍
147 · 도마뱀 이야기 | 김일홍
150 · 이웃과의 소통 | 김종갑
152 · 골병의 오기 | 고영주

7. 사랑은 메아리 되어

160 · 아름다운 동행 | 오창현
162 · 나를 부르는 애칭 | 김귀남
164 · 연꽃과 백합화를 그리며 | 윤경순
166 · 나의 짝사랑들 | 오영주

8. 감사와 지혜로운 삶을 찾아서

170 · 노래는 나의 인생 | 임건식
178 · 삶 | 윤문길
182 · 유비무환 | 양병곤
184 · 나의 60년 지기 JJ | 이시자
186 · 절약의 미덕 | 강창근
189 · 아름다운 유산 | 김홍식
195 · 프랑스 진짜 관광 리옹과 보퀴즈 | 이 철

9. 아, 아름다워라 라구나우즈여!

200 · 나에게 라구나우즈란 | 오창현
202 · 웰컴 투 라구나우즈 | 김유배
204 · 짝꿍 | 이은주
208 · 라구나우즈의 삶 | 채길환
211 · 당선 소감 | 최미길
216 · 2023 LWUM 캠페인을 돌아보며 | 최은희
222 · 라구나우즈 정착기 | 남정자

10. 건강한 삶을 위하여

230 · 아차 하는 찰나에 | 김소향
231 · 내 마음의 창에 | 임정순
234 · 호스피스에 관하여 | 임영희
236 · Par 3 Course Golf | 서경선
239 · 병이란 | 윤문길
244 · 가난한 나라의 핵폭탄 | 이재윤

11. 탐구의 세계

252 · 기후 변화와 우리의 삶 | 윤갑상
254 · 전자파 이야기 | 김진중
259 · 고정관념 AI가 푼다 | 주 강

12. 바이오 그룹 명강의를 찾아서

266 · 나이 들어가면서 왜 노인들은 … | Peter Park
268 · 심장병 위험지수 계산법 | 이종두
270 · 웃음의 미학 | 고영주
272 · 가시나무와 수선화 | 이영범

부 록

276 · 강의 리스트
278 · 출판을 마무리하면서 | 고영주
280 · 〈마음의 창〉 출판을 도와 주신 분들
281 · Bio Senior Group 이모저모
292 · 광고

내 마음의 창을 열면서



이영범 | 회장
심리학 박사



BIO Senior Group은 2018년 11월 셋째 주에 고 이덕희 선생의 제안으로 심리학을 전공한 이영범 선생을 주축으로 노인들을 위한 치매 예방을 위한 첫 모임을 가졌다. 클럽 하우스 1에서 5명이 모였다. 처음 3회의 모임에서 그때마다 비가 와서 비 오는 날의 모임이라고 이름을 짓자고 노닥거리던 것이 후에 비오는(Bio) 모임이 되었다.

회원이 점점 늘어 지금은 등록 회원이 100여 명이 되며 임원들은 항상 충실한 내용으로 모임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Korean Bio Senior Group(KBSG)이라고 한다. 어떤 분은 Bio 이름이 매력이 있어 나오기로 했다는 분도 있었다.

5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창'이라는 주제로 회원님들의 글을 모아 기록에 남기자는 의견이 있었다. 원고를 모으

기 시작했는데 의외로 좋은 글들이 모이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원래 잘 쓰인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이 의도가 아니었다. 그 일은 이미 글사랑 모임에서 김일홍 선생님과 문예협회에서 고영주 선생님이 해 왔다. 우리 '마음의 창'의 목적은 우리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속 이야기를 나누며 그 내용을 글로 적어서 Bio 인들의 기록으로 남기자는 것이 의도였다. 우리가 서로를 더 알게 되면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은 보너스로 생기는 기쁨이다. Bio Group에서는 서로가 연결되어 좋은 친구와 깊어지는 우정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다.

오창현 선생님은 내년이면 90으로 나와 동갑인데 아직도 진단가방을 들고 아프다는 이가 있으면 찾아가시는 의사 분이시다. 그의 삶에는 봉사가 첫째다.

키는 나와같이 자그마하고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누구와도 쉽게 대화를 나누신다. Bio Group에 회원이 되시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하루는 의과 대학 동창 친구가 그에게 연락이 왔다.

"창현아. 얼마 안 가서 나는 죽는다. 나는 네 곁에서 죽고 싶다. 나를 부탁해도 되겠니?"

답이 쉽지 않은 청탁이다. 그는 쾌히 부탁을 받아들이고 친구를 자기 집 안방에 모셨다. 그 친구는 그 집에서 석 달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날들을 즐거운 추억으로 남기고 친구 곁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름다운 찬구의 우정 이야기다. Bio Group에는 애용하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오선생님에 다시 더 한번 들려주고 싶다.

"당신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정말 행복합니다."

5년 전 8월 달 같다. 라구나우즈 로타리 클럽에서 새 입주자들을 위한 파티를 해 주었다. 나는 거기서 뉴욕에서 오신 멋쟁이 부부를 만났고 그 후 이덕희 선생님 소개로 Bio Group에서 다시 만났다. 임건식, 임정순 부부 선생님, 남편은 나와 같은 나이의 동갑내기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보니 이제 정이 많이 든 옛 친구가 되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서로 짝꿍이라 불렀다. 그는 자상하고 친절하며 배려하는 성품을 가졌다. 타고난 아름다운 음성을 가진 예술가이지만 한편으로는 개성의 거상의 아들로 아버지의 DNA가 있어서인지 그에게는 상술도 뛰어 났다. 뉴욕에 고급 양복점 주인과 결탁하여 그가 파트너가 되기도 했다.

지난해는 힘든 해였다 남편뿐만 아니라 부부가 병원을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수술도 몇 번씩 하였다. 한번은 응급실에 병문안을 갔는데 Prostate에 악성 종양으로 온 몸에 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니 마음이 착잡했다. 집에 돌아왔는데 속이 울컥 하며 눈물이 쏟아지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안 돼요. 무슨 일이 일어 나서는 절대 안 돼요. 친구를 꼭 살려주세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가 들린다. 내가 하는 소리인지 위에서 내려오는 음성인지 “내 친구를 끝까지 돌보아야 해!” 그리고는 얼마 후 마음이 한결 행복하고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우리가 정성으로 모은 ‘마음의 창’ 속에 글들이 우리들의 우정과 사랑을 더욱 깊게 하며 Bio Senior Group 발전에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을 믿습니다. 더 나가서는 우리가 사는 자랑스러운 라구나우즈 노인 마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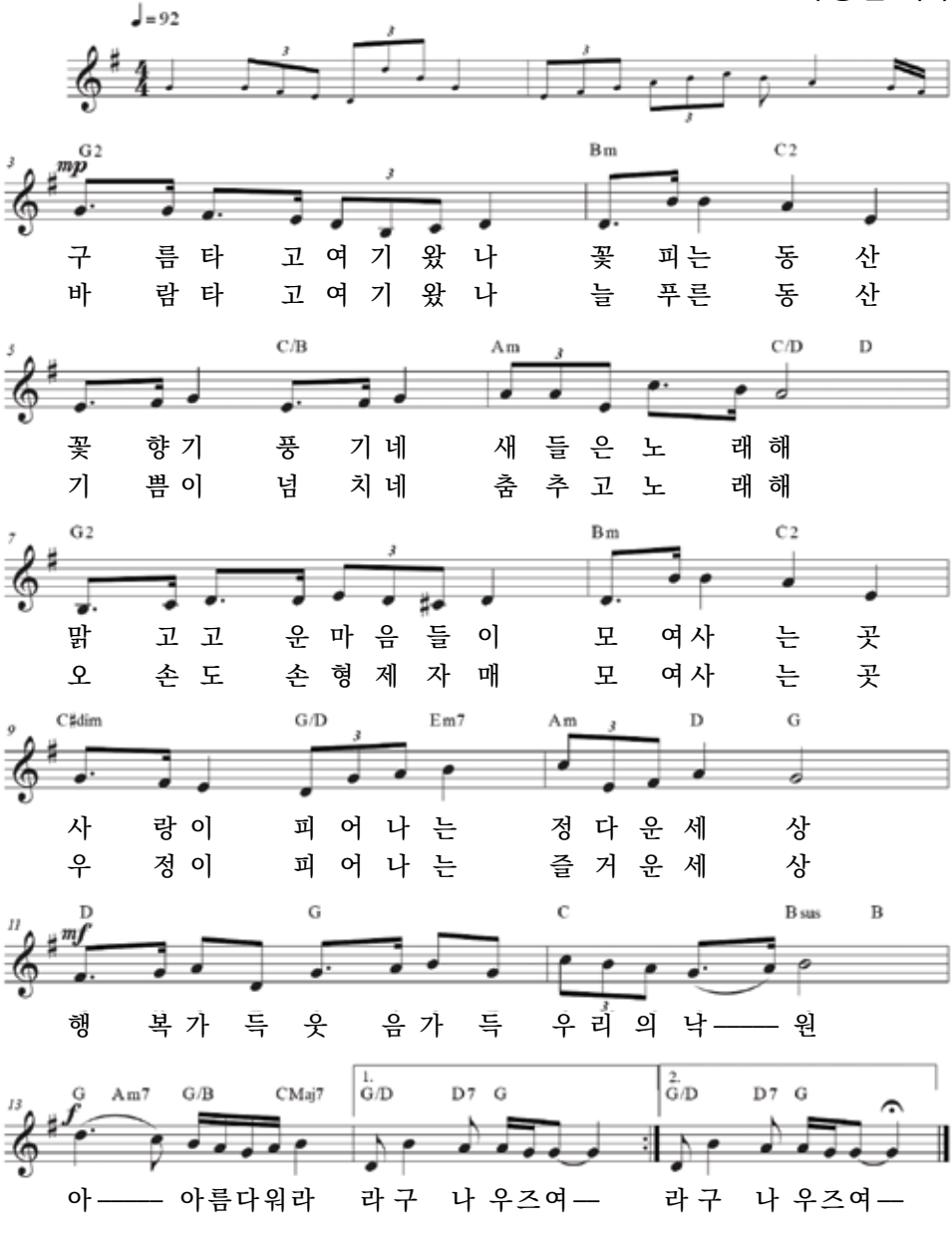
주옥 같은 원고를 보내주신 선생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것이 처음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교정 편집 출판 금전적 도움을 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책 한 권의 탄생의 중심에는 우뚝 서 계신 고영주 선생님께 모든 회원들의 감사를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구나우즈 찬가

고영주 작사
서경선 작곡





마음의 창



김소향
시인/Marathoner

비가 이리도 오는데
빗방울 사이로
그대의 창에서 흐르는 불빛

맑은 유리문으로
단숨에 달려와
어둡던 구석구석 밝혀주네요

아! 여기, 거기, 또 저기
마음의 창 너머로
서로서로 속마음 나누는 이웃

한뜻으로
창조주의 축복 기원하며
나날을 감사히 받아들이게 하소서

변함없는 우애 나누며
우리, '라구나우즈'에
곱디고운 사랑의 꽃밭 일구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윤동주 | 시인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Bio Senior Group



"당신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목 적

- 건강을 지키자
- 성숙해 지자
- 만남과 교제
- 이웃 위로와 봉사
- 모두를 선생님으로 호칭하자

금요 행사

- 음악시간
- 교양 활동
- 스트레칭
- 다과와 친목

낭독문(기도문)

빛과 진리의 원천이시며
영원한 법의 창조주 하나님 이시여,
우리가 살아가야 할
참된 지식을 찾게하여 주소서.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건강과 자유로움과
마음의 평강을 주소서.
우리들의 우애와 사랑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임이
친절과 평화와 사랑의 행실로
이어지게 하소서.

노 래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知
泓

知足(지족) : 만족할 줄 알자.



박여 곽병희
서예가

노자 44장에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가이장구(可以長久)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그러하면 오래갈 수 있다 정도로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명리를 너무 쫓아다니다 보면 반드시 큰 손해를 보기도 하고,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 심하게 탐하면 많은 손실을 입어 회복 불가한 일들도 있습니다.

"만족을 스스로 알고 살면 모욕을 당하지 않고, 일을 성취하고 나면 적당한 때에 알아서 멈추고 물러날 줄 알면 위험에서 피할 수 있다. 그런 삶은 오래 간다."

지자의 깨달음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일까?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마음의 창을 열면서

천국의 환희



이명하 | 시인



Nature's Brilliance

8년 전 10대 1의 경쟁을 뚫고 Laguna Woods 낙원에 이사했다. 오래전부터 떠나간 남편과 주말 주거지로 살고 싶어 점 찍어 둔 곳이라서 감회가 깊었다. 그동안 살았던 크고 화려한 집보다 규모는 작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잘 한, 후회 없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침 해를 들어 올리는 듯 믿음직한 Mt. Saddleback, 그 아래로 살아 움직이는 아름다운 도시풍경, 비단결 같은 푸르름으로 생동하는 골프 코스, 그 사이로 잔잔하게 펼쳐진 물결, 우아한 몸짓으로 날아오르는 하얀 새들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한다.

모든 존재는 자연의 품속에서 환희를 마신다. (중략)
태양이 수많은 별 위를 움직이듯이
광활한 하늘의 궤도를 즐겁게 날듯이
형제여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달리듯이 …

[프리드리히 실러 작사 '환희의 송가'] 중에서

'환희의 송가'는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9번 4악장)에서 고뇌를 넘어 '환희'로 부활해 위대한 예술가의 고뇌, 투쟁, 승리, 화해, 인류애를 담아낸다.

캄캄한 밤중에도 실낱같은 등불을 보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축복이다.

교향곡 '환희'를 들으며 부르며 생의 두려움을 견디고 '천국의 합창'으로 아침을 활짝 연다.

Freude!. Freude!.

My sweetie-pie, the cockatiel



성명자
RN/Teacher



Perfectly rounded clear eyes
Like a raindrop into the deep water
You can see through
Hundreds of years of your fathers' stories
In your motherland.

I am here like you are
I too, came from far
Away thousands of miles
Over the mountains and valleys
Cross the oceans and rivers.

Smooth down on your fragile body
Safely dwelling in my home
I welcomed you, little friend
You landed onto my palms alarmingly first
Then tamed me to be your master.

So, you sweetly rest in my bosom
Like a newborn baby
Your head, smaller than a walnut
Your neck, thinner than a baby's pinkie
Your eyes, closed softly
Enjoying my fingers traveling on your skin
Beneath the silky feathers.

Oh, you are a proud friend
Crowned with grace,
Your neck stretched up high
You are content just looking out the window
Your tight hold on my arms with
Gentle steps of eight long toes
Teach me to trust my Heavenly Father
Like a baby without a doubt.

Qchord와의 소중한 만남



이은주
영양사/Board member



5년 전 남편이 시작한 Korean Bio Senior Group 모임을 위해 그동안 모두 함께 열심히 봉사해 왔다. 코리안 바이오 시니어 그룹의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처음 모임을 시작할 때 모두 함께 노래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열리고 분위기도 따뜻해진다. 우리가 처음 모임을 시작했을 때 이덕희 선생님이 멋진 피아노 반주로 우리의 노래를 받쳐주셨다. 나이가 들다 보니 높은음도 안 나오고 숨도 차고 힘도 없지만, 어려움 없

이 능숙한 솜씨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건강 문제로 북가주로 떠나신 후부터 우리의 음악 시간이 힘들어지고 반주자를 찾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우리는 단순히 반주자와 인도자가 필요하다기보다 우리 그룹의 목적과 회원들을 이해하는 헌신적인 도움이 필요해지고 있다. 한 주일은 왜 그리도 빨리 돌아오는지 적당히 노래 몇 곡 하면 될 것도 같았는데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분위기가 계속되어 걱정을 하던 중 한인회 광고의 큐코드 클래스 학생을 모집한다고 해서 호기심에 나가 보았다.

처음 보는 악기인데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반주자를 구할 때까지 아쉬운 대로 시간을 메꿀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저녁 혼자서 연습하다 보니 소리도 제법 좋고 찬송가를 연주하면 부흥회라도 온 듯 내 소리에 내가 취하곤 했다. 남편 말에 의하면 내가 자다가도 손을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며 큐코드를 친다고 한다. 처음 골프를 배울 때 꿈에도 골프공을 보곤 했었는데 이젠 큐코드를 꿈에서 치고 있었나 보다.

한 번은 교회 야외 피크닉에 악기를 가지고 가서 공원에서 큐코드를 연주하니 여러 친구가 와서 이게 무엇이냐고 호기심을 갖고 묻는 분들이 있었다. 나는 너무 재미가 있어서 자세히 악기를 설명해 주니 그날 악기를 사고 배우겠다는 분들이 8명이나 줄을

셨다. 그후 악기를 구입한 분들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쉬운 곡들을 함께 배우며 연주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악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 우리 바이오 선생님 중에서도 15명 가까이 큐코드를 연주하게 되었다.

주 중에 만나서 한 시간씩 연습하여 그 주의 모임을 위해 음악을 준비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룹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우정도 더 두텁게 되었다. 우리 선생님들 실력 또한 조금씩 좋아지고 대외 활동의 기회도 생기게 되었고 앞으로 초청받는 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우리의 큐코드 시작은 6개월이 조금 지났지만, 그 바이오 선생님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해 왔다고 말하고 싶다. 10월에는 요구에 의해 새로운 큐코드 방이 시작된다. 큐코드와의 귀한 인연은 우리에게 필요한 활동 부분을 키워주고 다양한 음악도 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치매 예방도 되고 우리들의 삶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우리에게 찾아온 소중한 선물같이 느껴진다.



뛰어라 멍띠!



고영주
교수/문협회장

개의 전성시대가 왔다.

개가 집을 지키거나 도둑을 잡는 그런 시대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다. 이제 개는 모셔야 할 존재다.

젊은 부부에게 개는 가족의 막내나 다름없다.

'멍멍이'의 가족 서열은 부모보다 한 단계 높다. 마치 입양된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을 받는다. 만약 부모에게 개를 맡겨 놓고 여행이라도 할라치면 우리 소망이 밥은 주었냐?, 운동은 시켰냐? 하루가 멀다고 전화질이다.

예전에는 단어 앞에 '개'자가 붙으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다.

싸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개xx이다. 사전적 의미는 하는 짓이 얄밉거나 더럽고 됨됨이가 좋지 아니한 남자에 대한 욕설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람을 "개만도 못하는 놈"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이제 장난감으로 기르는 애완견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반려견으로 격상되었다.

〈한국 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전체의 25.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TV에서는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프로가 인기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다. '개팔자가 상팔자' 시대가 온 것이다.

현대인은 외롭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낀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너도나도 개를 기른다. 개처럼 사람을 따르고 충직하고 순종하고 의리 있는 친구가 또 어디 있겠는가?

요즘 젊은이 중에 자식을 안 낳고 개를 자식 삼아 기르는 부부도 많다. 주인이 불 속으로 뛰어들면 주인을 구하기 위해 함께 불 속으로 뛰어드는 영물이 바로 개다. 생명의 은인이 되는 개는 막대한 유산까지 받는다.

견공(犬公)은 개를 극존칭으로 부르는 말이다.

개를 주로 지칭하는 한자는 犬(견), 狗(구), 戌(술)이 있다.

한국에서는 1958년생 개띠(戌)가 처음으로 인구 백만 시대를 돌파하여 베이비 붐 세대를 이루었다. 대표 이사급 최고 경영자수가 제일 많아서 한국 '58 멍띠'가 인기 최고요, 그 절정을 이루고 있다.



우리 Bio Senior Group의 기둥이 되는 세 분이 갑술년(1934) 개띠로 올해(2023) 나이 89세다.

지난번 Bio Senior Group ‘34년 멍띠’ 생신 파티가 열렸다.



Happy Birthday to you!
You are our sunshine
You’re the Best Dog Ever
Happy Bark day to You!

의학 박사 오창현 장로님은 가슴이 따뜻하고 열정이 넘쳐 은퇴를 모르신다. 그 연세에도 호스피스를 운영하시며 사랑을 실천하시는 성자의 모습 그대로다.

성악가 임건식 님은 인자하시고 덕망 높으신 지성인의 심볼이시다. 흔히 사람을 든 사람, 난 사람, 된 사람으로 구분하는데 이분처럼 된 사람은 찾기 힘들다.

심리학 박사 이영범 회장은 한마디로 재주꾼으로 팔방미인이시다. 단호박처럼 소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의 지혜는 번뜩이는 칼날처럼 날카롭다.

이 세 분은 라구나우즈에서 정말 어르신 중의 어르신이시다.

바이오가 복도 많아서 사람을 참 잘 만난 것 같다.



베토벤은 바이올린 선생님에게서
"작곡가 자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엔리코 카루소는 선생님으로부터
"음악에 소질이 없으니 다른 일을 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창시절 에디슨은 "지능이 모자라 교육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신문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평가는 틀렸습니다.
베토벤은 불후의 명곡들을 남긴 작곡가가 되었고,
엔리코 카루소는 20세기 최고의 성악가로 인정 받았으며,
에디슨은 세상을 바꾼 발명왕이 됐고,
월트 디즈니는 세계적인 만화영화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지 마세요.
그들의 평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꿈과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족을 그리며

나의 언니



성명자
RN/Teacher

내게는
바다의 거센 파도 물결을
개울의 찰랑이는 물줄기로 바꾸는
언니가 있어 감사합니다.

내게는
우레처럼 들려오는 두려움의 소리들을
종달새의 새벽 노래로 바꾸는
언니가 있어 안심합니다.

내게는
천 개의 얼룩진 슬픔까지도
꽃이 피듯 고운 미소로 바꾸는
언니가 있어 평안합니다.

내게는
숨기었던 꿈들을 나누어 수놓으며
새기어진 아픔들도 반짝이는 별들로 바꾸는
언니가 있어 행복합니다.

내게는
어미 닭이 새끼를 품 안에 모으듯이
포근한 날개로 덮어주는
언니가 있어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어머니와의 추억을 산책하며



박미선 | 간호사

가만히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본다. 파란 하늘가 먼 구름 사이로 어머니의 인자하신 미소가 가까이 다가오는 듯 어른거린다.

나의 어머니는 무학으로 초등학교 문턱도 가 보지 않으신 분이셨다. 본인의 노력으로 겨우 한글을 익혀 서울에 살고 있는 딸의 편지를 읽는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셨다.

나는 지방에 계신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편지를 써서 보내드렸다. 딸의 편지를 읽는 게 낙이라고 하셨다. 눈도 좋지 않으시고 받침이 있는 어려운 한글은 읽기 힘들어하셔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노트 한 줄에 쓸 내용을 세 줄에 글씨를 크게 또박또박 쓰다 보니 몇 자 쓰지 않아도 늘 10장을 훨씬 넘어 봉투가 두툼하게 되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후 방을 정리하며 박스에 잘 정돈해 놓으신 나의 편지를 보며 어머니가 수많은 세월의 외로움과 딸을 향한 그리움으로 달랬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매워 온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여동생이 이곳 라구나를 방문했었다. 둘이 어머니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동생아! 우리 어머니는 우리가 크면서 정말 화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치?"

"응, 언니, 맞아 맞아, 우리 어머니는 화를 내신 적이 없어. 언니와 난 절대로 어머니를 따라갈 수 없어"

"우린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인내를 배웠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꼭 이맘때쯤 복숭아가 익어가는 여름철이면 더욱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진다. 잘 익은 복숭아를 씻어 껍질을 손으로 벗기면 그냥 슬슬 벗겨지면서 단물이 줄줄 흐르던 그 맛! 나의 어머니는 스밋도 복숭아이라며 그렇게 즐겨 드셨다. 지금은 이걸 사 드리고 싶어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닯다 어이하리
세상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정철의 시조 한 수는 어머니와 함께 내 가슴에 있다.



큰언니



이영옥 | 약사

청명한 파란 하늘 아래 빨강 노랑 주황색들로 물든 단풍들이 하나하나 스산한 바람에 떨어지는 계절이었다. 11월 중순의 싸늘한 바람이 옷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날씨에 10여년간 익숙했던 나에겐 아직 영하로 내려가지도 않은 뉴욕의 기온이었지만 몹시 추웠다.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언니를 만나러 간 내 마음이 추웠는지 모른다.

4년간 항암치료에 지친 몸으로 며칠 전 병원에 입원했다가 병원에서 더할 것이 없어 퇴원한 언니를 세상 떠나기 전에 보고 싶어, 딸과 함께 날아갔다. 세 아이들의 엄마이며 풀타임으로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딸이 자기가 같이 가서 렌트카하고 호텔에 머물며 이모부께 부담드리지 않겠다고 따라나선 참이었다.

언니는 나보다 여섯 살 많으며 우리 다섯 형제자매 중에 가운데인데, 내가 어릴 때 나를 업고 다녔다. 내가 네 살 때 6.25가 났을 땐 나를 업고 뒷마당에 있었는데 먼 큰길에 웃통을 벗은 군인

들이 줄을 서서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며 '저 사람들이 빨갱이야' 하여, 어린 생각에 웃통을 발가벗어서 빨갱이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1.4 후퇴 때에는 경기도 안성 쪽에 있는 이모님 댁으로 피란을 갔다. 다섯 살 난 나는 달구지에 실은 살림 도구 위에 앉아 소풍이라도 가는 줄 알고 노래를 부르며 떠났는데 중간에 언니가 나를 업고 가고 있었다. 나는 몹시 울고 있었는데, 언니가 화가 나서 나를 길옆 논두렁에 던져 버리겠다고 야단을 쳐 겁이 난 적이 있다. 그때 앞으로 가던 엄마가 와서 나를 받아주셔서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모른다. 내가 언니와의 마지막 날 저녁에 그 얘기를 하니 언니도 기억을 하며, 기운 없는 목소리로 웃으면서 '그땐 정말로 던져 버리려고 했지.' 하여 모두 한 바탕 웃었다. 그날 밤 언니와 형부, 우리 딸 혜정, 그리고 언니네 막내딸 유선이가 밥상에 둘러앉아 많은 얘기꽃을 피웠다.


필자와 두 언니

언니는 우리 다섯 형제자매 중 가장 활달하고 주위 사람을 즐겁게 하는 쾌활한 성격을 가졌다.

우리 네 형제가 집에 있을 땐 조용하던 집이 언니가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활기를 띠곤 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언니는 밥에 각 가지나물, 고추장과 참기름을 넣어 큰 숟갈로 쓱쓱 비벼 먹으면

우리들도 덩달아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언니는 돌아가시기 4년 전 폐암 3기 진단을 받으며 그동안 많은 chemotherapy와 방사선 치료, 그리고 Immunotherapy를 하며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해 왔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하여 다시 항암치료를 힘겹게 받다가 극도로 쇠약해지고 음식을 잘 넘기지 못하고 말소리도 잘 안 나와 고생을 했다.

성경말씀을 신구약 모두 한결같이 예쁜 글씨로 필사하고 나서, 영어로 필사하기 시작하였는데 필사한 노트를 보니, 9월 21일까지 하고는 끝이 나 있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후 1주일 후 추수감사절에 미국 각지에 흩어져 대학을 다니던 손주들이 다 모여 찍은 사진을 받았고 며칠 후 12월 1일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평소에 하던 기도의 응답으로 잠자는 중에 조용히 데려가시는 은혜를 주셨다.

언니가 떠난 지 30 여일 후에 새벽녘에 꿈에서 언니를 뵈었다. 난 어디론가 엄마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 현관으로 들어서니, 그곳에 언니가 서 있어서 놀라서 '언니가 왜 여기 있지?' 하면서 반가워했는데,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소만 띄고 있었다. 언니는 아주 예뻤고 옷도 우아한 미색 롱드레스를 입고 나를 반기고 있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었으며, 하늘나라에 가서 사랑하는 엄마와 만나서 행복한 언니의 모습을 보니 감사의 기도가 흘러나왔다.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시자 | AT&T



어머니는 1911년에 태어나셨으니 지금 살아계셨다면 만 112세가 되셨을 것이다.

친정이 지금 청와대 옆인 체부동, 일하는 사람을 여럿 두고 살던 부잣집 2남 2녀의 둘째로 태어나셨다. 일찍 깨우치신 할아버지는 여자에게도 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항상 말씀하셨기에 그 당시 어머니는 숙명여고를 졸업하셨다. 어머니의 어릴 적 꿈은 소설을 쓰고 싶었으나 부모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머리를 길게 딴 채 여고 농구 선수였다니 더군다나 그렇게 얌전하신 분이….

교장선생님이셨던 남편을 만나 평범하게 사시던 중 내가 만 5살쯤 1950년 6.25 전쟁 때 어머니에게 가장 중요하고 버팀목이 되었던 네 사람을 한꺼번에 잃으셨다. 친정어머니와 남편이

사망하셨고 큰아들(15살에 문 앞에 앉아 있다가)과 남동생(어느 초등학교로 삽 들고 나오라고 해서 갔다가)이 이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이 모든 비극이 한 달 안에 일어났다.

어려움 없이 사셨던 어머니가 별안간에 가장 가까운 한 분도 없이 혼자서 어린 삼남매 키우시느라 그 이후 고통을 겪으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우리는 하루 종일 달구지를 끌고 걸어서 고작 한 번은 용산, 또 한 번은 청량리까지 갔지만, 결국은 한계점인 서울을 못 벗어나고 피난 아닌 피난을 갔다. 특히 어머니는 억척스럽거나 수단이 있는 분도 아니어서 하루하루 그 막막함이란 어땠을까.

6.25 동란 때 내가 6살쯤인가 우리 집 건너편에 경찰서였던 곳이 내무서(북한 경찰서)로 바뀌고 완장을 팔에 두른 북한 여군들이 나만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우리 어머니, 언니(13), 그리고 작은오빠(9)를 끌고 갔다. 나는 깜깜한 문밖에서 혼자 남겨져 춥고 무섭고 배고프고 하늘이 둘로 갈라지는 듯한 천둥소리에 얼굴을 파묻어도 무서움이 그대로 살에 녹아들어 하염없이 울면서 식구를 기다렸다. 그 처절했던 느낌이 아직도 남아 그 공포에 떨던 어린아이는 78세가 된 지금도 문득문득 느껴지며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려온다.

공포에 떨고 있는 6세 어린이는 따뜻하고 든든한 엄마 그리고 언니의 품에 안겨 위로받으면 치유가 될 것 같은데….

때때로 어머니는 "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너희에게 누구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텐데"라며 많이 미안해하시는 모습이 생각난다. 아버지는 피아노를 잘 치셔서 집에서는 물론 위문 공연도 다니셨단다. 전형적인 선비 타입이셨는데 피아노도 치셨다니 그 멋진 피아노 연주를 한 번만이라도 꼭 볼 수 있다면…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다.

어느 어머니와 달리 생각이나 행동이 조금은 특별하셨던 우리 어머니, 웃지도 않고 그렇다고 야단도 칭찬도 안 하시던 분, 그 시절 모두가 살기 어려워서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던 그 많은 욕설도 할 줄 모르셨다. 너무도 이성적이어서인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니, 한마디로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양반 출신 서울깍쟁이 그대로였다.

6.25 전쟁으로 심한 트라우마까지 경험하신 분이니 숨통이 막혔고 나는 어머니의 사랑이란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새초롬한 말투가 인색하다기보다는 인정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혹시 친어머니가 아니고 다리 밑에서 주워 왔나 이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곤 했다.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와 달리 우리 형제들은 모두 나하고 똑같이 사교적이니 주워 온 자식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비극'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남편을 일찍 여읜 어머니의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하나뿐인 언니였던 약혼한 상태의 29살 딸을 저세상으로 떠나보내야 했다. 이 세상에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고 아껴 주던 너

무도 보고 싶은 우리 언니인데… 그때의 기억으로 나는 언니 없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팔방미인이었던 우리 언니, 언니와 팔짱 끼고 "송이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등 많은 동요를 듀엣으로 부르며 행복했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기적이 나에게 하루라도 주어진다면….

1960년대 낮에는 직장, 밤에는 학교 다니며 어디서 그런 시간과 열정이 있을 수 있었는지 임화공씨에게 꽃꽂이 배우러 다니고 또 영어 회화 공부하며 일요일마다 집안일하며, 기독교 방송국에서 4시간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빼놓지 않고 듣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정서적이며 자신의 발전에도 게으르지 않았고 또 동생들도 잘 돌봐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어머니에게는 저녁마다 사 온 군고구마 혹은 군밤을 까면서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조곤조곤 해드리는 효녀였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퍽 많았다. 나의 super sister & hero! 나는 소프라노, 언니는 알토를 부르며 행복했던 그 시절, 그 기적이 다시 한번 나에게 올 수 있다면….

그렇게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어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웃는 것도 입을 조금 벌리고 소리 없이 '씩' 한번 웃는 게 다였던 어머니, 소리 내서 우는 것도, 소리 내서 웃는 것도 상상조차 안 된다. 그런 어머니가 언니가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우셨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한 여자의 일생이 얼마나 험난했는지 마치 소설 같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어머니는 특히 교육을 중요시했다. 우리를 먹이고 공부시키기 위해 사무직 일을 직업으로 가지고 계셨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수단도 없고 그렇다고 억척스럽지도 않아서 언니와 오빠, 나 이렇게 1남 2녀를 열심히 가르치고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어머니는 직장 일로 항상 집에 부재 중이어서 가끔 쉬시는 날에는 나는 엄마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지도 않았다

내가 197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기로 결정하자 허락하시면서도 애틋하게 바라보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모든 것이 반듯하시고 외모도 깨끗한 살결 그리고 얌전하신 어머니는 법 없이도 사셨던 분이다. 남을 험담하거나 화도 내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어머니는 살림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제사를 지낸다거나 보통 때도 음식을 잘 못하셨다. 부엌일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감당이 안 되셨던 것 같다.

1980년 69세에 미국에 오신 어머니는 한시도 쉬지 않으시며 향학열을 불태우시며 공책에 깨알같이 영어 단어를 쓰시고 일어 공부도 계속하셨다. 어머니가 특히 좋아한 것은 가곡 듣기와 독서였다.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그제야 나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알게 되었다. 남편과 큰아들 그리고 딸을 일찍 떠 보내는 큰일을 겪으시면서 트라우마가 되어서 감정까지 메마르신 건 아닐까.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모르시는 분, 얼마나 불쌍한 분인가.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사랑을 나눌 기회를 주셨다. 미국에서 19년을 모시는 동안 어머니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싶어 잘 해드리려 노력했다. 88세, 미수 생신을 우리 집에서 지내시고 유난히도 부추, 오이, 깍두기를 좋아하셔서 담가 드렸더니 틀니 부딪치는 달각달각 소리 내시며 아주 맛있게 잡수셔서 또 담가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건만, 결국 못 드시고 노환으로 전혀 고통 없이 편히 돌아가셨다. 한 많고 고통스러운 일생이었지만, 돌아가실 때 정말 드물게 호상이었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에게 여쭈어보았다.

"어떨 때 식구들에게 제일 섭섭했어요?"

"대화에 끼워주지 않아 외톨이가 됐을 때"

내가 지금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정말 이해가 되고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진다.

23년 전에 돌아가신 후 해마다 어머니 기일에 좋아하셨던 음식들 차려놓고 나는 어머니가 바로 앞에 앉아 계신 것처럼 대화를 나눈다. 어머니에게 더 따뜻하게 못해 드려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어머니의 손녀, 증손자와 두 증손녀 이야기와 Laguna Woods Village에서 사는 나의 모습과 시시콜콜한 모든 일을 말씀드려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게….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며 조용하지만, 행복해하시는 미소를 짓고 계시는 어머니를 그리며 그동안 힘든 시간, 행복한 시간 그리고 지금은 남은 시간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며 잘살고 있다고.

"엄마,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박승원 | 사진작가

"나는 나는 어째서 아빠가 없나요!
불쌍하신 울엄마 고생하는 걸,
날마다 보면서 눈물만 흘리지요."

초등학교 시절 글짓기 때 썼던 글 일부입니다.



내가 두 살이고 어머니는 27세 때 일입니다. 그 당시 6.25 동란이 났는데 아버지는 새벽에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밖으로 나갔다가 남침한 괴뢰들에게 북으로 끌려가셨답니다.

나에게 아버지란 이름은 기

억에도 없는 아버지 사진을 70년 동안 책상 위에 놓고 쳐다보며 상상하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작은 손가방 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아버지의 명함 사진을 보시곤 자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은 긴긴 세월 알알이 맺힌 그리움이었습니다.

어머님 혼자서 어린 3남매 데리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지 나는 옆에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납치되었던 그 새벽의 악몽에 시달리며 슬픔과 오열 속에 한 많은 삶을 살아오셨을까 하는 생각에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머니는 강직하셔서 못된 과부 자식 될까 봐 늘 매를 들고 나를 훈육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어머니가 엄격하고 무서워서 너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나는 철없는 성장기에 그런 어머니가 차라리 일찍 돌아가시길 소원하였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어머니가 살아계셔 좌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세월이 흘러 어머니 100세 생신을 맞던 날 축하객 앞에서 어머니의 지난 삶을 회상하며 이야기하던 나는 하염없는 눈물로 어머니 앞에 감사와 용서를 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추운 겨울날 서른 중반에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일거리도 없고 쓸쓸해서 어둑한 밤거리를 걸었답니다. 그때

부산 좌천동에 있는 자성대 교회를 지나는데 교회 불빛이 너무 따듯해 보이고 처음 들어보는 성가 소리에 이끌리어 자신도 모르게 교회로 들어가 앉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믿음 길에 들어서는 동기가 되셨습니다. 힘든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은 어머니 삶에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어머니 생애에 무병, 무탈, 장수하게 하시고 자손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손자 2명, 손녀 7명, 증손주 18명(증손자 9명, 증손녀 9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보다 손자와 증손주들 함께 지내시길 더 좋아하십니다.

어머님 부디 만수무강하옵소서.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 하니 금방 식더라.
인생도 그렇더라.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을 때이다.
식고 나면 너무 늦다.
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이 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두고 온 고향 하늘

향 수



고정자 | 교수

보리밭 드높이 종다리는 지지배배
징검다리 시냇물 졸졸거리고
물장구치며 놀다 돌아오는 길에
패랭이꽃 물들이고 보리 피리 불던 곳

흰 구름 두둥실 뙤약볕이 비치는데
하얀 수건 두른 머리, 호미 든 손,
탱자나무 울타리 텃밭 그늘에
땀방울 닦으시던 울엄마 그 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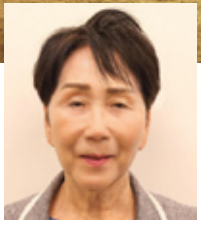
포푸라나뭇가지 까치집에 연 걸리고
오이 수박 넝쿨마다 주렁주렁 열리면
노란 참외 달콤하게 익어 가는데
원두막 시원한 바람 단꿈 꾸던 곳

푸른 벌판 황소 울음 가까워 올 때
밥 짓는 저녁연기 피어오르고
놀 빛 그을린 토담집 마을 어귀에서
기다려 반겨주던 울엄마 그 자리

한여름 밤 풀잎 향기 모깃불 피우고
평상에 쏟아지는 별빛 잡으며
부엉이도 부엉부엉 아기 달래고
뻐꾸기가 소록소록 잠재우는 곳

희미한 등잔 불빛 여위어 가는 밤
바느질 고운 솜씨 아리따운 그 자태
잠 깨면 안아주던 울엄마 그 자리
지금도 고향은 그대로 가슴에 있다.





그리운 나의 소녀 시절

고계희 | 가정 주부

나는 단발머리 소녀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다.

나의 고향은 전남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392번지이며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곳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산밑 아담한 시골이었다. 여름밤이면, 어둠 속에 반짝이며 날아다니는 개똥벌레의 반딧불 빛으로 방향을 찾곤 했다.

가족들이 평상에 앉아서 풀잎을 태워서 연기를 피우는 것이 모기의 습격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집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풀 연기로 자욱하고 그 소박한 풀 향내 속에서 지내던 시골 소녀의 추억이 잔잔히 떠오른다.

이 단발머리 소녀는 8남매 중 끝으로 두 번째로 태어났다. 사실은 9남매였는데, 중간의 딸은 좀 커서 날렸다고 들었다.

대책이 없는 아버지께서는 8남매를 뒤에 두고 꿈을 가지고 어머니의 금 패물과 논을 팔아서 중국 또는 일본인가로 떠나셨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뒤 늦게 알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좀 달랐다. 십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편지 한 장도 없는 무소식이었다. 십 년 사이에 형제자매가 결혼도 해야 하고, 학교, 직장 문제 등 아버지가 꼭 계셔야 할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었다.

나와 언니, 그리고 세 살 아래인 여동생, 세 명만 우리 마을에서 하나밖에 없는 여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 시절에는 여자는 초등학교만 나와서 집안일을 돕고 길쌈을 배워 시집가는 것이 전부였다. 어머님 말씀이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으면 너희들이 학교 간다는 건 어림도 없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불행 중 다행이었다.

논둑길을 따라 학교에 가노라면, 이슬 때문에, 내 양말이 흠뻑 젖을 때가 많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넓고 푸른 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설렘과 기쁨이 넘쳤다. 봄이면 보리밭에서 은빛 파도가 밀려오고 가을에는 벼가 무르익어 황금빛 파도가 밀려왔다. 또 논둑길의 중간중간 도랑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소리는 맑고 시원했다. 여름철에 홍수가 나면 넓은 신작로 멀리 돌아가야 하니, 귀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논에 물을 대는 유일한 통로는 도랑물이었다. 그 물은 거울처럼 맑고 하늘색으로 물들어 송사리 떼를 잡으려는 내 얼굴이 물속에 어른거려 송사리 떼와 겹쳐 보였다. 송사리 떼는 쏜살같이 빨라서 언제나 나를 이기곤 했다.

또 자운영 보라색 꽃이 만발한 꽃밭에 누웠다가 찍어낸 자국을

보며 즐겼던 그 시절이 마냥 그립기만 하다.

혼자서 애처롭게 울어대는 뜸부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멀리 떠나버린 아버지의 환상이 떠올라 그리움과 원망스러움으로 나를 한없이 슬프게 했다.

언젠가 북쪽에서 불어오는 잔잔한 바람을 쐬며, 꼬불꼬불 논둑길을 한참 걸어서 우리 논에 도착했다. 그 논은 아직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가을이 되니 익은 벼를 베기 위해 논에 고인 물을 며칠씩 빼고 있는 중이었다.

그동안 논에서 자랐던 물고기 떼가 물이 줄어드니까 낮은 데로 몰려와서 서로 등을 비비대고 있었다. 나는 이 신기한 광경을 보며, 자연이 주는 기쁨을 혼자 즐겼다. 얼마나 귀한 손님들인가!

이 귀한 손님들을 집으로 어떻게 모실까? 책가방 속에 넣으려고 하니, 책 때문에 넣을 수도 없고, 궁리하다가 기발한 방법이 떠올랐다. 치마 밑에 입었던 속옷을 벗어서, 양쪽 다리 부분을 벼잎으로 묶고, 그 물고기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득히 넣어 집으로 가져갔던 즐거움도 있었다.

나는 등굣길에서 자연의 아름다운 색깔을 배웠고 무르익은 곡식들의 은빛과 황금빛 물결은 소녀의 꿈을 한없이 부풀게 해주었다.

변하는 계절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소" 어느 시인의 시를 외어본다.

대책 없는 아버지까지도 들어내셔서 선을 이루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

나는 이렇게 드높이 손을 올리네 하나님께!

다시 온 그날



황현상 | MD

1989년 여름 Canada Toronto에 있는 "이산가족 찾기회"에 편지를 보냈다. 큰 기대를 하고 보낸 것은 아니고 내 마음에 응어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북녘에 두고 온 가족의 소식을 들을까 싶어서였다. 그러고는 거의 잊다시피 하고 몇 달이 지났다.

10월 어느 날 저녁을 중국 음식점에서 하고 fortune cookie를 까고 종이에 쓰인 글"You have been waiting a long time, soon you will receive a good news"를 보고 내가 보낸 편지의 답장이 오려나 하는 작은 설렘이 일어났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전화 message가 있다고 불이 반짝이고 있는 것이다. 전화는 이산가족 찾기회에서 온 것이었다. 이북에 있는 가족의 소식을 알려 줄 테니 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늦은 시간이었으나 전화를 하니 금방 받아서 이북에 있는 가족들의 이름과 연령, 그리고 지금 거주하는 곳은 함경 북도 온성군



상화구라고 알려 주었다. 그리고 어머님도 건재하시다고 했다. 꿈을 꾸는 듯한 느낌으로 전화를 끝냈다.

그 주소로 동생 광춘에게 바로 편지를 써서 다음날 속달로 보냈다. 그리고 곧 한국의 아버님께 전화로 소식을 전했다. 다음 해 1990년 1월 어느 날 북한에 있는 동생한테서 회신이 왔다. 두근거리는 가슴과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펴서 기쁨과 슬픔이 범벅이 된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휘말려서 두세 번을 연거푸 읽었다. 어머님과 더불어 온 가족이 건재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저 꿈을 꾼 듯한 느낌이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몇 번이나 지난 정말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는 어머님의 그 수심에 가득한 모습, 그날의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히 떠올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굳게 다무신 그 입술, 수심에 잠긴 그 눈길, 무엇인가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 끝내 내뱉지 못하시고 그저 내 손을 꼭 잡으시던 그 따뜻한

어머님의 손길, 아직도 내 손에 온기를 느끼며 온몸에 사무치는 그리움에 젖습니다.

어머님의 그 크고 따뜻하신 사랑, 이제 못내 그리워 내 가슴이 텅 빈 듯 항상 허전합니다. 한때는 눈물로 안타까움을 달래 보기도, 글로 마음의 허전함을 메워보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 그만 체념의 경지에 달했는지요.

허전함을 느낄 뿐 그저 눈물 없는 한을 씹어 볼 뿐입니다. 그저 한스럽습니다.

그날에 되어진 그 일 생각만해도…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이고 새벽같이 어머님을 뒤로 두고 돌아선 그날이 가슴에 사무치게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지나간 그날은 돌아올 수 없으나 앞으로의 그 날은 찾아 오겠지요. 그때는 그저 얼싸 안고 수십 년 쌓인 눈물을 한없이 흘려 보고 하시고 싶으시던 그 말씀도, 못드리고 떠난 그 인사 말씀도 한없이 나누어 볼 수 있겠지요.

꿈속에서나 만지작거리던 그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을 끝내 놓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날을 손 꼽아 기다리겠습니다.

xxx xxx xxx

1990년 5월 1일 평양에 도착하여 5월 8일 함경북도 온성에 도착하여 어머님과 동생들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 조카들을 만나서

3박 4일의 여정을 마치고 북경 경유 Ohio에 있는 집에 5월 16일에 돌아왔다.

다시 온 그날

그날은 드디어 다시 왔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한없이 기다리던 그날이 다시 왔습니다. 한 많은 40년의 세월 동안 꿈결에도 잊지 못한 그때 그것은 순간이었지만 영원에 가까운 세월이었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12월의 차가운 바람을 타고 알지 못하는 미래로 떠나는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 천연색 사진처럼 내 눈앞에 비춰집니다. 그 잠시의 순간, 그 순간이 이다지도 긴긴 세월이 될 줄이야 나도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리고 동생들도 정말로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짧으면 3일, 길어야 3개월" 그것은 처음 떠날 때 우리의 기대에 찬 약속이었으나 지금 생각하면 헛된 인간의 약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의 무능력을 탓하여 봅니다. 저에게 붉은 돈 몇 장을 쥐여 주시면 꼭 잡아 주시던 어머님의 따뜻한 손길을 지금도 전기가 통하는 듯 온몸에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망각의 저쪽 끝까지 밀렸던 그날이 정말 다시 왔습니다. 어머님의 온기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님" 하고 직접 소리내어 불러 볼 수 있는 그날이 … 울퉁불퉁한 "신작로" 길을 옛 소달구지가 굴러가듯 자동차의 휘청거림이 왜 이다지도 거북이의 걸음같이 느린지요.

저 멀리 동구 밖에 모여 있는 많은 인파 가운데 자그마한 체구

의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 30대의 그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아른거리는데 이제 80세가 가까운 우리 어머님 너무도 달라진 그 모습에 내 목이 메어지고 눈물이 앞을 가려 그저 희미한 영상으로 나타날뿐 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은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과 포옹하는 감격의 그 순간 기나긴 세월을 압축하듯 나와 어머님이 하나가 되는 듯 몽롱한 의식 속에서 한없이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그 짧은 3일의 방문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 버렸지만, 명화의 인상처럼 생생히 제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제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던 어머님의 그 체온, 제 손을 꼭 잡고 주무시던 그 따뜻한 손길…. 지금도 제 온몸을 감싸는 듯 느껴집니다.

40년 세월의 흐름도 그 짧은 3일의 이야기로 다 풀 수 있었으니 인생의 단순함과 무상함을 새삼 느끼며 하나님의 크신 뜻에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어머님 곁을 떠난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떠날 때 약속한 어머님 80세 때의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약속은 이북에서 visa를 안 내줌으로 무산되었다.

어머님은 만 90세의 나이로 그곳에서 주님 곁으로 가셨다.

이 몸이 새라면



임건식
성악가/방송인

내 몸이 아프다.
그래도 참을 수 있다.
약도 먹고 치료하면 낫기도 한다.
그러나 나에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 하나 있다.

내 마음 깊은 곳 그리움이란 병이다.
나이가 들수록 눈물만 저절로 흐른다.
저기 손에 잡힐 듯이 눈 아래 작은 마을이 보인다.
부르면 누나가 웃으며 손짓하고 나올 것만 같다.
인삼의 명산지, 아름다운 강산, 내 고향 개성이다.

거기 나의 어린 시절 무덤을 두고 왔다.
무지개 꿈 어린 동심이 있었고
오손도손 가족들의 추억이 있었다.
웃음꽃도, 평화도 모두 잠들어 버린 곳이다.



이 몸이 새라면
저 건너 보이는 나뭇가지에 앉아 보련만,
그립고 보고픈 얼굴 찾아 반겨 보련만,

언제나 내 고향에 갈까?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 기다렸건만,
고향을 떠난 지 어언 70년이 넘었구나!
이제는 이국 하늘에서,
"누나야" 불러도
허공만을 맴도는 안타까움이여!
…

내 백성을 잊지 않았다



김유배
경제학 박사

자유를 빼앗긴 동토의 땅에
노동 교화형으로
올가미 씌워져
수형 103호 케네스 배 선교사

억류되어 갇힌 자
온갖 고초를 겪고
735일 만에 풀려나
우리 곁에 돌아왔네

실망, 절망, 우울증을 넘어
정신병이 되어 가는
질곡의 상황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어둠의 세계를
몸소 체험했다네

한 맺힌 분단국가
어쩌다 칠흑 같은
지옥 세계 되어버린
내 나라 북녘땅

그래도 탈북 청소년을 키우느라
라구나우즈의 정성 어린 장학사업은
내일의 통일 지도자를 키우는
한 가닥 불쏘시개라네

미국 이민 생활과 나의 영어



손기용 | 의사

내가 미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해본다. 오래 전에 죽어 땅 속에 있을 거다. 나의 가족 중 많은 분들이 55세를 넘기지 못했다. 의학이 발달하여 나는 80넘어 살아 있기도 하지만, 또한 미국생활에서 별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일 거다. 나는 한국에서 연줄 관계도 별로였고, 동료들과 외식하고, 자주 술 마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미국에서 환자를 다룰 때 내 생각대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영문과나 수학과를 마치고 고등학교 선생이 되고 싶었다. 아버님이 일찍 44세에 돌아가셨다. 12년 연상인 형님에게 여쭤보니 날더러 의과대학에 들어가 의사가 돼야 한다고 하셨기에 나는 그대로 했다. 의대에 입학하여 1961년에 의사가 되었다. 한국에서 소아과 전문의가 되었는데 미국에 올 기회가 생겼기에, 1967년 7월, 나이 30세에 미국에 왔다.

하고픈 이야기는 많지만 주로 미국 이민 생활을 하며 겪은 "영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한국에서 중학교에 입학 그리고 의예과를 마칠 때까지 한국인 영어 선생에게서 영어를 배웠다. 그 당시 선생님들은 영어를 읽고 쓰는데 중심을 두셨다. 의대 졸업 후 한국에서 6년 동안 스칸디나비아 의사들과 일하게 되며 영어를 듣고 회화를 하곤 했다. 그러니 10여 년간 한국에서 영어를 익히게 되어 영어로 쓰고 읽는데 커다란 문제는 없었다. 그런데 미국에 와 보니 그런 게 아니었다.

미국에 오며 내 이름 '손기용'을 영어로 'Ki Yong Sohn'으로 썼더니 미국인들이 나를 부를 때 "Ki"를 "카이"라고 하기에 'Keith Yong Sohn'으로 바꿨다. 나의 친척 중에 의사인 'Dr. Kwak'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자꾸 "Dr. Quack (닥터 쾍, 돌팔이 의사)"라고 부르기에, 이름을 'k'대신 'h'로 바꾸어 'Dr. Kwah, 닥터 과'로 바꿨다.

오하이오에 살며 컨트리클럽에서 미국인들과 골프를 하곤 했다. 내가 멤버가 되기 얼마 전까지도 유태인이나 아시아인은 여기 멤버가 되기 힘들었는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며 멤버들이 더 필요했기에 우리 식구도 여기에 멤버가 될 수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더 든 백인 정신과 의사와 더러 골프를 했다. 이 친구는 골프를 하다 실수를 하면 "God-Damn" "Son of a Bitch"등의 엉뚱한 언어를 쓰곤 했다. 하루는 이 친구가 "Son of a Bitch"가 한국말로 무어냐 하기에 "개새끼"라고 해준 건 좋았

는데, 하루는 클럽의 아시아 계통의 의사들과 골프를 하는데 주위에서 누가 "개 새끼"라고 외치기에 둘러보니 나의 미국인 친구 의사였다.

한국 친구 중 영어 단어를 혼동하는 것도 더러 보았다. 예를 들어 하루는 그 친구가 "I ate kitchen in the chicken."라 했는데 번역하면 "나는 '닭고기에서 부엌을 먹었다'이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그들의 억양을 이해하기 힘들었다.

미국 남부와 보스턴에서는 영어를 이해하기 더 힘들었다. 특히 소아과 주임교수는 Harvard 대학을 나오신 분으로 너무나 "영국식 발음"으로 이야기했다. 또한 같이 일하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서 온 동료의사들도 억양이 심했다. 그리고 영국의 웨일스(Wales, 영국의 남서부 지역)에서는 그들의 악센트가 너무나 강해 통 이해할 수 없었다.

나 자신의 악센트와 발음이 좋지 않았다. 1967년 이후 미국에서 소아과를 하며 환자를 본 후 dictaphone에 대고 녹음해 놓으면 미국인 비서가 타자기로 쳐 놓았다. 한번은 내가 "Bulbar conjunctivitis(눈알 쪽의 결막염)"을 "vulvar conjunctivitis(여자의 외음부의 결막염?)"으로 타이프 해 놓았다. 물론 "b"와 "v" 발음을 잘 못했기 때문이다. 하루는 흑인 환자가 와서 "마싸드 hurts"라 해서 이해를 못했더니 간호사가 와서 "My Side Hurts, 내 옆구리가 아프다"라는 뜻이란다.

같은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미국의 어느 촌을 여행하며 문 앞에 "Kid for Sale"이라고 써 붙여 있었다. 나에게 "Kid"는 '어린이'를 뜻하기에 "어린이 판매"로 알고 집에 와 영어사전을 보니 "kid"는 "염소새끼"도 뜻하니 "염소새끼 판매"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환자가 와서 "I have crab in my pubic hair, 음부의 털에 '게'가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환자를 보지 않고 내보냈다. 같이 일 하던 미국 친구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crab'은 '이, lice'도 의미하니 그 환자가 음부의 털에 이가 있어 가려우니 약을 달라던 뜻이었다. Y.M.C.A.가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기독교 청년회"인 것은 알았는데 미국 남부의 루이지애나에 가보니 "Yankee May Come Again"이라고 한다.

말조심 해야겠다. 한 어머니가 데리고 온 4-5살 된 아들 환자를 보는데, 이 애가 하도 떠들고 말을 듣지 않으니 그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를 보고 너는 "Son of a bitch, 개자식 또는 개새끼"라고 했다. 바로 그 때 이 아들이 조용해지더니 어머니를 보며 "그러면 어머니는 bitch(개 같은 여자 또는 갈보)"라고 소리 질렀다.

그럼 현재 나의 언어 실력은 어떤가. 미국에 온 지 52년이 되었다. 영어하는 것이 별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주로 한국인과 만나는 시간이 많기에 영어회화가 더 시원치 않아진다. 나이가 들어가며 청각장애가 있어 한국어나 영어를 알아듣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래 그런지 TV를 볼 때 더러 영어 자막을 본다. 그런데 영어 자막이 너무 빨리 지나가기에 힘들

기도 하다. 보청기를 사야겠다.

고등학교에서 2년 그리고 대학에서 2년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열심히 했다. 대학에서 의학 교과서도 독일어로 읽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두 나라에 여행가면 쓰여 있는 것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독일어, 불어를 한 지 이제 62년이 지났으니….

그러면 어찌했으면 영어를 더 잘 배우고, 잘 알아듣고, 회화할 수 있었을까 하고 나 자신 생각해 본다.

1) 열심히 노력하고, 배우고, 용감하면 영어 회화도 더 잘, 빨리 배웠을 텐데. 나는 말이 적은 편이니 빨리 배우질 못했다. 그리고 나는 기를 쓰고 무얼 하지 못했다. 영어 발음도 개선하려 노력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대학 동기들 중 뱃장이 있고 용감한 동기들은 영어 대화를 잘 한다.

2) 문장구조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소리를 내어 영어 회화 연습을 했어야 했다.

3) 미국에 어려서 왔으면 그래도 영어를 더 잘 했을 거다. 나이 30에 미국에 왔으니 늦게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잘 배우려면 그래도 나이 12-13 세 이전에 오는 것이 좋다고 한다.

4) 한국에서 영어단어를 분석하는데 취미가 있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Independent, 독립한"는 "in-"은 "not,

아니다"와 "dependent"는 "의 지하고 있는"의 둘이 합쳐 "의지하고 있지 않은, 또는 독립한"이라는 뜻이 된다.

5) 유사점이나 연관성이 있는 인도유럽어족(Indo-european Languages, 語族)을 사용하는 지역에서 왔으면 영어나 유럽의 언어를 배우기들 어려울 거다. 그래도 한국에서 불어와 독일어를 배운 것이 도움이 되었다.

"Kindergarten"은 독일어로 Kinder는 children, 어린이 +garten은 garden, 정원으로 "garden for children, 유치원"이다. Bonjour는 불어로 bon은 good + jour는 day: 영어로 "good morning" 또는 "good day"이고 "안녕하세요!"이기도 하다. Mermaid는 'mer는 sea, 바다'+'maid는 소녀'의 합성어로 인어(人魚)를 뜻한다. 상반신은 젊은 여성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꼬리를 지닌 바다 속에 사는 전설 속의 생물이다.

지난 2019년 4월에 프랑스 파리의 Notre Dame, 노트르담 대성당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성당의 원래 이름은 Cathedrale Notre-Dame de Paris인데, 프랑스어로 "Notre"는 'Our, 우리의'라는 뜻이고, "Dame"는 'lady, 부인'이라는 뜻으로, "Notre-Dame"은 'Our Lady, 성모 마리아'를 뜻한다. 하지만 Notre dame처럼 'd'를 소문자로 쓰면 '우리의 부인'이라는 뜻도 되겠다. Philadelphia는 그리스어의 "phileo는 to love, 사랑하는"+"adelphos는 brother, 형제"라는 2개의 그리스 단어로, "City of brotherly love, 형제 사랑의 도시"를 뜻한다.

6) 신화(神話)를 좋아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그리스-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Norse mythology)등이 도움이 되었다. 주로 그리스 신화에 나온 것을 이야기해 본다.

"Athena, 아테나"는 지혜, 기예(技藝)와 정의로운 전쟁의 처녀여신으로 그리스의 수도는 그들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따른 "Athens, 아테네"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적어도 18 지방을 "아테네"라고 부른다.

Arcadia, 아르카디아 또는 Acadia는 고대 그리스의 고원에 있는 이상향(理想鄕)이었다는 전설로 유명한 곳인데 미국에 이 이름을 가진 지방이 12곳이 넘는다.

Troy, 트로이는 트로이 전쟁이 있던 도시인데 미국에 25개 이상의 지명으로 쓰인다.

한국 동아제약의 박카스는 술(포도주)의 신인 Bacchus, 박카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커피를 마시며 "Starbucks, 스타 벅스"의 로고인 반인반어 (半人半漁) 바다의 요정 Siren, 사이렌을 본다.

영어로 1월인 "January"는 Janus, 야누스 신의 달로, 야누스는 얼굴이 앞뒤에 있어 한쪽은 앞을 바라보고, 또 다른 쪽은 뒤를 바라보고 있다. 이는 과거를 추억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져보는 달로서 기념하고 있다.

요일 중에 목요일인 Thursday는 Thor's Day (Norse god,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천둥과 번개의 신)에서 나왔다. 태양계 행성의 이름은 그리스-로마 신화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Jupiter)은 올림피아의 최고신 Jupiter, 유

피테르, 주피터에서 나왔다. Hermaphrodite, 양성구유자 (兩性具有者)는 헤르메스(Hermes, 使者의 남신, 男神)와 아프로디테(Aphrodite, 사랑과 욕정의 女神) 사이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기와 다른 양성의 모습을 모두 갖춘 애가 나오는데 그 이름이 Hermaphrodite이다.

7) 영어와 한국말에 비슷한 것도 더러 있다. Abba, 아바는 신약 마가복음 14:36에 나오는데 '하나님 또는 아버지'를 뜻한다. 한국어로 '아빠'라는 단어도 있다. Ma(m)ma는 어머니라는 뜻인데, 한글로도 애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 '마(또는 맘마)라고 부른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은상(李殷相, 1903~1982) 작사, 김동진(金東振, 1913~2009) 작곡의 가곡 "가고파"를 듣고, 가사를 읽으며 생각해 본다.

내 고향 남쪽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꿈엔들 잊으리오. 그 잔잔한 고향바다/지금도 그 물새들 날으리 가고파라 가고파/어릴 제 같이 놀던 그 동무들 그리워라/어디 간들 잊으리요 그 뛰놀던 고향동무 오늘은 다 무얼 하는고./ 가고파라 가고파 그 물새 그 동무들 고향에 다 있는데/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고. 온갖 것 다 뿌리치고/ 돌아갈까 돌아가/가서 한데 얼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마음 색동옷 입혀 웃고 웃고 지내고저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자 찾아가 /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 지도하에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원이 한복을 입고 우리 가곡 "가고파"를 부르는 걸 듣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했다. 소프라노 가수의 발음도 좋았고, 느낌, 표현도 정말 좋았다. 우리가 외국 가곡을 부를 때 발음과 표현이 어떨까? '가고파'는 우리 언제 들어도 좋은 가곡이다.

한국의 생활이 생각난다. 내 고향 인천은 검은 갯벌의 바다, 그 갯벌 위에서 같이 놀 던 친구들, 그리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이 "그리워진다." 그리고 일제 시 소개하여 2-3년 가 있던 황해도의 백천이 생각난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고향에 한번 가고프고, 친구들을 만나 보고프다.

무엇보다 나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나 같은 능력으로 한국에서 태어나 의사가 되어 미국에 와 별 스트레스 없이 잘 살았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다. 한국말도 하는 것이 별로인데, 이곳 미국에 와서 영어로 살 수도 있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 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신과 함께 있도록 해 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



Ellen Kim
Social worker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종교 교육을 받고 자랐다. 매일 아침 가정 예배를 보고 성경 읽고 일기 쓴 것을 아버지께 보여야만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신약성경을 여섯 번 읽고 일기는 매일 썼고 주일학교는 빠지지 않고 다녔다. 성경 외우기, 연극, 합창을 하며 교회를 내 집같이 드나들었다. 그때 사귄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립다. 그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나는 장난이 심해서 엄마가 힘들어해서 친할머니 밑에서 자라야만 했다. 강원도 철원 시골 개울과 동산이 아름다운 곳에서 살았다.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무에 올라가 과일 따 먹고 밭과 들에서 옥수수 구워 먹고 개울에서 고기 잡고 어린 시절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다.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이빨이 부서져 50대에 이빨을 다 빼 버리고 틀니를 했다. 트럭에서 놀다 뛰어내려 다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등산 갔다가 뜨거운 보온병 뚜껑을 열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으나 할머니가 된장을 발라서 고쳐 주셨다.



아버지가 해 지기 전에 들어와야 한다고 했으나 나는 달밤에 노는 것이 더 좋아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가 벌을 준다. 종아리 열대 맞는다. 또 오빠와 싸우면 크게 우니까 다락에 나는 갇힌다. 그러면 할머니가 몰래 먹을 것을 갖다주신다. 다락 속에서 지하실 속에서 조용히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을 부른다. 나는 늘 주님 날 사랑하심을 믿고는 즐겁게 살았다.

6.25 전쟁은 내가 중학교 들어가서 났는데 남자들은 다 숨고 내가 집에서 가장이 되어 동생 셋과 할머니와 엄마를 먹여 살려야 했다. 자문밖에 가서 배 자두를 밭에서 받아와 인민군에게 팔고 호떡을 만들어 동대문 시장에 가서 팔았다. 나는 열심히 집 식구를 위해 일했다.

1976년에 아이들 넷과 나는 오기 싫다는 남편은 한국에 두고 오빠의 안내로 시카고로 이민 와서 남편 없이 18년 무섭게 일하고 2001년 라구나우즈로 이사 와서 잘 산다.

남편은 알츠하이머로 10년을 앓다가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다. 아이들은 다 성장하고 잘 산다. 나도 금년 86세인데 아직도 수영하고 기공 다이이지(Daiichi)하며 건강하니 매일 기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로마서 8:28

믿음으로 사는 나의 신앙 여정



윤호원
전도 및 선교 봉사

나의 남편은 평생을 오직 교회 음악 안에서 지휘, 작곡, 편곡, 오케스트레이션 등을 사명으로 알고 사신 분이다.

그런데 은퇴하신 후에 청력이 나빠져서 한동안 우울증에 빠지기도 했다.

나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서 매일 식탁 위에 하고 싶은 말들을 말씀과 함께 써 놓고 또 카톡으로도 의사소통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오랫동안, 틀에 박힌 신앙생활에 지쳐 있던 나는 직장에서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큰 도전을 받아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희생과 사랑으로 남편을 더욱 잘 섬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은 글을 쓰기 시작하고 여러 작가님의 가르침도 받으며 우울증을 극복하고 다시 새로운 삶 안에서 보람을 찾게 되었다.

글을 쓰신 후에 나에게 읽어 보라고 하셨는데 그때마다 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그분은 나의 칭찬에 미소를 지으시며 글쓰기와 작곡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 통한다고 하시며 좋아하셨다.

나는 간증문도 써 보시라고 권고했더니 "당신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내 믿음만은 못하지." 하시며 너털웃음을 웃으셨다.

나 역시 그분의 믿음을 인정하며 그분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다.

그러다가, 나의 일생일대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급체로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다. 그렇게 빨리 가실 줄이야!

그때까지도 나는 남편을 보내드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분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나누며 오래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글을 쓰시면서도 죽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 현실감으로 느끼지는 않으셨으나,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임을 믿으셨다.

그분은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셨다.

남편 장로님이 천국에 가신 후 나는 고난 주간에 금식하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게 하셨다.

내 안에 숨어 있는 고독감, 실패감, 열등감, 거절의 상처 등 부끄러운 것들을 보여 주신 것이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위해 드린다고 내가 열심히 달려온 것은 나의 욕망과 만족을 채우려던 것이었다.

내가 진실로 크리스천인가? 나는 무늬만 크리스천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던가!

나는 늦은 비를 알지 못했다.

나 같은 죄인을 이제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천 년을 하루 같이

기다려 주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크신 사랑 앞에서 눈물은 통곡으로 바뀌었다.

두어 시간쯤 회개의 통곡을 하다가 기진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를 감싸주는 따뜻한 온기가 돌더니, 마음속에서 찬양이 들려 온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나의 영혼이 한없이 편안해진다. 주님께서 나에게 늦은 비를 내려주고 계신 것이다. 진리를 갈급하며 찾고 찾던 내 안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이다.

'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십자가 복음과 부활 생명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알았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야곱의 사다리를 타고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던 긴 영적 여정 동안 세례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인도해 주셨다. 신선한 새 복음의 말씀으로 책망과 고침과 점차 강도가 높아지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 올 때 나는 참고 견디고 오직 순종하며 따라오니 마침내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신다. 날이 갈수록 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고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다.

많은 영혼이 나처럼 이 땅에서 늦은 비를 맞고 차원이 높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내 소망 주께 있네



이경재
교회 권사

내 소망 주께 있네! 세월이 더 흐를수록
내 소망 주께 있네, 영원토록.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80의 나이를 바라보는 세월 동안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친구 따라 초등학교 1학년 때 예배당에 가기 시작한 이후로 오늘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소원이었던 터라 어머님이 권사이신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남편이 57세에 중풍이 온 이후 27년이라는 세월을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나는 주님께 원망의 기도도 드렸고 불평의 기도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니 주님은 나의 이 모든 기도를 들어 주

셔서 응답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남편과 결혼 52년을 함께 했고, 아직도 우리는 주일이면 둘이 예배 드리러 교회에 감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부터 성가대 찬양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참여해 왔는데, 나이가 드니 예전과 다르게 목소리에 힘이 없고 잘 나오지를 않아 접어야겠다 생각하고 팬데믹 이후 쉬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2021년에 시애틀에서 라구나 빌리지로 이사 오게 되면서 라구나힐스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의 권유로 다시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눈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성가대 연습을 위해 예배 1시간 전에 교회를 오는데, 이때 남편 이수만 장로와 같은 차를 타고 옵니다. 몸이 불편한 남편은 잘 참아주며 기다려 줍니다. 예배 끝나면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에 가서 남편을 내려주고 점심을 차려준 다음 다시 교회로 와서 연습을 합니다. 금요일 오후 성가대 연습까지 이 모든 일정이 쉬운 일은 아닌데 남편이 협력을 잘 해주니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들만 둘을 두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를 잘 다녔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서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항상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기도에 힘 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막내아들 장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생을 이 라구나힐스교회에서 아름답게 마치기를 바라며….



하나님 영광 나의 영광



이영범 | 심리학 박사

성경을 처음 읽으면서 마음에 끌리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 5:16)

처음에는 착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들었습니다.

벌써 30여년 전 한국학교와 한인회에 열성을 가지고 관여하고 있었을 때에 저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100만 불의 돈이 생기면 50만 불은 한국학교에 그리고 또 50만 불은 한인회관 건설에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나의 좋은 생각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기대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원하느냐?" 내 대답은 그것은 착한 행실이며 좋은 일이며 우리 교포사회에 꼭 필요하며 의로운 일이니까요". 마침 나에게 작은 돈이 생긴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속을 들여다보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 바닥에는 그 일을 해내면 내 이름이 신문에 실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높이 평가해 주리라는 일종의 자기 나타내기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고 싶지 않은 숨겨진 속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겠지요. 그것은 착한 행실이 아니고 오히려 성경은 그런 허식이 모두 하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지 못하는 행실이라 했습니다.(마태 6:1)

성경에는 '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을 중요시하는 희랍사람들은 '義'를 공정(公正)으로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동양의 충의(忠義) 사상이라는 말은 임금에 충성하고 나라를 위해 행하는 착한 행실을 '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몽주, 성삼문, 이순신의 이름이 역사에 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잘 보여준 '의'의 뜻은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일컫게 되었다(롬 4:3)" 하였으니 성경에서의 '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며 그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의인에게서만 나오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접할 때 너무나 가혹한 말이라 생각 되었습니다. 나에게 길을 보여준 훌륭한 선생님들과 역사에 나오는 존경스러운 위대한 인물들이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남 몰래 좋은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냉철하게 나를 돌이켜 보고 세상을 볼 때 이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그럴듯한 모습과 선한 행함이 결국은 자기 포장이었으며 자기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분 의로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선한 목자가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것같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목

숨을 버리시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착한 행실은 자기를 죽이고 예수로 채워진 새 사람된 성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자기부인과 십자가의 삶이 재현되는 것이 그 '의'의 행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더 높으신 이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며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훌륭한 업적을 쌓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여 덕을 쌓아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꾸 낮아지고 죽어가고 내려가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거듭 가르칩니다.

그것이 힘든 것은 나의 사업 나의 재물 인간의 지성 나의 위치와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 버려야 되는 것들이 내 의지 아닌 타의로 내가 내려가고 찢겨지고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그 아들이 죽어야 할 때 그 순간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라구나우즈 우리 마을에서는 노인들이 건강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으로 죽음의 문턱을 오가며 또는 자기의 생명이 의사님의 칼자루에 달린 이 고난의 순간과 어려움의 현장에서 인간은 낮아

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꿋꿋이 견디며 일어나면서 예수를 빛내는 착한 행실을 보게 됩니다.

장터에서 집안에서 정치마당에서 교회에서 모든 공동체의 삶속에서 일어나는 작고 큰 문제들이 우리가 자신을 나타내기 좋아하고 나의 주장 자존심 지키기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나의 영광 자기 높이기 자기 이익만을 찾기에 바쁜 삶속에서는 선한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모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이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폭로되고 내려가고 죽어가야 하는데 나는 올라가야 하고 높아져야 하고 자존심 지켜야 하고 그래서 변명해야 하고 혀로는 속임을 말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 가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에게 매달려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존 여름 단기 선교를 마치고



신학선
선교 봉사



2019년 무더운 여름이었다.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아마존 여름 단기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어서, 그 당시 선교사로 부름받아 중국 선교를 계획하고 있던 남편과 함께 등록하게 되었다.

COVID 전이라 별문제 없이 아마존 선교팀 16명이 들뜬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였다.

난생처음 받게 된 Yellow fever vaccine과 장질부사, Tetanus, Hepatitis A, 말라리아 등 예방접종과 약들을 의료팀과 선교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복용했고, 모기약도 입을 옷마다 1주일 전부터 뿌려서 말린 후 입었고, 열악한 환경이라고 더욱 기도하면서 모든 준비를 하였다,



Colombia Leticia에 숙소가 있고, 날마다 조그마한 보트를 타고 아마존강을 건너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국경 지역 인디오 마을을 가게 된다.

선교사님들의 열정 어린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는 높게 세워진 판잣집이었다. 물이 들어오면 수영해서 교회에 들어가고, 물이 빠지면 이층으로 걸어 올라가 모임을 가졌다. 우리가 있는 동안은 물이 빠질 때라 보트에서 내려 진흙탕 길을 걸어서 올라갔다.

우리를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먼저 보이고, 문도 창문도 없는 큰 공간의 예배실에 함께 가득 모여 앉아 기뻐하며 감사 예배를 드렸다.

Team 사역으로는 Medical, Acupuncture, VBS, Eyeglass, Hair-cut, 즉석 가족사진 촬영 등이었고, 이 모든 수고와 땀을 오직 우리 주님께 드리리라는 각오는 사랑하는 모든 팀원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땡볕에 훈훈하고 무더운 습기 찬 여름의 아마존은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지만, 가슴에 품은 주님의 뜨거운 성령의 불길은 우리 팀원들은 물론 마을 주민 모두를 더욱 강하게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한다.

식수가 따로 없기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고 물이 없을 때는 아마존 강물을 사용해 밥을 짓고, 끓여서 먹는 물로 사용한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현지 선교사님(6명)들께서, 우리 교회팀을 위해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통역으로 쉬지 않고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교사님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 하심도 너무 감사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기에 아마존 아이들의 눈망울과 "EN-MI-Corazon, EN-MI-Corazon" 하고 찬양 드리는 순수한 모습들이 눈에 아른거려 온다.

아마존 인디오 마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증인이 돼라.' 하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묵상하면서 그들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게 된다.

주님, Amazon에 주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2019년 7월)

나는 진정한 기독교인인가?



이성수 | MD

나는 84년 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달오동 산골짜기 조그만 마을에서 평범한 농부 가정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전통적인 유교적 교훈을 받으며 부모 공경, 어른 공경,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천자문과 명심보감 등 한문을 배웠다.

대학교는 의예과와 본과 6년을 아주 어렵게 지냈으며 남의 집에 가정교사 하며 겨우 숙식을 해결하며 견디어 냈다. 1959년인가, 1960년인가, 어느 천주교 신자 집에서 가정교사 할 때 아이들 어머님의 권고받고 천주교 영세를 받았다. 그때는 성경책 한번도 본 적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교인이 되었다.

그 후 해군 군의관 생활 4년, 미국 와서 인턴, 산부인과 교육 4년, 그리고 먹고살기 위해 여기저기 뛰고 살면서 전혀 종교에는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나이가 좀 들어서 여섯 살 위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다. 시카고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영사 한 분한테 성경 배우고, 그분 호주 대사로 영전되고, 신학교에 다니던 예비 목사 모시고 성경 공부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첫 3개월 동안 "생명의 삶"이란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예수교의 참 진리를 많이 배웠다. 한번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죄다"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이 세상 수억 명이 다 죄인인가 하는 의문의 대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태어나셨으며, 짧은 삶 동안 많은 가르치심, 특히 사랑을 남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알고 있다. 또 몇 년 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시카고 미시간 호수에서 물세례를 받았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음을 알고 내가 진정 예수교인임을 안다. 하지만, 훌륭한 예수교인이 되려면 옛날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엿장수, 점쟁이가 자기 하는 분야에서 전문가인 것처럼, 예수 전문가인 '예수쟁이'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매일 크고 작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하나님께 여쭈고,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을 실행하며,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가 되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윤순애 | 간호사

어느 날 우연히 교회 친구와 차를 마시기로 한 장소에 나갔다.

그 자리에 처음 보는 한 군복 입은 남자가 나타났다. 친구는 간단하게 그 남자가 누구라고 소개한 후 그 자리를 슬쩍 떠나고 우리만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제야 선을 보는 자리임을 깨닫고 무척 당황스럽고 어색하여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앞에 앉은 군인은 자기는 잠깐 휴가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연애 상대가 아니라 결혼 상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직설적인 사람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나도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당시 나는 미국으로 갈 준비 중으로 몇 곳에 이력서를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후 그 남자는 하루가 멀다하고 나에 대한 자기의 관심사를 편지로 계속 보내왔다. 알고 보니 그 군인은 내가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미군 부대에서 국가 기밀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일한다는 것도 차츰 알게 되었다.



그 후 나는 나의 계획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나의 일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 간다고 생각이 바뀌었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니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때부터 모든 환경과 인간관계가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으로 여겼다.

하나님이 군복 입은 남자를 바람처럼 보내주어 나의 일생이 이렇게 바뀐 것이다.

나의 하나님, 오직 나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든지, 거친 광야로 이끌어 가시던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다.



나의 기도



이상애 | 약사

이제껏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부족함 투성이었네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항상 주위 사람들을 통해

허락하고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한했지요

그분 앞에 설 날까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순종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전신자 | 약사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은 평안북도 신의주인데 압록강과 인접한 동네였다. 집 마당에는 주름치마처럼 빨간 맨드라미꽃이 탐스럽게 피었고 강 건너편 중국 사람들이 크게 떠들면 강 이쪽까지 들려왔고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내 어릴 적 신의주 집의 기억이다.

38선이 그어지고 로스께(소련군)들이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신의주 시내에는 이런저런 풍문과 함께 사람들은 공포에 싸이기 시작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옥으로 끌려간다는 소문에 나의 아버지, 삼촌, 고모 세 분은 잠시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떠나 월남의 길에 올랐으나 정세는 나아지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나머지 식구들도 남한으로 가야겠다는 결단을 내리셨기에 태어난 지 삼 개월밖에 안 된 동생 영희는 엄마가 등에 업고, 세 살짜리 남동생 순기는 길 안내자의 등에 업히고, 일곱 살 언니 지숙이는 걸을 만하지만 다섯 살짜리 신자는 걸리기가 어려우니 외갓집에 맡기고 가자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이 없었다. 어렵겠지만, 신자도 데리고 가야겠다고 결단하신 할머니는 누가 봐도 이 집 사람들이 곧 돌아올 것같이 모든 가재도구

를 그대로 놔둔 채 두 여인이 아이 넷을 데리고 남쪽 길을 나서게 되었다.

해주에서 강만 건너면 남한 땅인데 달 없는 캄캄한 밤을 택해서 우리 여섯 식구는 미끄러운 갯벌을 조심조심 걸어서 대기해 놓은 나룻배로 가야 했다. 이미 38선이 그어진 직후여서 남하하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죽이던 급박한 분위기를 어린아이들도 알았던지 아무도 소리 내는 사람이 없었다. 배에 거의 다 도착할 무렵 살림살이를 머리에 이고 등에 아기를 업은 엄마가 갯벌에서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았다. 엄마 등에 눌려서 죽었구나 생각됐지만 아기의 생사를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냥 배에 올랐다.

동생 영희는 살아 있었고 남하한 후에 씩씩하게 잘 자랐다. 몇 년 후 잘 자라던 영희가 열이 나며 아프기 시작한 것은 그때 다친 척추에 결핵균이 들어가서 생긴 병인데 나중에야 알았지만, 결핵 약만 먹었으면 나았을 병인데 한국 전쟁통에 그러하지 못하고 등뼈가 휘어지지 못하게 석고 조끼를 입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영희는 일생을 불구로 살면서 미국에 와서 Otis College of Art에서 Oil Painting을 전공하고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다시 신학 공부를 하고 평생 장애인들을 섬기면서 천사 같은 삶을 살았다.

피난 중에 많은 어린이들이 결핵, 수두, 영양실조로 죽어갈 때 나는 말라리아에 걸려 피난지인 제주도에서 초등학교 4학년 한해를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쉬어야 했던 병약한 아이였다. 서울 탈환 후에 서울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 다니던 청파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간 것이 내 인생을 빛 가운데 걷게 한 축복의 기회였다. 새로 만난 담임 선생님은 무얼 보고 그러셨는지 나에게 점심시간마다 방송실에서 동

요를 부르게 하여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물론 온 동네가 다 들을 수 있었다. 선생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나를 활짝 꽃피게 했고 몸도 점점 건강하게 되었다.

이때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위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희망과 자신감이 아이들을 얼마나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어 한때는 나도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

그 후로 나의 인생은 진학도, 결혼도, 가정도 순탄한 길을 걸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았다. 결혼 후에 몇 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아기 하나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들 셋을 주셨으니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감사하며 힘든 줄 모르고 정성으로 키웠다. 아침에는 식사 전에 성경을 읽게 하고, 저녁에는 온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가정예배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둘째 아들 Peter가 Law School을 졸업한 후 아직 직장이 확정되기 전에 꿈꾸던 미국의 수도인 Washington DC로 떠나기 전날 저녁, 아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아들의 발을 씻어주고 아빠의 Credit Card를 주면서 직장 구하기 전에 필요하면 쓰라고 했다. 아들은 걸상에 앉아 방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 발을 씻어주는 아빠의 머리에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Washington DC의 보사부에서 일을 시작한 후 15년간 직장생활을 잘 하던 아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와서 자기 결심을 털어 놓았다. 대학생 시절 Chicago에서 4년마다 열리는 '대학생 선교대회'에 참석했을 때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일이 있었다. 그때 그 일이 항

상 가슴에 맺혀 있어 하와이에 있는 YWAM(Youth With A Mission)에서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을 거쳐 단기선교로 봉사를 했지만, 그것으로 마음이 채워지질 않아 Full time 선교사로 나가겠다며 아빠가 허락해 주시길 원했다. "나는 너를 믿으니 네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 아빠는 반대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에 Peter는 많이 감사했다며 지금도 아빠를 믿음의 모델로 삼고 있다.

Peter가 하와이의 YWAM에서 Full time 선교사로 섬긴 지 2년 후에 아빠는 세상을 떠나셨다. 나는 살던 집을 정리하고 Laguna Woods로 이사했다. Peter가 자기의 mission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고자 Canada의 Regent College에 가서 공부하던 중에 갑자기 척추뼈가 무너져 심한 통증으로 척추 수술을 받았다는 연락이 왔다. 5년 전에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고 1년 9개월간 투병하시는 동안 힘들기는 했어도 차분하게 잘 따라갔던 나였지만 Peter의 사건은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웠다. '이건 아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소명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아직 결혼도 해 보지 않은 이 아들에게 어떻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께 물어도 나는 그 답을 찾을 길이 없었다.

Peter는 수술 후 Canada Rehab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wheel chair를 사용하는 skill을 6개월간 배우고 난 후에 나와 함께 살게 되었다.

나는 Peter와 같이 살면서 내가 갖고 있던 마음의 쓴 뿌리들이 서서히 치유되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다. 이 큰 고난을 견디며 사는 당사자 Peter가 저리도 꿋꿋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내가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럴 수 있구나!' 아들을 기르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애썼던 내가 이제 장성한 아들에게서 믿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니 그가 대견하고 고마워서 내 속의 풍랑이 가라앉게 되었다.

아들의 권유로 나 자신도 DTS(Disciple Training School)에서 훈련받고 다시 일어나 제자로서의 삶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연습을 하고 있다.

Peter는 지금 많이 회복되어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일상의 생활을 잘하면서 다시 Law Career를 가지고 일해 독립된 삶을 살아내고 있다.

Peter에겐 소박한 꿈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화해'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 한국과 미국을 몇 달씩 오가며 Tent Maker Missionary로 하나님께서 가슴에 넣어주신 소명을 계속해서 이루기를 원한다.

Peter는 자신의 특수 여건에 맞는 거처를 찾기 위해 한국을 기회 있는 대로 방문해 보곤 한다.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린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 3:18

하나님의 은혜



최숙영
Hospice Director

저는 서울에서 3남 2녀의 다복한 가정의 막내딸로 축복과 사랑을 받으며 태어났습니다.

그 시대에 아버님은 창의적인 분이어서 개화 문화를 찾아서 음악 공부를 하시려 일본 동경에, 우에노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시고 그 당시 일본 사회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오페라 마담 버터 플라이에 메인 싱어로서 출연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스포츠 및 선진 문화에도 관심이 커서 한국 최초로 강원도 대관령에 스키장과 리조트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지으셨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경성 의전 제1회 졸업생으로 서울의대 명부에 이름과 사진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존재를 느끼면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들려주셨던 할아버님 삶의 모습 중엔 늦은 시간에도 초인종이 울리면 인력거를 타고 왕진을 다녀오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받지도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돌보셨다는 고모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같이 의료계통에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 흰 가운을 입고 아프고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제 마음에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어린 시절의 꿈과 달리 아버님의 사랑과 귀여움을 듬뿍 혼자 받고 자라면서 아버님 뜻이면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화여고 시절부터 일본과 유럽을 다니며 스키와 테니스 선수로 훈련을 받았고 겨울에는 스키 선수로 봄, 여름, 가을은 테니스 선수로 아버님의 강하신 의지와 내 안에 있는 챔피언 기질이 나를 초등학교로부터 대학 시절까지 스키 알파인 4관왕을 차지하며 한국 챔피언이 되었고 그 당시 신문의 스포츠 관련 기사를 저의 오빠와 함께 남매 사진이 도배 되기도 하고 또 그 당시 극장에서 상영하는 대한뉴스에도 자주 나오기도 해서 나름 특별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해 보면 그때 뉴스가 나오는 것이 매우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또 다른 저에 대한 강한 바램과 지원에 따라 그 당시 독보적이었단 테니스의 크리스 에버트와 빌리 진 킹 같은 선수가 되고픈 큰 꿈을 가지고 미국 유할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 시절엔 생각도 못 했던 소위 기러기 아빠가 되어 다른 가족들은 다 고국에 두시고 나를 위해 이곳에 홀로 미국에 오셔서 여러 해 동안 나와 함께 고생하셨습니다.

1976년 UC Irvine에서 테니스 장학생 자격으로 초청되어 Physical Education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테니스 훈련을 받으며 각종 대회에서 입상도 여러 차례 했고, 또 겨울에는 맘모스와 레이크 타호에서 개최되는 스키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맘모스 스키장에서 믿음직스러운 청년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하얀 웨딩 드레스에 스키화를 신고 함께 스키장을 내려오



면서 결혼식을 올리는 꿈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스키와 테니스를 가르치는 교육자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스키와 테니스는 상류사회 자제들이 하는 스포츠로서 그들 자제들의 코치와 친구로서 그 가족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지금까지도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가주 몬트레이 페블 비치에서 결혼 생활을 했고 호텔과 레스토랑 사업을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우먼으로도 인정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 당시 너무 잘 나갔던 탓인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이곳 미국의 큰 사업체와 무리하게 경쟁하다가 3년간의 긴 법정 투쟁 끝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너무 괴로워 가족과 남편을 지켜 주겠다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살며 고민하다가 죽음을 선택하여 지옥문 앞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군가의 강한 손길과 힘에 끌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수련회에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이 내게 떨어졌습니

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 셨나이다"라는 말씀이 나를 쏟아지는 눈물과 울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만나게 해 주신 어느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 쉘터에서 메니저로 일하게 되었고 남성으로부터 구타당한 한인 여성들을 위하여 법원과 경찰서를 다니며 그들을 보호해 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후 2번째 만남으로 6년 전 라구나우즈에 사시는 장로님 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믿음 생활을 하시는 의사였고 내가 바라고 꿈꾸어 왔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노인 사역과 의료 봉사를 하시면서 투병 중이신 그 분의 아내를 돌보는 분이셨습니다. 5년 전 10월 어느 날 그의 아내이신 권사님은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시면서 주일 오후에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평안히 천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 너무도 슬픈 마음을 품고 장로님도 나도 라구나우즈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3번째 만남으로 저에겐 아주 새로운 분야인 IT 회사의 대표를 만나게 되어 그 회사의 한국 주재원으로 1년간 일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재정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에 같은 교회에 다니던 간호사의 권유와 라구나우즈에서

만났던 의사이신 장로님과 함께 뜻이 맞아서 시니어 케어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인 호스피스를 알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어했던 노인 의료 사역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후 1년간 호스피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작년부터 오렌지 호스피스의 창립 멤버로 지금까지 열심히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섬기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에서 내과, 비뇨기과와 심장 전문의사로 일하고 있는 우리 조카들로부터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으며 의사였던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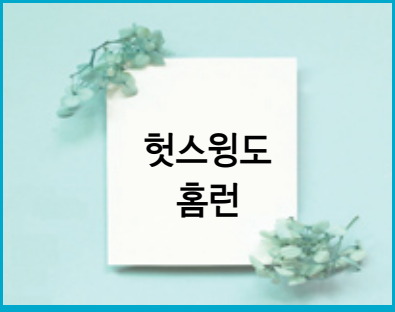
xxx xxx xxx



이곳 라구나우즈에서 오렌지 호스피스 일을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역으로서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어려움에 처한 이곳 연로하신 어르신께서 부르시면 저절로 몸과 마음이 반응하여 믿음, 소망,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세상에 보내신 뜻이라고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만남과 이별의 길목에서



미국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무려 714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동시에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한 '아웃왕'이었습니다.
수없이 헛스윙 하고 아웃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
아웃왕 대신 성공왕이라는 명예로운 수식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뒤안길에는 수많은 실패의 역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헛스윙에 아웃까지 당했다고 좌절할 필요은 없습니다.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이제 홈런을 치면 되니까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분명합니다.

만 남



김경자 | 성악가

'마음의 창' Bio 유람선의 출발을 알리는 고동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준비가 어려운 나는 놓칠세라 헐레벌떡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1950년대 중반에 나도 모르는 사이 일생의 배우자를 만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로 말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다니던 교회에 새 목사님 김연환 목사님과 최경애 사모님께서 부임하셨는데 교복을 입지 않은 큰 따님 둘과 파란 교복을 입은 남학생 둘 이렇게 새 목사님 가족 6분이 도착하셨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은 모든 성도의 환영과 사랑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셨다. 사모님께서도 신학을 전공하신 신여성이셔서 중고등부 성경을 가르치셨고 여전도회 등 전반적으로 목사님의 목회에 큰 동역자이셨다.

곧이어 여전도사님께서도 연세대학교를 다니는 따님과 함께 부임 하셨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셨다. 유난히 교회를 좋아하던 나는 어린 나이에도 교회 출석, 예배, 찬양, 기도, 전도, 헌금 등에 열심을 다하는 어린 학생이었고 예배, 성경 공

부, 찬양, 성경 암송, 전도, 교회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그렇게 즐거움과 큰 기쁨으로 다가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니 중고등부 예배에 출석하게 되었고 성경 공부는 사모님께 배우며 목사님의 두 아드님과 함께 중고등부에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다.

교회와 중고등부는 계속 부흥해 갔고 월별, 계절별, 특별행사도 늘어나 구별 찬양제, 문학의 밤, 부활절, 성탄절, 연합예배, 야외예배, 부흥성회, 새벽 송 돌기 등등~~ 모이기를 힘썼고 모든 연령층이 감사로 가득 찬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은 교회를 떠나셨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교복을 벗고 자유로운 복장과 머리로 등교를 시작할 무렵 교회 중고등부에서 함께 자라나던 목사님 맏아드님의 연락을 받고 교복을 벗은 이후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목사님 부임하신 후 얼마 안 되어 위의 두 따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고 두 아드님은 교회 중고등부에서 함께 자라났다.



큰아드님은 나보다 3살 위로 내가 고1 때 서울 공대에 입학해서 짧은 머리에 서울대학교 교복을 입고 나타

났을 때 많은 여학생의 시선이 가기도 했었다. 그는 성가대 지휘를 시작했고 다음 해에 작은 아드님이 서울 법대에 입학해 같은 교복을 입고 등장해서 또 한 번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후일에 시동생님은 관직을 두루 지낸 김인호 장관이다.

우리는 만남을 이어갔고 음대 교정에도 드나들며 데이트는 이어졌다.

누님들의 뒤를 이어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 유학 전 결혼을 결정하고 67년도에 우리를 이어주신 하나님과 양가 부모님, 많은 목사님과 일가친척 여러분, 친구들의 축복과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리었고 배우자 김인근 장로는 결혼식을 올린 지 50일 만에 유학길에 올랐다. 시어머님이 되신 사모님께서도 둘째 따님의 만학을 위해 따님댁으로 떠나셨다. 시아버님이 되신 목사님과 나, 시동생, 집안 일해주시는 분 이렇게 넷의 외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다음 해에 시동생의 결혼과 우리의 첫아기 출산을 위해 친정으로 옮겼다.

4개월 된 아들을 안고 콜로라도에 도착해서 콜로라도의 달 밝은 밤을 노래하며 로키산맥을 누비던 때가 불과 몇 년 전같이 느껴진다. 어릴 적 전도사님의 따님이 윤경순 장로님이시고 PCUSA 장로교 전국여선교회 연합회를 위하여 한인교회 대표로, 교단 내 한국교회 전국연합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일로 우리는 각각 5년씩 일을 하며 전국 여러 도시에서 만나다 어느 날 남가주 하와이 대회에서 만났을 때 Orange County로 이사 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Laguna Woods로 이사 온 후 먼저 이사 오신 윤경순 장로님을 다시 만나 이



제는 한 마을 안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같은 교단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 중부 대회장으로 일하시던 채길환 권사님과 PCUSA 교단에서 많은 공적을 남기신 최미길 목사님, 같은 교단의 이종민 목사님 내외분, 김성웅 목사님 내외분, 샌디에고에서 오래 함께 생활하시던 여러분 또 두 분의 고종사촌 오빠 내외분, 수 많은 새로운 만남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린다.

남편 김인근 장로는 1990년 부터 2000년까지 재미과학자 초청으로 한국 정부의 초청을 받아 자기부상열차(떠서 가는 기차) 연구 책임자로 한국기계연구소에서 만 10년을 근무한 후 IMF로 조기 정년퇴직하고 귀국하여 General Atomic에서 자기부상열차 연구를 주도하며 12년 근무 후에 정년 퇴직하였다. 대덕 연구단지에 시험선로가 운행 중에 있고 실용화를 위해 인천 국제공항 앞 건물, 철도 건물 안에 8 KM 시험 선로가 운행 중에 있어 누구나 시험 탑승해 볼 수 있다. 김인근 장로는 자기부상 열차 연구 개발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한림원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100대 기술과 주역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량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피난 길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의 역사로 지켜주신 은혜, 배우자를 택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신 은혜, 세 자녀를 잘 키워주시고 교육시키신 후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 8명의 손자 손녀들을 보내 주시고 키워주시는 은혜, 노년의 삶을 Laguna Woods 마을로 인도하셔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즐겁고 은혜로운 생활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쓸 수 없다"는 찬송도 역시 나의 찬송이다.



제4차 이민을 준비하면서



김원기 | 목사



나는 1973년에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외환은행에서 바꾸어 가져가는 $100 중에서 하네다공항에서 Hair Dryer를 $25를 주고 사고 남은 돈 $75를 가지고 미국 땅을 밟은 셈이다.

택사스의 달러스에 있는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를 돕기 위하여 대학 식당에서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마을의 Country Club 식당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였다.

그렇게 정신없이 유학 생활을 보내는 1년 후에 한국에 있는 가족

을 초청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던 큰딸, 유치원에 가야 할 나이 5살의 둘째 딸, 남진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래를 이제 막 부르기 시작하는 철부지 세 살배기 아들 그리고 아내 4식구가 아내의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깻잎 반찬 한 통을 큰 가방에 넣고 Dallas-Fort Worth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렇게 하여 우리 가족의 제1차 이민 생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온 식구들이 총동원되어 사무실 청소를 하면서 그리고 아내는 남편 뒷바라지를 위하여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육체적인 노동을 하여야 하는 일을 하였고 회사에 다녀야 하였다. 나는 학업을 마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 식구들과 함께 겪어야 했던 이민 광야의 삶은 녹록하지 않았다.

제2차 이민의 삶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이 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서부지역 한인교회 개척과 전체 한인교회 육성을 위한 막중한 태평양 섬들을 포함하는 선교사역을 위하여 파송을 받았을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민 초기에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과의 이별이었다. 허허벌판에 떨어진 도토리처럼 이민 초년생이 미국 달러스, 텍사스, 그리고 광활한 미국 중남부지역의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들과 맺은 관계를 뒤로 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서부지역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좋은 지도자들 그리고 자원봉사 평신도들과 더불어 선교사역을 보람 있게 감당할 수 있었다.

은퇴 후에는 Laguna Woods Village로 이주하여 제2차 이민의 후반기를 보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탈북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선교사역을 6년간 함께 한 좋은 선교사역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보람이 있었고, 더욱이 마음을 주고 받으며 대화하고 여행을 함께 하였던 이웃들이 있어서 행복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를 이웃을 위하여 이름도 내지 않고 봉사하는 좋은 이웃들에게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였음이 아쉬웠다.

자녀들의 권고로 제3차 이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조지아주 Atlanta에 이제 막 도착하였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함께 의미있는 선교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이웃들을 만날 수 있을까?

허심탄회하게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함께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이웃들을 사귈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새로운 지역에서 마음 편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을까?

미지수가 한둘이 아니다. 이해인 수녀님의 시집과 수필집을 탐독하고 지미 카터 대통령 부부 삶의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시간을 아껴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제3차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절박

해지는 생각은 "어떻게 제4차 이민을 준비할 수 있을까?"이다.

제4차 이민은 차원이 다르기에 착실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특별한 기도 제목들이 필요하리라. 내 주변의 상당한 친구들이 이미 제4차 이민을 떠났다.

어떤 친구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머나먼 길을 홀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어느 날 가까웠던 친구들이 떠난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오고 있다.

4차 이민은 스스로 떠날 날을 결정할 수 없이 순서 없이 떠나기에 안타깝지만,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별다른 길이 없다.

"나의 황혼기의 황금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미련 없이 접고 떠날 수 있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온 나의 삶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

"1차, 2차, 그리고 3차 이민 여정에서 만난 주안에 선한 사람들을 4차 이민 여정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떠나야 하지?"

"주님, 부족한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십시오."

2023년 10월 30일
3차 이민의 정착지 조지아주 Atlanta에 도착한 첫날 밤에
혜은 김원기



창(窓)



(고) 윤민제 | 지휘자

아침에 일어나 두 개의 창을 연다.

침실의 창문을 활짝 열어 밤사이에 탁해진 공기를 밖으로 몰아내고 창밖의 우거진 나무들이 내뿜는 신선한 공기를 끌어들여 상쾌한 새 아침의 희망을 안고 맞이한다.

곧이어 아침의 일상인 양치질과 세수를 하고, 조반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컴퓨터의 창을 연다. 간밤에 일어난 온 세상의 뉴스들이 재치 있는 제목을 달고 사진까지 곁들여 창안에 나열된다. 눈길을 끄는 제목만 들추어 보고는 기대감을 품고 우편함을 열어본다.

지구 반대쪽 친지들의 메일이 잠자는 사이에 태평양을 건너오고 동부의 친구들도 꼭두새벽부터 대륙을 횡단하여 달려와 창 안에 가득 들어 있다. 이웃들의 살뜰한 친구들과 후배들도 창을 통해 찾아오며 심지어는 나의 귀가 어두워서 전화를 대신하여 글로 말해주는 이들 며느리의 애틋한 메시지도 창 속에 새겨진다.

나는 평생 성가(聖歌) 작곡과 지휘 생활을 천직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몇 년 전부터 청력이 손상되어 음악의 세계와 석별한 후 절망과 소외감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닥쳐오는 하루하루가 역겨워서 죽을 날만 곱씹고 있었다.

주변의 사람들은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한답시고 베토벤의 이름을 들먹거리곤 하는데 음악가가 귀먹으면 누구나 베토벤이 되는 줄 아는가 보다. 한때 이곳의 음악계를 주름잡던 선배들의 모임인 원로음악가협회에 참석해 보면 너도나도 귀가 멀어서 서로가 멀뚱멀뚱 쳐다보며 동문서답을 하고들 앉아 있다.

베토벤과 같은 작곡가는 음악사에 하나쯤 나올 수 있는 인물이지 아무나 베토벤이 되는 건 아니다.

그는 "세상엔 왕도 많고 부호(富豪)도 많지만, 베토벤은 하나뿐이다."라고 호언하였다.

그러나 베토벤도 청각 손실을 비관하여 자살하려고 유서까지 썼다는 걸 알기는 아는지?

이곳저곳에서 날아드는 정다운 사연들 하나하나에 성심껏 회답하다 보니 어느 틈에 글쓰기의 재미가 내 몸을 달궈준다. 타인의 수필이나 소설을 읽으면서 감탄과 감동으로 정신이 팔려 있던 참에 나도 한 번 멋진 글을 써봤으면 하는 욕망이 끓어오른다.

기어이 지난 날의 삶에서 소재를 찾아내어 한두 번 내 멋대로 끄

적거려 보았다. 써놓고, 고치고 다듬고 하며 정신을 집중하다 보니 젊어서 작곡할 때와 꼭 같은 열정이 고스란히 되살아난다.

청각의 장애는 오히려 주위가 조용해서 글쓰기에 도움이 될지언정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다가도 쓸만한 글감이 떠 오르면 밤중에도 일어나 컴퓨터의 창을 열고 자판을 두들긴다. 한 시간, 두 시간, 그렇게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 때로는 글 속에 파묻혀서 몰아의 경지에 빠져 있는 사이에 동터오는 하늘의 코발트색이 동쪽의 창문을 곱게 물들인다.

배움도 없이 자판 위에서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가는 글이라 사생아로 태어나서 호적에도 못 올리고 누구에게 읽으라며 디밀 수는 없더라도 무료한 시간을 글쓰기에 몰두해서 삶의 활력소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상한가!

두 개의 창, 침실의 창은 매일 아침 희망을 안겨 주고, 컴퓨터의 창은 나의 남은 생애를 보람차게 해준다.

〈Bio Senior Group 윤호원 선생님의 부군〉

유가족과 친지에게 드리는 Message



(고)윤종식
생물학 박사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고인을 위해 드리는 전통적인 제사 형식과는 달리 추모 예배는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를 위해 교훈을 얻는 데 크게 유익하다.

고인을 추모하면서 우리는 '소경의 눈'이 아니라 '바른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눈이 필요하다.

1) 먼 곳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자

창세기(13:10-11)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분거할 때 롯은 기름지고 물이 많은 요단 들을 택하게 되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물도 없는 가나안에 머물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을 약속한 대로 얻고 복 받음을 볼 수 있다.)

후손인 여러분은 고인이 세상을 떠나신 일만 생각하지 말고 고인



의 감동적인 생애도 바라보고 고인이 못다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또 후손 된 아들딸들에게 나리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

2) 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자

사도행전(7:55-56)에 기록된 대로 스테반(교역 사상 첫 순교자)이 순교를 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를 증거함을 우리가 안다.

계시록(3:4-6)에 보면 하나님은 천국 고향 문을 열어 놓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여 주심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하늘나라가 고인과 추모하는 후손들의 만남의 장소인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눈을 들어 위를 보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화가 있음을 알게 된다.

3) 내면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자

내면의 눈을 가지고 고인에게 임한 주님의 은총을 보고 또 오늘 우

리가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면의 눈을 들어 저 멀리, 저 높이 하늘을 보아야 한다. 하늘나라에 계신 고인을 보고 또 고인을 하늘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은총이 이 시간 우리 무리 가운데 함께 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후손 된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

선친이 남기신 아름다운 덕행을 후손들에게 바로 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인이 살아 계실 때보다도 더욱 고인이 강조하시던 일들을 따르고 지키며 집안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웃 어른들을 섬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덕은 삼가며 조심하는 데서 쌓아지는 법이며, 향기는 그 가운데서 더욱 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사도 요한이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믿어야 할 분**,

요한 1, 2, 3에서 예수는 **사랑해야 할 분**,

계시록에서 예수는 **기다려야 할 분**이라고 했다.

예수님을 **믿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고인과 함께 구름 속에서 주를 뗏뗏하게 **영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미망인 윤경순 님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시다가 고인이 미쳐 알리지 못한 〈유족과 친지에게 드리는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였습니다.
고인이 어록처럼 쓴 유언으로 우리 모두에게 교훈과 귀감이 되는 좋은 내용이기에 여기에 싣도록 권유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며



이신애 | 약사

"친구야!"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이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메아리쳐 돌아오는 그 이름, 이(조)덕희.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다할 학연이나 지연이 없는 우리가 단짝 친구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1985년이었습니다. 마침 포항공대 창립팀에 함께하게 되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포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 뒷집에 살면서 매일 만나게 되었고 고국이라 하지만 어쩐지 어색하고 친구도 없는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를 위하여 밤낮으로 바쁜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우리는 교수부인회와 주부대학을 만들어 나름대로 보람된 시간을 보냈고 친구는 그 고유의 특기를 살려 2개의 합창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또 주일이면 예배 후에 근처에 있는 여러 산을 오르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아기자기한 한국의 자연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친구의 부군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는 얼마간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우리 바깥양반도 퇴직했고 수개월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제 곁을 떠났지요. 짝 잃은 기러기가 된 저는 아이들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침 친구가 사는 이곳 Laguna Woods 단지(앞으로 LWV로 표기) 안에 그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삶의 터를 마련하게 되어 우리는 옛 우정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이곳에 온 그는 이미 그의 특기인 합창반을 설립하여 열심히 뛰었고 이곳 LWV 한인회 회장도 역임하면서 재미있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따라 저도 LWV내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며 매일 같이 다녔고 자타가 공인하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LWV의 한인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뛰었고 2013년과 2015년 두 번에 걸친 탈북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에 이영범 선생님 내외분이 LWV로 이사를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Bio Senior Group이란 모임을 만들었고 그 모임도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난데없는 Corona virus의 습격을 받아 모두 불안한 가운데 단지 내의 모든 모임이 중단되고 서로 거리두기를 함으로 어색하고 불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는 식도암 진단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는 암 수술을 했고 힘든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즐겁게 했었는데….

지난 9월에 있었던 Bio Senior Group 행사에도 그 모임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하나인 그의 모습이 안 보여서 무척이나 아쉬웠지요.

"친구야, 가까운 장래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오늘은 이만 안녕!"

- 2023년 10월 24일 친구 이신애-



〈조사〉

내가 만난 한순옥 선생님



이영범 | 심리학 박사



LWV 자택에서 2019년

80을 훨씬 넘으신 한순옥 할머니! 그녀에게서는 소녀의 미소를 보게 되고 어린아이의 순결한 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나는 한 선생님을 라구나 우즈에 있는 Bio-Senior 그룹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신 성품이지만 평범한 가정 부인만은 아니었어요. 자신의 당당한 입지를 구축한 공예가이며 예술가이셨습니다.

미국 유학 초기에 스탠퍼드대학 캠퍼스에서 지금의 61년간 함께 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 후에 도자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40세의 노학생으로 1975년부터 1985년에 이르기까지 남편이 수학 교수로 몸담고 있는 펜실바니아 대학(PSU)에서 도자기를 공부하였

습니다.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면서 서예를 익히며 한국의 'In Lay 도공법'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녀는 미국, 캐나다, 한국, 독일 등 여러 도시에서 60회가 넘는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작품을 미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녀의 숙련된 솜씨는 도자기의 예술 세계에서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운 어울림을 표출해 냈다. 그녀의 작품은 가식 없이 아름답다. 틀림없는 현대의 작품이지만 그속에는 천 년의 동양 전통이 숨 쉬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1988년 뉴욕에서 개최되었던 국제 예술 작품 대회에서는 도공 분야 최고 성취의 상을 받고 여러 박물관에서 한 선생님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하였다.

선생님은 예술가이기에 앞서 한 여인, 어머니, 아니 인간으로서 불우한 고아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시는 분이시었습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 언니와 단둘이 함흥에서 1.4 후퇴 당시 남한에서 살았던 외로움, 그 후 의대생이던 언니를 잃은 아픔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탓이었을까. 선생님은 미국에 오시기 전 고아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여덟 살의 고아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이런 아이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후 30년의 세월도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작품 전시회도 하고 도자기를 팔게 되면서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에 가서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작품을 팔아 모금을 하여 고아원을 돕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60 여종의 작품을 운반하는 일, 세관 통관하는 과정, 장소를 구하고 마케팅을 하는 일 등 모든 것이 큰 모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그리 힘들게 사십니까? 여기서도 좋은 일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들의 말은 어머니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1993년 한국에서의 전시회는 대성공이었다. 운반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힘들 때마다 뜻밖의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물건 운반은 귀국하는 대기업의 사무원이 이삿짐으로 도와주고 세금은 공무원 친구의 보증으로 면제를 받게 되었으며 작품들은 전시회가 끝나기 전에 매진이 되었다.

한 선생님의 기쁨은 학창 시절 품은 선한 꿈을 이룩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였다. 세상 물정 모르는 가냘픈 여인의 두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힘들 때마다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확신이 그를 더욱 기쁘게 하였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전부 '남사랑재활원'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시회를 계속하시며 작품이 팔릴 때마다 고아원과 불우 아동들을 도와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일관한 삶은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한결 같이 아내를 후원해 주신 한경택 교수님의 가정은 라구나우즈의 자랑이며 Bio senior group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병원과 양로 시설로 입원하시기 전에 사모님은 한번도 빠지심 없이 Bio 모임에 오셨고 그 세월이 아름다웠던 추억이라고 말씀하시며 회원님들을 고맙게 생각하시어 양로 시설에 계시면서 LWV 자택에서 2019년 Bio 그룹을 계속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임종을 앞 둔 일주일 전, 한 선생님의 모습은 천진한 아이 같았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없으신 사모님은 "나는 선한 싸움을 이기고 이제 아버지 집에 편한히 가노라" 말씀을 하시는 듯하였기에 저와 아내는 가볍고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또 뵈워요.



이수만과 셀러스, 34년 만의 극적 만남 이야기



김일홍
문학작가/한인회장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우리 민족의 비극의 날이다. 당시 살아온 사람들은 크고 작은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1951년 1.4 후퇴 시 12살의 소년 이수만 씨가 동네 아이들과 얼떨결에 기차를 타고 피난길에 오르다 옥천에서 오줌을 싸다 기차를 놓쳐 혼자 헤매고 있을 때 종군 기자인 콘 셀러스를 만나 미군 부대에서 같이 지내다 헤어진 후 34 년만에 극적으로 만난 이야기다.

소설가 "달라스" 작가 콘 셀러스와 뉴욕주의 이수만 씨 이 두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34년 만에 극적인 만남은 한편의 휴먼 드라마이다.


이수만 씨

이수만 씨(1939년생)와 부인 이경재 씨는 Laguna Woods Bio Group 회원이다.

당시 1.4 후퇴 시 이수만 어린이는 서울 용산 동네에서 살았다. 동네 선배들과 어울리다 용산역으로 나가 피난행 화물 기차를 타게 되었다. 얼떨결에 화물기차에 탄 이수만 어린이는 어찌할 수 없이 선배들과 어울려 기차를 탔다. 소년을 태운 화물차는 남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화물차가 옥천에 잠시 섰다.

이수만 어린이는 오줌이 마려웠다. 높은 화물차에서 뛰어 내렸다. 철로가 외진 곳에서 오줌을 보았다. 그 사이 화물 열차가 천천히 떠나기 시작했다. 이수만 소년은 달려가 기차를 타려고 했으나 키가 작아 화물차에 오를 수가 없었다.

선배들은 저희들끼리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기차가 속도를 내며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갑자기 미아가 되어 버린 이수만 소년은 울먹이며 서 있었다.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미 2사단 38연대는 남으로 후퇴를 하다가 잠시 옥천에 머물게 되었다. 그 때 울먹이고 있는 소년 앞에 미군이 나타났다. 군부대와 동행하는 종군 기자 콘 셀러스였다.

이들 두 사람, 이수만 어린이와 콘 셀러스의 만남은 운명의 만남이었다.

" 너 왜 여기서 울고 있니?" 콘 셀러스 기자가 물었다.

그러나 이수만 소년은 미국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냥 울고만 있었다. 딱하게 본 콘 셀라스는 기자는 이수만 소년을 부대로

데리고 왔다. 먹을 것을 주고 자기가 거처하는 천막에 침대를 놓고 같이 잠을 잤다.

그때부터 이수만 소년과 콘 셀라스 기자와 동고동락했다.

부대는 대구로 철수했다. 이수만 소년도 철수하는 부대를 따라 대구로 왔다. 그러나 가족을 찾을 수 없었다. 콘 셀라스는 의지할 곳 없는 이수만 소년을 자식처럼 돌보기로 결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부자의 인연이 맺어지고 함께 지내게 되었다.

부대가 북진을 하게 되었을 때도 같이 부대를 따라 북진했다. 부대가 서울에 거칠때 이수만 소년은 콘 셀라스 기자에게 서울 흑석동 자기가 살던 옛집을 가보자고 했다. 혹시나 친척이 있을 수도 있겠지 하는 기대감에 찾아갔으나 폐허로 변해 있고 인적을 찾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이수만 소년은 부대를 따라 평양으로 올라갔다.

이수만과 콘 셀라스는 1952년 말까지 함께 지냈다. 전쟁의 막바지에서 휴전이 되어가고 있었다. 콘 셀라스는 1년 6개월의 종군 기자 임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콘 셀라스는 이수만 소년이 걱정이 되었다. 같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생각했다. 이수만 소년을 양자로 입양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 미국 법은 동양인 양자 입양을 금지했던 시기라 어려웠다. 결국 콘 셀라스와 이수만은 홍천에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콘 셀러스는 미국으로 떠났다.

1953년 7월 27일 한국 전쟁은 휴전으로 임시나마 전쟁은 끝났다.

소년 이수만은 콘 셀러스와 이별 후 방황하기 시작했다. 미군 부대에서 나오게 되었고 옛집을 찾아갔으나 집은 폐허가 되었고 가족

은 찾을 수가 없었다. 늦게 들려온 소식은 이수만 아버지는 북으로 납북되어 갔다고 했다.

한편 미국으로 들어간 콘 셀라스는 오매불망 이수만 소년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1955년 다시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에서 콘 셀라스는 이수만 소년을 찾으려고 각방으로 노력했다. 미군의 "성조지" 신문에 이수만 소년을 찾는 기사를 냈으나 허사였다.

1957년 콘 셀라스는 미군에서 완전 전역을 하고 기자가 아닌 소설가가 되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오레곤 일간지에 이수만 소년을 찾는 기사를 냈지만 허사였다. 마치 태평양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격이었다.

그러던 중 1986년 10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 방문 기회를 얻어 콘 셀러스는 2주간 머물면서 34년 전 헤어진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수만 소년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식은 없었다. 어느 날 이수만이란 이름을 가진 자를 찾았다.

그 사람은 소방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2년 전에 사망했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이수만 찾기를 포기했다.

콘 셀라씨는 이수만 씨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콘 셀라스는 절망을 안고 태극기를 사들고 미국으로 돌아와 태극기를 서재에 걸어두고 소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달랬다.

한편 소년 이수만은 어떻게 되었나. 죽은 소방소 직원이 이수만인가. 정말 죽었나. 그렇지 않았다. 이름만 같았지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다 이수만 가족 중 일찍 미국으로 이민을 온 여동생이 있었다. 여동생의 초청으로 1980년 이수만 가족은 뉴욕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 미국에서 삶은 고되었다. 온갖 고생을 이겨내고 "헌즈포인트" 시장에서 청과도매업에 종사하면서 바쁘게 살았다. 이민 생활이 고역이었다. 그러나 옛날 6.25보다는 한결 편했다.

이렇게 살다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왔다.

ABC 방송 동경지국에 근무하는 친형 이요섭 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수만아 ! 어느 미국인이 너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수만 씨는 바쁜 생활에 형의 말을 그냥 지나쳤다. 그러다 얼마 후 또 한 통의 전화가 온다.

남미의 쌘토 도망고에 사는 친구로부터의 전화였다.

"수만아 ! 내가 서울에 갔다가 뉴스를 들었는데 콘 셀레스란 사람이 너를 찾는다더라."라는 전화였다.

이수만은 정신이 몽롱했다. 34년 전의 기억이 새롭게 가물거리며 떠올랐다.

1951년 1.4 후퇴 당시 옥천역에서 만난 콘 셀라스의 얼굴이 스치며 나타났다. 눈물이 핑 돌았다. 콘 셀라스의 연락처를 받았다.

이수만 씨는 만사 제쳐 놓고 그날로 오래곤의 콘 셀러스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울려 퍼질 때 이수만 씨는 가슴의 울림이 용솟음쳤다. 멀리 전화기 속에 목소리가 울려 나왔다.

"여보세요 !" 아마도 누구인가 전화이겠지 하는 목소리였다.

"나요. 이수만입니다."

34년 전 12살의 이수만 소년은 말을 못 했다. 울기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서툴지만, 영어를 할 수 있다.

"누구?" 콘 셀라스는 느낌이 오지 않나 보다.

"아버지, 나 이수만이에요." 전화기가 조용했다.

"Father, My name is Soo Man Lee."

"Oh! My boy!" 갑자기 콘 셀라스 씨의 음성이 튀어나왔다.

이들은 말문이 막혔다. 서로 살아 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놀라움에 말문이 막혔다.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수만 씨 부부는 오래곤의 콘 셀라스 아버지 집을 찾았다.

1986년 12월 13일 저녁 어둠이 깔린 올레곤의 메트포트 공항 대합실. 백발의 미국인과 40대의 흑발의 한국인 두 사람은 얼싸안고 엉엉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의 감동적인 만남, 34년의 긴 세월을 이수만씨는 한시도 콘 셀라스를 잊은 적이 없다.

콘 셀라스씨도 이수만을 잊은 적이 없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다. 앞으로 이들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이들은 포옹을 풀지 않고 있었다.

콘 셀라스 씨는 기자에서 소설가로 유명한 "달라스"라는 소설을 쓴 작가로 변신했다.

이수만 씨는 서울의 직장에서 아름다운 부인 이경제 여사를 만나 결혼을 했다. 행복한 생활을 이어오다 아들만 3형제 형준, 형윤, 형일을 두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 은퇴촌에서 여생을 즐기고 있다.

사색의 창가에서



행복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미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의 현주소는 가슴입니다
가난해도 행복
비가 와도 행복
바람이 불어도 행복
마음 먹기에 달렸습니다
행복이 선택이라는 건
내 마음이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지금



이영범 | 심리학 박사



저명한 외과 의사 스펜서 존슨(Spencer Johnson)이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Present is present. Precious Present"

지금은 선물이다. 지금이 소중하다.

소년이 행복한 노인에게서 귀중한 현재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현재(Present)는 선물(Gift)이다. 그 선물은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Present를 받은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다.

소년은 소중한 선물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난다. 깊은 산을 오르고 넓은 바다를 찾았다. 책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그러나 노인만큼 행복한 사람을 못 만났다. 그는 노인이 그리워 다시 찾았으나 그는 늙어서 말할 기력도 없는 처지였다. 소년은 슬프고 외로웠지만, 노인이 해준 말을 상기해야만 했다.

"너만이 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너에게 행복을 주는 그 선물은 네가 찾을 수 있다."

인간은 지금 어디에 있건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건 그 현재(Present)를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나 소년은 귀한 그 선물(Precious present)은 아무리 둘러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알았다. 귀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선물(Present)은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지금(Present)이다. 그는 행복을 찾았다. 정말 기뻤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 내가 왜 그것을 모르고 많은 행복한 시간을 놓쳤나 하고 후회와 죄책감을 느끼고 과거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렇게 과거에 몰두하는 동안 행복은 사라졌고 그는 다시 슬퍼졌다. 그는 과거라는 함정에 빠져 가기 때문이었다.

그가 요행스럽게도 현재로 되돌아오게 되자 그는 다시 행복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앞으로는 지금의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생각에 붙잡혀지기도 한다. 그는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함정에 끌려 가는 것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현재라는 선물을 찾아간다.

마침내 소년은 "선물은 자기 안에 자원을 통해서 자기가 얻게 된다"는 노인의 말을 확신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소중한 지금을 소년 때 선물로 받고 어떤 이는 중년이나 노년이 되어서 받고 또 어떤 이는 늙어서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도 있다. 인간은 소중한 지금이라는 선물을 언제나 원할 때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이라는 선물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햇빛과도 같이 누구에게나 약속된 선물이다. 지금이라는 행복한 선물은 지금을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는 특권이다.

고국 방문에서 배운 것



이강민
병리학 전문의

12년만에 고국을 방문하고 느낀 바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년 전에 떠난 고향의 모습은 다 없어지고 인요한 의사가 주장하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는 고향 순천의 유일한 Landmark이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삼산은 높은 건물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벼 농사가 끝난 농촌 사이에는 하늘에 높이 서 있는 아파트 건물과 사방으로 달리는 포장된 Highway와 속 시원하게 뚫려 있는 자동차와 기차 Tunnel들이 수없이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동안 한국인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통감했습니다. 부산과 거제도를 통과하는 바다 밑에 해저 '침매 tunnel (3.7 Km)'과 다리 '거가 대교 (4.5 Km)'는 장관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과 문화 발전은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장족의 발전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민도가 높아서 날려 다니는 쓰레기가 없는 도로와 화장실은 사진을 찍고 싶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길가에 자건거와 발로 밀고 타는 스쿠터 보드들을 그대로 놓아 두어도 도난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할 염려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비롯해서 주로 동해안을 돌면서 울산과 포항의 공업 발전과 새마을 운동의 모습을 보고 다시금 박 대통령께 존경을 드렸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오르고 가는 곳마다 자기 고을의 특성을 아름답게 나타내어 많은 외국 광관객들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에서 강원도 강능에 있는 이율곡선생의 오죽헌과 낙동강을 끼고 있는 안동에 이퇴계 도산서원과 하회마을의 방문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분들이 가르쳐 주신 윤리 도덕과 백성들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말씀들을 보고 한국의 '얼'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섭섭하게 들리는 소리는 한국 정치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미국 의사들은 매년 새로운 지식을 얻고 면허를 갱신하고 종교인들은 수양관에 가서 수양하듯이 모든 정치인들도 이율곡 선생과 이퇴계 선생의 서원에 가서 공부하고 수양해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또 한국의 젊은이들에게도 한국의 고유하고 고상한 '홍익정신'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크게 도우라'라느 뜻으로 인간을 모든 가치에 앞세우는 사상이다. 이조시대 성리학의 기초를 세운 분은 퇴계(退溪) 이황이시고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율곡(栗谷) 이이이십니다. 율곡은 관직에 적극 나선 반면 퇴계는 고위직도 사양하는 분으로 본인의 학문에 열중하는 처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35세란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학문과 사상 면에서 소통과 공감을 같이 하며 끝까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화폐 돈에 대해 한국의 돈 액수가 미국 달라 1,300 대 1로 혼돈이 와서 공(0) 세개를 떼고 계산하면서 한 가지 무식함을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 지폐에 실린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래 사진같이 5만원 지폐에 신사임당(율곡 선생의 어머니), 5,000원 지폐권에 이율곡, 1,000원 지폐에 이퇴계 선생의 인물이 새겨 있습니다. 만원 지폐 인물은 세종 대왕입니다.

5만원 지폐 뒷 그림은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이 직접 그린 초중도입니다. 천원권에 들어간 그림은 퇴계 선생의 세 칸짜리 서원을 그린 그림이고 5,000원 뒤 그림은 율곡 선생 어머님이 그린 "들쥐와 수박"입니다.





나이 타령



류재풍 | 교수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기는 어렵다. 늙음이란 젊음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과정이다. 젊었을 때의 의욕, 정력, 용기, 사랑, 꿈, 뚝심들이, 늦가을에 말라 떨어져 가는 나무 잎사귀같이 시들어 감을 즐겁게 받아 들이라 하는 것에는 다소의 억지가 있다. 즐겁게 환영하기는 힘든다. 더구나 늙음이란 모두가 두려워 하고 기피하고 싶은 죽음이 점점 더 가깝게 다가오는 시간이다. 적막과 허무의 으시시한 느낌이 피부를 지나가는 과정이다. 아무리 싫거나 힘들어도, 죽기보다는 사는 것이 낫다는 것이 우리 인간이전의 생물적 반응이다.

그리하여,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되도록 늦게 찾아 주었으면 하는 것이 늙음일 것이다. 피하고 늦추어도 찾아오는 늙음 앞에서도, 우리는 보통 그것을 외면, 부정, 반항하거나 체념하고자 한다. 그러나, 늙어 간다는 것이 쓸쓸하고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이, 보편적은 아니겠으나, 내 자신의 견해이다. 죽음도 그렇게 무서워할 것은 없다는 소견도 내 마음 속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만 70을 삼년쯤 앞둔 나는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뜻밖의 공경심(恭敬心)과 새로운 호기심(好奇心)을 느낀다. 나는 늙어가는 나를 젊었을 때의 나보다 더 좋아한다. 조금 더 마음에 든다.

예를 들자면, 내 몸과 마음을 지난 어떤 때보다 잘 이해하고 그 변화에 민감해졌다. 오랫동안 아파온 내 무릎에 주의를 하다보니, 몸의 관절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무엇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는지를 느낄수 있을 듯하고, 아픈 데를 우는 아이 달래듯 달래 보기도 한다. 내 몸에 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 건장한듯 우쭐댔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정중히 거절하겠다.

젊은 시절에 나는 대수롭지 않은 일에 속상해하고, 어리석게 화를 내곤 했다. 요즈음은 신통할만큼 내 마음이 평온하고 내 판단이 공정하다. 공연히 속끓이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겸손히 사양하겠다.

오랫동안 나는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막론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을 했다. 격화된 감정을 과장까지 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끼친 적도 했다. 또 다시 높은 목소리로 함부로 말하고, 나중에 후회, 자책, 또 이를 반복했던 젊은 시절로 돌아가라면 단호하게 반대하겠다. 도망이라도 갈 듯하다.

너무 늦게 철이 들어서인지, 나는 설사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해도 철닥선이 없었던 시절로 돌아 가라는 것 같아서 겁이 난다. 내가 다시 젊어질 수 없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젊었던 때의 내 오만함으로 보면 세상에 둘째를 마다할 정도여서, 대학시절의 방벽에 붙여

논 좌우명(左右銘) 하나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해야한다. 고로 할 수 있다 (Nietzsche)" 자신이 무슨 Superman이라도 되는듯, 모순 투성이의 나의 젊은 시절이었던 것이다. 그때는 자랑스럽게 붙여 놓았던 한 옛날의 모토(Motto)가 지금 돌이켜 보면 조금 부끄럽다.

나이가 드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젊음을 떠나가기 때문만은 아니다. 처음에 언급한 바, 그만큼 죽음과 병마(病魔)를 당면할 날이 벌써 왔거나 앞으로 다가 올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젊음이란 좋은 것을 떠나면서 죽음이란 무서운 것이 다가오니, 늙어감이 싫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죽음이 다가 온다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하여, 특히 자기 스스로에 보다 정직하고 충실, 겸손해 진다고 보면, 오해나 과장일까?

경험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마지막 숨을 마시는 순간을 상상해 볼수는 있다. 그때마저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잘 보이려 신경을 쓰고 싶을까? 그때만이라도, 나는 "with malice toward none, with charity for all … (Lincoln)", 평화스럽게 가고 싶을 듯하다. 더 이상 후회도, 반성도, 기억도 없게 될 그 순간에 마저, 거짓으로 자신를 속이며 죽어 가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 나는 그 누구도 이 비극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같은 비극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은 원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때문일 것이다. 이 비극을 피하고자, 마지막 숨을 쉬며 세상을 하직할 때를

미리 예상하고 살아봄이 어떨까? 이 비극은 틀림없이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의 과제이다.

나이가 들면서, 죽음에 가까워 지면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 또 그 주위의 상황에 좀 더 충실해지며, 대체로 만사에 더 깊은 관찰과 인식(認識)을 갖게 되고, 변화를 감지, 준비하는 능력도 증대한다는 것이 나의 경험이다.

더구나 젊은이의 현명(賢明, wisdom)함은 나이 들어 생기는 현명함과는 다르다. 듣고, 읽고, 생각해서 알게된 지혜(문혜/ 聞慧)와 사혜(思慧)는 언제나 노력하면 얻겠지만, 경험과 수행을 겪어 깨닫는 지혜(수혜/ 修慧)는 나이가 들지 않으면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체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혜는 독서를 하거나, 강의를 듣거나, 생각하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지나며 깊이 느껴보고, 여러 번 돌이켜 되새겨 볼 때 소리없이 나타나는 마음의 등불 같은 것이다. 그같이 한 번 얻게 된 수혜(修慧)는 다른 지혜에 비해 뿌리가 단단하다. 누가 뭐란다고 흔들리고, 어떤 일이 있다고 뒤집혀지는 불안스런 지식이 아니다. 늙어서, 병들어서도, 죽을 때에도 힘이 되주는, 가장 실용성(實用性)이 있는, 믿어도 되는 지혜이다. 이같은 지혜가 날로 더해가는 과정, 다른 말로 하면 늙어가는 과정을 싫어하기만 한다면, 그 또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죽음을 실제로 느낄 때 사람은 보다 인본적(人本的)으로 사고나 태도나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 나의 관찰이다. 늙어가며 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느낀

다. 어떤 사람을 학생으로, 할아버지로, 대통령으로, 여자 남자로, 백인 흑인으로, 식당주인으로, 또는 내 아들로 보기보다는, 인생이라는 여로(旅路)에서 만난 소중한 동반 여행자로 점점 더 보게 된다는 것이다.

과학이 좇는 자연의 법측이나, 예술이 찾는 아름다움이나, 종교가 준다는 영생이나, 이 세상에 현존하는 한 인간 한 인간의 삶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내가 나이 들면서 죽음을 바라보며 가지게 된 한 소견(所見)이다.

그렇다고 해서, 늙어가는 것이 즐겁고 좋다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젊음을 늙음보다, 삶을 죽음보다 택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또 달리보면 다행스러운지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이같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늙고 죽는 것은, 우리가 태여날 때부터 주어진 무엇보다도 확실한 필연(必然)이다. 늙기가 싫다거나,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이 싫다거나, 물이 아래서 위로 흐르기를 바라는 것처럼, 허망하고도 어리석은, 무엇보다 부질없는 짓이다. 제한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늙어감을 비실비실 피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이래도 저래도 올 죽음을 소름치며 무서워 하기보다는 의연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자유나 권리나 능력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틀림없이 다가올 죽음을 앞에 두고도, 우리 삶의 가치를 찾아 보려는 진지한 노력이, 그것이 누구의 노력이던 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내가 늙어감이 섭섭하지도, 쓸쓸하지도 않다. 일찍 죽지 않

으면, 누구나 늙는다. 늙은 사람은 덜 늙은 사람보다 대체로 먼저 세상을 떠난다. 계절이 바뀌 듯, 우리의 인생에도 당연히 지나갈 여정(旅程)이 있다. 자연의 계절들이 그러하듯이, 한 삶의 여로(旅路)에도 때마다 삶과 죽음을 조화해 주는 운치를 느낄 수가 있다. 어찌하여 그때 그때를 만끽하지 않고,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며 한숨 쉬는 나날을 보낸단 말인가?

젊은이들이여! 젊음을 자랑하지 말고, 늙어갈 것임을 무서워 말자! 다만 매순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스스로를 안내, 인도해 보자! 설사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온다해도, 오늘 아침 우리집 앞뜰에 능금나무를 심자(Voltaire). (October, 2008)



도마뱀 이야기



김일홍
문학작가/한인회장

엊그제 거라지(garage) 청소하는데, 구석 모퉁이에서 보자기가 꿈틀거린다. 보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하고 들춰보니 새끼 다람쥐가 꼬무락거리고 있었다. 전에도 거라지에 뱀이 들어와 똬리를 틀고 나를 꼬나본 적이 있다. 나는 질겁해 작대기로 뱀을 들어 숲에 내동댕이 쳤었다. 그런데 어떻게 다람쥐가 거라지에 들어왔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다람쥐는 민첩한 동물이다. 긴 꼬리를 세우고 나무를 오르내리는 행동을 보면 가관이다. 그런데 이 새끼 다람쥐는 별로 움직임이 없다. 어미가 데려다 놓았는지? 그간 굶었는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왜 이 다람쥐는 혼자일까? 어미도 없고 친구도 없는가? 가족이 있는 숲속에 넣어줄까 생각하다 먹이를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해서 방생하기로 했다. 상자에 넣어 방으로 들고 와 바나나, 사과, 고구마, 우유를 상자 안에 넣어주었다.

아침에 일어나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바나나와 사과를 좀 먹었다. 그래도 기운이 없어 움직임이 둔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먹을 것을 주는 것밖에 없다. 또 하루가 지나고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 다

람쥐는 사체로 변해 있었다. 죽었다. 죽음은 슬픈 것이다. 인간이나 미물인 다람쥐도 죽음의 슬픔은 같은 맥락이리라.

오래전의 일이 떠 올랐다. 도마뱀으로 일본 열도가 들썩이던 일이 있었다. 1964년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다. 올림픽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 지은 지 3년 된 건물을 헐게 되었다.

지붕을 벗기던 인부들이 묘한 광경을 보았다. 뒷다리에 못이 박힌 채 벽에서 꼼짝 못 하고 있는 도마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집주인이 인부들에게 도마뱀의 뒷다리에 언제 못이 박혔는지 물었다. 인부들은 3년 전에 박힌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 도마뱀은 3년 동안 못에 박힌 채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는 것인가? 주위의 사람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신기한 사실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도마뱀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건은 곧 회자하여 일본 NHK 방송국에 알려져 도마뱀의 3년 살아온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다. 불을 환히 밝히고 사람들은 멀리했다. 도마뱀들 간의 역사를 관찰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간을 기다렸다.

얼마 후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나타났다. 입에 물고 온 곤충을 대못에 박힌 도마뱀 입에 넣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 광경을 보던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러다 얼마 후 또 한 마리의 도마뱀이 나왔다. 입에 물을 물고 와서 대못에 박힌 친구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아닌가! 생명수를 입에 넣어 주는 것이다. 눈물

겨운 장면이다. 얼마 후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타났다. 도마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대못에 박힌 도마뱀 등에 올라타고 대못에 입은 상처 자리에 침을 바르고 있었다. 썩어 들어가는 대못 자리에 침을 약으로 바르는 것이다. 얼마나 현명한 도마뱀인가!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다. 6 마리의 도마뱀이 번갈아 가며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데 이들은 누구일까? 엄마일까, 형제일까, 친구일까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랑과 믿음 봉사로 3년간 꾸준히 자식, 형제, 친구를 위해 이들은 봉사를 해 왔다. 이들의 힘으론 도저히 대못을 뺄 수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반복의 작업을 해 왔다. 결국 대못이 박힌 도마뱀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 사람이 대못을 뽑았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신이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으리라. 3년 만에 도마뱀은 무거운 멍에를 벗었다. 그리고 대못의 주인공과 동료 도마뱀 6마리는 빠른 걸음으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마도 도마뱀은 이들이 해 온 사랑과 믿음 봉사로 행복한 새로운 삶을 살았으리라.



"온 세상이 나를 등지고 떠날 때 나를 찾아 줄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있는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나는 생각해 본다.

이웃과의 소통



김종갑 | 사업가

나는 2022년 7월 46년 미국 이민 생활의 터전이었던 시카고 근교 일리노이 생활을 접고 이곳 Village로 이주하였다. 이제 이웃도 생겼고 산책길로 택한 단지 안의 길을 걸을 때 자주 만나는 미국인 동구, 북구 여러 곳에서 이주해 온 여러 인종의 이웃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기쁨을 갖는 것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면서 느끼는 새롭게 발견하는 재미 중 하나이다.

노인의 생리라고 해야 할지, 경향이라고 할지 몇 마디 나눈 후 대화가 풀리기 시작하면, 자식 이야기에서 건강 문제까지 화제는 종횡으로 달린다.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고 나면 어떤 분은 장편 설을 풀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한국 사람 같으면 방금 만난 초면의 사람에게 이런 사적인 일을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쪽에서 오히려 당황하게 될 이야기를 듣게 된다.

솔직하다고 해야 할지? 그 무슨 대단히 비밀스러운 화두냐고 하는 투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계속해 나간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화두 전개다.

그런 면에서 일반적으로 말을 부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이 초면에 감추고 싶을 만한 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듯 여기게 한다. 개방적인 사고와 폐쇄적 사고의 차이인가. 솔직한 성격의 발로인가? 새삼 이런 대화를 하게 될 때마다 느끼게 되는 생각이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추려 하는 일이 많고 사실과 다르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솔직하면 약점 잡히고 사실대로 다 얘기해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불이익이 되어 자승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미리 걱정하는 결과인가.

아무튼 이웃과 소통하며 살려면 자신의 아픈 부분도 나누고 나면 자연히 신뢰가 쌓이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친구가 되지 않을까?

평범한 대화가 깊어지면 공감대를 이루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이 시작된다. 나의 가장 부끄럽고 아픈 부분을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도 마음의 문을 연다는 소통의 진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한다.

골병의 오기



고영주
교수/문협회장

그해 겨울은 몹시 추웠다.

우리는 식품이 보관된 창고 쌀가마니 위에서 모포를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잤다. 나보다 고참인 서울 출신 이 상병은 말수가 적고 얌전해서 나와 금방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중대원 식품을 책임지고 있었다.

나는 1년 단기 복무하는 교보 군번 001834x이었다.

그래서 군 생활을 오래 한 선임하사들은 빵빵 군번을 아주 싫어했다.

하루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코끝에 심한 통증이 찡하게 울렸다. 덮어쓴 모포 지퍼를 열어젖히고 벌떡 일어났다.

눈앞에는 주정꾼, 악명 높은 김 상병이 한쪽 손에 술병을 든 채 나를 꼬나보고 있었다.

"아, 골병, 골병(고 일병), 난 몰랐어, 누군지 몰랐다고"

횡설수설하면서 나갔다.

김 상병은 고아 출신이라는 말도 있고, 아무 연고도 없는 망나니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는 제대해도 돌아갈 집이 없다고 했다. 장기

군 복무자로 자원한 상태이기에 부대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는 무법자였다. 성격이 과격하고 표독스러웠다. 하급자 아무에게나 주먹질을 잘해서 그가 나타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모두 벌벌 떨고 긴장부터 했다.

나는 우리 일종계 이 상병에게 그의 행동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었다.

"김 상병이 왜 나에게 주먹질을 했습니까?"

김 상병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게 누구냐고 물었단다.

고 일병이 자고 있다고 답하자, 내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술을 마셨다지만, 누군지 모르고 쳤다고 능청을 떨던 그의 변명이 너무 간악스러웠다.

나는 일전을 각오하고 군화 끈을 매고 있었다. 이 상병이 내 손을 덥석 붙잡았다.

"미친개를 건들지 말라."고 부득불 만류했다. 나는 손을 뿌리치고 2종계 창고로 갔다. 그도 피복 야전삽, 곡괭이 등을 취급하는 본부 요원의 한 사람이었다.

창고 앞으로 달려간 나에게 보초가 "암호!" 하고 소리쳤다. '한강'이라는 암호를 대기도 전에 바로 나를 알아보았는지 출입을 제지하지는 아니했다.

그때 창고 안에서 김 상병은 상의를 반쯤 벗고 있었다. 뜻하지 않은 불청객을 보자 아주 못마땅한 얼굴로 나를 독기 서린 눈으로 쪼아보고 있었다.

"김 상병, 똑바로 경고한다. 난 줄 모르고 쳤다고 했지? 왜 거짓말을 해? 비겁하게, 도대체, 왜 친 거야? 비록 계급은 일등병이지만 사

람조차 일등병이 아니냐. 김 상병! 똑바로 살앗!"

나는 홧김에 나도 모르게 반말을 하고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놈에게 계속 샌드백이 될 게 뻔했다. 그리고 그대로 돌아 설려는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곡괭이 자루가 내 얼굴 옆을 스치며 벽을 쿵 때렸다. 그는 어느새 몸을 날려 나에게 돌진하고 있었다.

나는 달려드는 그의 목을 휘어 감았다. 밀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나의 허리를 감아쥐고 놓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것이다.

"보초! 간첩 간첩—"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였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보초는 어리둥절 속수무책이었다.

나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힘이 장사다. 그의 얼굴을 마구 할퀴었다. 힘껏 밀어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구렁이처럼 내 허리를 죽기 살기로 잡고 늘어졌다. 그러면서 "간첩! 간첩!"을 계속 외쳐댔다.

나는 몸무게로 짓누르고 두 발을 뻗었다. 자세를 낮추고 그의 머리를 사정없이 시멘트 바닥에 서너 번 쥐어박았다. 그제야 손이 풀렸다.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막사 뒤편에 숨어서 다음에 전개될 그의 동정을 살폈다.

달빛은 요요하고 언덕의 그림자는 시커멓게 짐승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대검을 들고 밖으로 나오더니 나의 보급 창고로 가고 있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는 그를 미행해야만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 적의 위치를 놓치면 나는 아주 위험하다.

그는 창고 문을 부수고, 취사장을 샅샅이 뒤지다가 나의 소속 1소

대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취사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검은 그림자를 열심히 따라 밟았다.

한참 후에 취사반장 윤 하사가 밖으로 나오더니 두리번거렸다. 나는 취사반장을 부를 수도 없어서 돌을 취사반장 앞으로 굴렸다. 그리고 손짓했다. 취사반장과 보급계는 뗄 수 없는 단짝이다. 취사반장은 나에게 그가 자고 있으니 빨리 숨으라고 귀띔을 해주었다. 그리고 "넌 독종 미친개를 잘못 건들었다."고 나에게 겁을 주었다.

나는 오히려 태연했다. 강자에게는 강해야 한다고 믿었다.

저놈에게 이유 없이 얻어맞는 밥이 되기는 죽어도 싫었다.

나는 취사장 안으로 들어가 그의 자는 모습을 보았다. 한 손에는 대검, 다른 손에는 큰 돌멩이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다.

나는 대검과 돌멩이를 뺏어 아궁이에 처넣고 큰 가마솥 두 개를 사이에 두고 옷을 입은 채 그대로 누웠다. 등이 온돌방처럼 따뜻하게 냉기를 녹여주었다. 내가 밀리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아침에 그가 일어나 그의 옆에 누워 있는 나를 봐주기를 원했다. 실제로 그날 나는 그의 동정을 살피느라 그쪽을 향해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그래도 잠자는 척 그가 옆에 있는 나를 확인해 주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늦은 아침이 될 때까지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일어나 임무를 시작해야 했다.

한참 후 보급창고에 김 상병이 나타났다.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핏자국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 있었다. 그리고 불

쌍한 모습으로 '골병,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추궁했다. 그리고 나를 상관 폭행죄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엄중하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예상했던 일이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정색을 하고 그에게 대꾸했다.

"불법 영내 음주 죄, 사병 무단 구타 죄, 부대 기물 파손죄, 대검으로 살인 위협 죄 나는 한 가지인데 김 상병은 네 가지입니다. 한번 해 봅시다."

그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그냥 나가 버렸다.

김 상병에게는 큰 약점이 하나 있다. 군 복무 기간 중 사고를 치면 장기 군 복무 지원 심사에서 탈락한다.

그 뒤 김 상병은 나에 대해서 한 마리 순한 양이 되어 있었다.

소문은 빨랐다. 약자들은 나에게 몰려와서 소곤거렸다. 다른 사병들도 암암리에 나에게 박수를 보내주며 기뻐했다.

나는 칭찬하는 소리는 조금도 반갑지도 않았다.

군 생활을 돌아보면 나라를 위해 몸 바치겠다고 입대한 사병들을 상습적으로 이유 없이 구타하는 김 상병을 위시해서 소대 선임하사들, 군수품을 빼돌리는 장교들, 연병장에서 부정선거 예행 연습하는 병사들, 나는 3.15 부정 선거에 반발하여 부대통령 자유당 후보 이기붕 대신 장면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투표지를 보여주지 않고 투표함에 넣으려 하자 참관인이 내 손목을 잡았다. 부대에서 두 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그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군이 썩었다고 개탄

하며 하늘을 쳐다본다.

만약 내가 상관 폭행죄로 군법회의에 부쳐졌다면 군기를 내세워 나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영창 생활을 했을 거고, 김 상병은 진급이나 장기 복무 신청이 누락되었을 것이다. 또한, 바로 4.19 학생 의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정 선거를 거부했다고 정보 2과에 불려가 더 큰 핍박을 받았을지 모른다. 한마디로 바보짓이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선택에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

군 생활하며 답답할 때 나는 늘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이 생겼다. 저 파란 하늘, 두둥실 떠가는 흰 구름 속을 거닐고 날면, 어느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 길 멈추지 말라.
인생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고비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사랑은 메아리 되어

아름다운 동행



오창현 | 의사

저는 오랜 세월 나를 찾아오는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던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섬기던 장로였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나의 그림자처럼 동행해왔던 사랑하는 나의 반쪽 육신에 얄미운 병마가 비집고 들어설 줄, 내 반쪽의 마음의 외로움을 짐짓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의사로서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직분인 장로로서 달려갈 길을 내려놓고 비로소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 주어야 할 오직 한 사람, 나의 반쪽 곁으로 온전히 돌아 왔습니다.

이제 내 손에 왕진 가방 대신 풀잎처럼 연약해진 아내의 팔에서 받아쥔 작은 성경책과 소지품이 들어있는 아내의 손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오늘 지팡이를 의지한 아내와 마주보는 나의 미소, 아니 우리의 환한 웃음 위로 5월의 햇살이 눈부시기만 합니다.

이제껏 섬기던 아카데미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카데미의 모든 학생에게 건강과 행복이 5월의 햇살처럼 부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를 부르는 애칭



김귀남 | Banker

남편은 89세 생일의 기쁨을 누린 후 우리 결혼 60주 년을 열흘 앞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다.

떠난 그 자리가 집안의 공간을 채우듯이 평소에 나를 불렀던 호칭이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에 섞여서 내 귀에 닿아 지난날을 주마등처럼 되돌아보게 한다.

결혼 초기에는 부모님을 통하여 보고 자란 대로 '여보, 당신'이란 호칭이 왠지 어색하게 들렸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여보 당신'에 서로 익숙해졌고 품위 있는 호칭이라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은퇴 생활에 입문하고 보니 남편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잔심부름도 늘어났다. 그래서 '여보' 하고 나를 부르면 때로는 바쁜 척도 했고 또는 못 들은 척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가끔 나를 평소의 '여보' 대신 뉘앙스가 다른 '어-이'로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에는 심심해서 장난기 섞인

말로 가볍게 넘겼다.

그런데 얼마 후에야 '어-이'는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공유하자는 뜻임을 깨달았다.



그것은 평범한 일상을 깨고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만 느끼며 소통하는 것이었다.

뒤죽박죽 질서 없이 텔레비전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잡다한 언어들이 아니다.

찌푸린 하늘과 꿈을 실은 흰 구름처럼 상충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다. 전화기를 들고 벤치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나름대로 동행하는 삶에 대한 깊은 깨우침을 놓칠세라 그런 소중한 말을 공유해야 하는 속삭임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이'는 나에 대한 더불어 호칭이 다정하게 나를 부르는 애칭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어-이'에 익숙해져서 하던 일을 기꺼이 멈추고 귀를 기울이곤 했다.

여느 때와 같이 외출하고 홀로 텅 빈 방문 앞에 서면 나직하게 "어-이" 하고 부르는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것만 같다.

연꽃과 백합화를 그리며



윤경순 | 한국화가

살포시 햇살에 얼굴 내밀고 수줍은 여인네의 볼처럼 불그레한 연꽃, 가시넝쿨 속에 순백한 자태로 향기 품으며 순진한 어린애의 미소 같은 백합, 언제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다. 진흙 속에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인연설을 들어내는 진리가 숨어 있고 인고의 씨앗은 썩지 않는 불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중국 북송시대 주돈이의 애련설에 연꽃을 군자라 했다.

"맑은 물결에 씻겨도 요염하지 않으며 속이 소통하고 밖이 곧으며 덩굴지지 않고 가지가 없음이다. 향기가 멀수록 더욱더 맑으며 우뚝 깨끗이 서 있는 품은 멀리서 볼 것이요, 다붓하여 구경하지 않을 것이니, 그러므로 연은 꽃 가운데 군자라 한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숫타니파타〉

연꽃의 꽃말은 '당신은 아름답습니다'이며 의미는 청정, 신성, 순결 등을 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염려되는 것 중의 하나가 성인병인 치매이다. 혹시 치매에 걸리게 되면 생의 마지막이 비참하겠다 싶어 이것저것 치매에 관한 문헌을 읽고 있다. 그러다가 연 열매, 연근에 관한 연구 보고를 읽게 되었다. 연 열매 추출물은 항치매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백합은 기독교 문화에서는 순결을 뜻하여 성모 마리아의 순결함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하여 부활절에 애용하고 있다.

"흰 백합의 뜻은 순결과 변함없는 사랑이다."

한국화에는 먹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화법이 있으나, 이번에 내가 그린 연화와 백합화는 채색화 화법이다.







나의 짝사랑들



오영주 | Pianist

43년 동안을 샌프란시스코에서 목사 사모로 살면서 남편 덕분에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왔으나, 나 또한 짝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다. 즉 교회에서 별다른 직분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습이 보이는 신자들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한 분은 어느 날 나에게 고백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컸는데 청소뿐만이 아니라 언니들의 생리로 인한 옷까지도 싫어하지 않고 잘 빨아주고 살았다고 했다. 이분의 고운 품성이 그러고도 남았다. 나중에 그분은 나와 의기가 화합하여 노숙자 구제에 제일 앞장선 교인이 되었다.

또한 '이반'이라는 잘 생긴 흑인 노숙자는 본래는 기독교 교인이었다는데 부모님의 이혼과 청소년기 나쁜 유혹에 빠져 샌프란시스코가 동성애자가 우대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중부에서 살다가 찾아왔다고 했다.

그의 눈은 맑아 보이기까지 했다. 우리는 버거킹에서 냅킨에 그림을 그려 가면서 예수님을 재 영접시켰다. 미국 교회의 귀한 기둥 집사가 될 것이라고 기도를 많이 했던 귀한 친구였다.

또 한 분은 60대쯤의 한국 할머니인데 파킹랏 차들 사이로 들어와 잠을 잔다. 사람들의 가슴을 조이게 만드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다. 들리는 말로는 버클리 대학에 재학하는 딸도 있다는데 엄마가 미친 고로 딸이 안 만난다고 했다. 젊은 교인들에게까지 다 엄마로 부르며 붙임성이 좋아서 그중 몇 사람은 자기 집으로 데려가 씻기고 먹이고 들 했으나 어찌할 수 없는 방랑기가 있어 보였다.

내가 가슴 아픈 죄를 그 할머니에게 지은 것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서 잠잘 때였다. 교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밖은 부슬비가 내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교회를 둘러싼 처마 밑은 가는 비는 충분히 피할 수 있어 어떤 곳은 노숙자들의 단골 장소가 되었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를 한 번 더 공개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내게 꼭 물으실 것만 같아서 괴롭다. 그분은 거의 우리 교인과 같은 입장으로 주중에도 식사 시간은 주보를 보고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다. 그러나 그녀가 교회 부엌에 들어가 불을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에게 내려진 상태였다. 얼마 후 사회봉사를 잘하는 교회 여전도사님의 인도로 봉사 기관에 들어가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깨끗한 얼굴을 한 평안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이렇게 성실한 남편의 목회 활동은 못 쓰고 이런저런 이야기만 할까.

그 한 가지 이유는 어느 날 교회 앞길을 걷고 있는데 노숙인들로 인한 슬픈 마음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워 하나님께 "이 세상이 너무나 슬퍼요" 하고 하늘나라에 가야 할 것 같다고 간구한 기억이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감사와 지혜로운 삶을 찾아서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의 현상이지만,
아름다운 노인은 예술 작품이다.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테리이며,
오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현재라고 부른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Eleanor Roosevelt)

노래는 나의 인생



임건식
성악가/방송인

6.25 사변이 일어나자, 내 고향 개성에 가족을 둔 채 곧바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으로 나 홀로 떠나온 후 지금까지 돌아갈 수 없는 그리운 땅이 되고 말았다.

갖은 고난을 겪다가 수복한 서울에 와서 그렇게 갈망했던 고등학교에 편입하였다. 첫날 교실에 들어간 나에게는 보자기를 씌우고 매를 맞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는 신고식이라는 장난기 어린 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망설이던 끝에 나의 애창곡 현재명 작곡 '고향 생각'을 불렀다. 생각지도 않았던 박수가 나오며 "앙코르"까지 터져 나와 몇 곡을 더 부르게 되어 기세등등했던 반 학생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다.

그 후 연세 많으신 한근풍 음악 선생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서양 가곡을 가르쳐 주었고 때로는 독창의 기회를 주어서 나는 즐거운 음악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다.

어느 날 음악 선생님은 서울 수복 후 문교부 주최로 전국 성악 경연대회를 개최하는데 서울특별시와 도별로 예선에 선발된 학생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본선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 학교 대

표로 나를 선정했다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었다. 뜻밖에 기쁜 소식이었으나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선생님께 선뜻 대답을 못 했다.

나의 어려운 사정을 아신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생하는데…" 하시며 나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발성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다.

마음 좋으신 한근풍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힘들어도 감사하며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주말이면 선생님은 나를 직접 댁으로 불러 나보다 더 열성을 다해 가르쳐 주셨다.

서울특별시 예선은 30여 명이 참가했다. 경연대회 중에 나는 이태리 가곡 'Caro mio ben'(오- 내 사랑)을 노래하다가 현기증이 생겨 그만 가사를 잊어버렸다. 참담해진 나는 노래를 멈추고 말았다. 마음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노래를 다시 부르겠다고 정중히 요청했다. 조용한 시간이 잠시 흘렀다. 그러자 심사위원 한 분께서 허락해 주신 덕분에 다시 불렀다. 다행히 세 명을 선발하는 예선을 통과하여 본선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다.

한근풍 선생님도 크게 기뻐하시며 이태리 '벨 칸토' 발성법은 소리를 자연스럽게 힘 드리지 않고 성대를 통해 나오는 소리를 잘 공명시켜 온몸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게 멀리 있는 관중들의 마음을 울려주는 훈련이라 설명하시며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본선은 배재중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선생님께서는 경험이 많은 피아노 반주자를 모셔 와서 음정 한음 한음을 낼 때마다 세세히 지적했다. 여러 번 반복하며 철저히 훈련하여 감정이 들어 있는 소리로 듣

는 사람이 함께 느낄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데 중점을 두고 같은 곡을 수백 번 반복해서 부르도록 연습시켰다.

이번에는 같은 집에 사는 친구들도 예선에 통과한 나에게 관심과 희망을 품고 계란을 한 줄 사 와서 아침마다 한 개씩 날계란을 까서 아침에 일주일간 나만 먹게 해주고 본선을 하는 날은 두 개를 먹고 대회장으로 함께 나섰다.

경연장에는 각 도에서 선발된 출연자들과 함께 따라온 선생님 학부모 친구들로 꽉 차 있었다.

5분의 심사위원이 객석 앞에 앉았는데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반주자의 피아노 전주 소리가 흘러나오자, 내 마음을 리듬에 실어 온몸으로 열창하여 나의 감정이 그대로 청중에게 전해졌다. 노래를 마친 나는 미소를 지었고 내 마음은 편안해졌다. 그리고 우렁찬 박수갈채에 머리를 숙여 답례하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나머지 출연자들의 노래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의 발표를 모두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마침내 고 1학년, 2학년, 3학년에서 각각 일등 한 명씩 발표했다. 그러나 내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나는 함께 온 친구들과 크게 실망하여 빨리 밖으로 뛰어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심사위원이 "이번 경연대회에 월등히 잘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모든 심사위원의 전원 합의로 특등에 임건식" 하고 뜻밖에 내 이름을 발표했다.

친구들이 "와!" 환호성을 외쳤다. 우리는 열광하며 서로 껴안고 눈

물을 흘리며 고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더 실어 주었다.

문교부 장관상을 받은 나에게 어느 심사위원 한 분이 오셔서 격려를 해 주며 어느 선생님에게 배웠느냐고 물어보신다. 한근풍 선생님에게서 배웠다고 말씀드리니 그러면 그렇지 하시며 일본 동경에 있는 우에노 음악 대학 같은 동창생이라 하시며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서울 대학교 음악대학에 오면 장학금을 주겠다는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번 일로 나에게 음악을 심어주시고 돈 한 푼 내지 않고 고등학교에 편입한 나의 빚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갚아 주셨다.

나에게 드디어 행운이 왔다. 현재명 선생님이 학장으로 계신 서울대학교 음대에 입학했다. 나는 테너 김학상 선생님에게로 배당받았다. 성악 공부를 하는 동안 복사기가 없어 악보를 오선지에 펜으로 베껴야 했고 시간을 오래 소비했다. 집에 피아노가 없는 학생들은 4개밖에 없는 학교 피아노 치기에 경쟁이 심했다.

한국 라디오 방송국은 광화문 근처에 작은 건물에서 남산 기슭에 새 건물을 크게 잘 지어 이사했다. 그 후로 20명의 서울 방송 합창단이 창단되어 급여를 받는 직업 합창단이 한국 최초로 생겼다.

합창단에서 총무직을 맡은 나는 지휘자 이남수 선생님을 도와 가며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테너 파트에서 노래를 불렀다.

1957년, 음대 졸업반이 되었을 땐 6.25 남침 당시 동남아에서 유엔군으로 참전한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 정부에서 국립 교향악단, 서울 방송합창단, 조백봉 무용단, 그리고 해병대 의장대로 친선 사절단



동남아 사절단 군함 위에서

을 결성하여 수송 군함 LST를 타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홍콩, 오키나와를 한 달 동안 순회하고 돌아온 관계로 나는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졸업장만 받고 나왔다.

서울 방송국의 음악과에서 서양 음악 프로그램 KBS Symphony Hall, KBS 연주회, 희망의 하모니, 청소년 음악회를 1주일에 한 번씩 녹음해서 라디오로 내보내는 일을 맞고 있을 때다.

피아노를 치는 나의 친구 주선으로 내가 출연하는 음악회에 이화대학을 다니는 어느 여학생과 함께 갈 터이니 그리 알라고 하였다. 그때 그 여자가 바로 임정순 내 아내가 되었다.

1964년 9월, 나는 결혼한 지 5개월 후 아내를 홀로 두고 "아리랑 가무단"의 일원이 되어 미국 Colombia Artist Management의 후원으로 미국과 카나다의 52개 대도시 순회공연을 하는 장도에 오르게 되었다.

"아리랑 가무단"은 6.25 사변으로 한국을 위해 많은 미국의 젊은 병사들이 희생된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풍속과 문화를 흥미롭게 기획한 35명의 Musical 그룹이며 지휘자 김생려 씨, 한국 고유의 음악과 민요를 편곡을 한 김희조 씨의 수고로 어려운 심사를 거친 후 성사되었다.

하와이 주립대학에서 첫 연주를 잘 마친 후 LAX 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많은 관객이 모인 할리우드 볼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고, TV 에드 살라반 쇼에 출연, 앞으로 있을 연주를 미국 전역에 소개하기 위해 녹화를 했다. 이후로 우리는 두 대의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대절하여 단원들이 악기와 함께 타고 다른 한 대에는 무대 장치, 소품, 의상 등을 싣고 미국 전역의 큰 도시들과 캐나다를 순회공연하고 뉴욕에 와서 공연을 마무리하였다. 거의 3개월 동안 우리 한국을 열심히 소개했고 열광하는 관중들이 공연 끝난 후 우리에게 와서 오래된 친구들같이 서로 껴안아 주며 어려움에 처하였던 우



아리랑 가무단 미국 순회공연 때 버스에서 내려 휴식 중

리나라를 위해 희생을 당한 젊은이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성황리에 공연을 마치었다.

미국에서 좋은 평을 받은 우리는 스칸디나비아의 세 나라와 핀란드, 아이슬란드에서 들어온 공연요청을 받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네 나라에서 연주한 다음 뉴욕으로 돌아와서 아리랑 가무단은 해산하였고 나는 아내와 함께 뉴욕에서 머무르며 음악 공부를 계속하기로 했다.

55년을 뉴욕에서만 살다가 5년 전에 우리의 낙원 라구나우즈에서 살게 된 나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고 이덕희 선생님께서 많은 공을 들여서 모아 놓은 낯익은 노래들을 목요 음악반에서 150여 명과 함께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좋은 분들을 알게 되었다. 몸이 약해지는 노후를 우리 함께 도움이 되어 살아가자는 취지로 고 이덕희, 이영범, 선생님들이 몇 분이 더 모아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동안 이영범, 이은주 선생님의 꾸준한 사랑으로 KBSG가 이루어져서 좋은 분들과 함께 지금도 감사히 지나고 있다.

근래 몸이 약해지면서 나의 오른쪽 귀에서 이명이 '쟁쟁' 들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점점 커지며 내 귀 안에서 발전기 엔진 같은 소리가 '쾅쾅' 울려 나와 머릿골이 갈라져 죽을 것만 같아 911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서 아무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로 여러 전문 의사를 찾아다니고 추천하는 보청기를 써도 소용없이 청력을 거의 다 잃고 관현악 협주나 합창으로 나오는 음

악은 들어도 음정을 분간 못 하고 노래도 부르지 못하게 되는 참담한 일이 나에게 닥쳤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노래를 전같이 불러보려 했으나 스트레스만 더 쌓인다.

즐겨듣던 음악도 없이 아담한 창문을 통해 보이는 파란 하늘엔 흰 구름이 소리 없이 많은 그림을 그리며 평화로이 흘러간다.

'절대 음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내려주신 놀라운 감사의 선물이다.

돌이켜보면 노래는 나의 인생이다.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들이 마치 주마등처럼 명멸해 간다.

아침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 마음의 창문을 열고 축복 가득한 찬송을 부른다. 그리고 내 마음 고요와 평안을 찾는다.



삶



윤문길
의사/Board member

고 1-2년 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을 많이도 하고, 토론도 했으나, 아무런 결론도 나지 않았고, 당시 유행했던 실존주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의 절친인 김건중이 나에게 윤심덕의 '사의 찬미'와 SISYPHUS 신화를 전해주어, 나는 살아가는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하루하루에서, 행복, 즐거움, 슬픔, 절망 등등 모든 것이 있고, 결국은 나 자신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려는 것에 따라, 나의 일생(단 한 번뿐)이 전개되고, 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던져진 존재이지만, 사는 동안만은 어떻게 사느냐는 고민, 고민하여, 어떤 방향을 갖고, 죽는 날까지는 살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일단락 지웠다.

순애보 같은 이야기를 보면, 젊은 학생의 학비를 대기 위해, 화류계의 위안부로 있다가, 손님의 과한 요구를 참다 못해, 칼로 살인해서, 법정에 서게 된다.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방법을 쓴 전형적인 예이다. 이야기를 더

전재하면, 1) 선한 목적과 선한 방법 2) 선한 목적과 악한 방법 3) 악한 목적과 선한 방법 4) 악한 목적과 악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분명해지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전쟁 중에, 적의 비행기를 많이 격추시킨 조종사가 영웅이 된다. 좋은 목적과 악한 방법인 것 같다. 이 영웅의 조종사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구하는 최고의 결과를 내었다.

무슨 일을 도모할 때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예과 2년 때, 노벨 문학상을 탄 T.S. ELIOT의 "THE WASTE LAND"(황무지)는 많은 기독교의 암시 때문에 힘들게 읽었지만, 그 중에도, 겨울 새벽 안개가 자욱한 런던교를 아무 생각 없이 건너는 군중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생각하게 되었다.

1) 좋은 목표와 생동적인 생활

2) 좋은 목표지만 의미 없는, 마지못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삶

3)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열심히, 그 안에서 즐거움을 만들어 가는 삶

4) 앞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겹고, 하루빨리 죽고 싶은 삶.

이 중에서 나는 무슨 삶을 택해야 하는지는 분명해진다.

많은 경우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무조건 믿어야 한다고 한다. 갈릴레오와 코페니쿠스의 연구 결과가 당시의 무소불위 권력과 권위의 천주교 믿음에 맞지 않아, 당한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 책방의 초라한 직공이었던 파라데이(Faraday)가 겪은 대비(H. Davy)의

멸시와 횡포, 퍼시줄리안(P Julian)이 당한 피부 색깔의 멸시, 등등은 참으로 가슴 아프며, 이들 공헌으로 인류가 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득을 감안하면, 맹신과 이로 인한 폭행은 영원히 경계해야 하며, 종식되어야 한다. 항상 다른 의견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도와주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죽어 가죽을 남긴다'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긴 때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사람, 이런 분은 그 건물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유익한 많은 일을 창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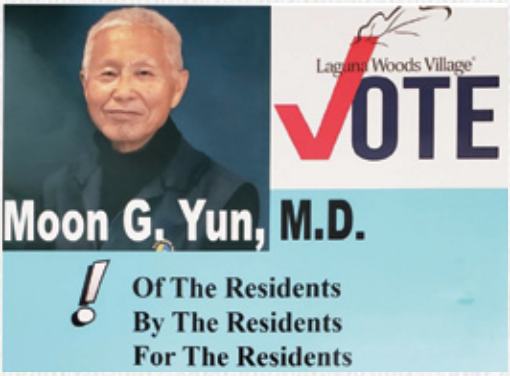
자주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지난 2000년 사이 당신 머리에 지금 떠오를 10명의 이름을 대시요?" 많은 분이 10명을 못 대고, 그 많은 이름, 건물, 동상, 길 이름 등등,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내가 조그만 도움이 되어, 더 나은 사회, 세상이 되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특히, 한인사회(심지어, 미국에 있는)에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에 상당한 의전 대접(?)을 받아야 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아직도 나는 그에 대한 적응이 부족한 것을 알고, 조심조심 또 조심입니다 (50여 년 미국 사회생활의 잔여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고 1년 때, 앙불괴어천 부부작어인(仰不愧於天 俯不怍於人)을 배워 평생 지켜왔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을 안 하려고, 평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되어서, 항상 남을 도울 수 있었고, 사기나,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어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두 눈을 감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참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때 생각했던 변호사가 안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기, 불의의 일을 여러 번 당하고, 용서도 하고, 고민도 하고, 심지어는 법에 호소도 했습니다. 주위의 여러분이 나와 같이 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혼자 오래 살고 있는데, 만난 여러 여자분이 저를 '병신' 취급합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있는 돈 다 쓰고 가야지. 여행도 가고, 비싼 차, 좋은 집, 명품, 비싼 식당, 음식 등등,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구나우즈에 은퇴하러(슬프지만, 죽으러) 와서, 가능하면, 건강하게 또 죽음을 늦추고, 웃으면서, 남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족합니다. 남은 돈은 다른 필요한 사람들(자식, 친지를 포함한), 죽기 전에 내가 알아서 주고, 아니면 정해 놓고, 못다 한 것은 자식들이 하겠지요. 나의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재능, 능력으로, 좀 더 좋은 곳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멀지 않은, 언젠 가는 끝이 오겠지요.



* 윤문길 선생님은 2023년도 LWV Board member 선출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양병곤 | 언론인

세상이 무섭다
독사가 입을 벌리고
악한들이 히쭉 웃는다
병자는 갔다
강자도 숨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 남았다

최빈국 왠말이냐
부국강병 외치더니
국토에 거미줄
차는 홍수를 이루고
공장에 불타는 구름
부자가 이기는 세상
유비무환이라네

세상만사
준비는 필수라는데
우리는 비오는 날
우산이 없이 걸었다.
지혜의 칼도 쓰지 않으면
녹쓴다는데
최선을 다해야 이기는 세상
유비무환이라네

어느 철인은 말했다
노력하는 자에게
운명은 견디지 못한다고

하지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당하지 못하고 즐기는 자는
미친 자를 당하지 못한다네
일에 미쳐야 이기는 세상
유비무환이라네



나의 60년 지기 JJ



이시자 | AT&T

'지기'는 자기의 속마음을 참되게 알아주는 친구란 뜻으로 지기지우(知己之友)의 준말이다.

평생에 한 사람이라도 '지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다.

40년 전쯤 JJ가 Salinas, CA에서 살 때 우리가 살던 San Jose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그의 집을 나의 어머니, 남편 그리고 나의 딸과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였다.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 기다려지는 특별하고 각자의 맞춤형 방문이었다. 도착하자마자 우리 어머니는 일 층에 계시는 그 친구의 어머니 방으로, 나의 딸은 애들이 있는 지하실 오락 방으로, 남편은 그 친구의 남편이 열정을 다해 취미로 무엇인가 만들고 있는 car garage로, 나는 JJ 방으로 자석에 이끌리듯이 각자의 필요에 의한 그리고 소속이 이미 정해진 듯 들어갔고 그때부터는 generation events가 비밀 아닌 비밀로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하실에서는 아이들의 장난기 섞인 커다란 웃음소리, Garage에



서는 두 engineer들이 서로의 장기를 자랑하며 작품 만드는 소리, 어머니들 방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 아마도 두 분은 누구에게도 표현 못 하셨던 비슷한 여건과 각자의 상황을 서로 나누시며 많은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다. 두 분 어머니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유롭게 다니시지도 못하는 이국에서 딸 식구와 사시는 공통된 마음을 누구보다 이해하시며 서로의 든든한 친구이셨을 것 같다.

아무리 자식이 있다고 해도 그들만의 고통을 그 처지가 아니면 모른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우리는 말이 없어도 잘 통했다. JJ와 나는 상대방 입장을 잘 배려하고 감싸주었다. 친구와 나는 새삼 가족의 귀중함과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음에 감사 또 감사했던 기억이 난다.

집에 오기 전 JJ 친구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기막힌 한국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때 생각이 문득문득 난다.

두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25년 됐고 남편들도 이 세상에 없고 아이들은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아직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

"그때는 그랬었지" 하면서 아쉽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려 본다. 그래도 우리는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 살았다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남을 배려하며 더 뜻있는 삶을 살자고 어제도 오늘도 JJ와 다시 다짐한다.

절약의 미덕



강창근 | 의사



나의 할아버지는 참으로 검소하고 절약을 철저하게 실행하셔서 가난했던 살림을 넉넉한 부로 이루어 놓으셨다. 집 앞에 있는 냇물이 홍수로 인하여 물길이 바뀌어 돌게 되자 둔덕에 묻혀 있던 자갈이 드러나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그 자갈들을 한복의 오지랖에 가득 담아 옮기셨고 적당한 터를 골라 성을 쌓아 담을 만들고 그 안으로 모래흙을 채워 밭을 만드셨다고 하셨다. 그 밭에 땅콩을 심고 사과와 복숭아같이 장래에 수입이 될 만한 나무들을 심으셨다.

할아버지는 새벽길에 나가 개똥을 주으며 하늘을 향해 부자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고 하셨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 할머니는 어린 자식을 위해 이웃집에 돌아다니며 젖동냥까지 하시면서 자식을 어렵게 기르셨다.

일군 밭에 심은 과일나무는 잘 자랐고 땅콩은 수확이 많아 몇 년 후에는 제대로 생계를 꾸려 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다. 우리는 고생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편안하게 살았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세월이 흘러 할아버지가 부자 소리를 들을 무렵 손주인 우리들

이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정월 보름이 지나면 벌레 새끼들이 서식 못하게 벗겨지는 나무껍질을 미리 벗겼고 새순이 날 무렵 전지도 했으며 잎이 자라고 꽃이 피기 시작하면 해충이 자라지 못하도록 제충제도 살포했다.

열매가 열어 어떤 것은 땅에 떨어지기도 했는데 철없든 우리는 한두 번 입에 물어보곤 떫기도 하고 맛이 없어 나무 밑에 던져 버렸다. 할아버지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일주일 동안 사과를 못 따 먹게 했다.

식사할 때도 그릇에 밥알 한 알이라도 남기면 다 긁어 먹으라고 훈시하셨다. 그렇게 할아버지와 살면서 절약하는 습관은 내 몸에 유전자로 입력이 되어 있었나 보다. 지금도 배가 불러도 미련스럽게 음식을 다 먹어야 하고 외식할 경우 남는 것은 싸가지고 오게 된다. 처음엔 가족들로부터 매서운 눈총도 받았지만, 지금은 일상화가 되어 버려 남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 음식이 우리 입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는가 생각하면 먹을 수 있는데도 버리는 것을 보면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다. 아깝기도 하지만 안타까움과 더불어 쓰린 마음이 오래도록 나를 붙잡는다.

심지어 냅킨을 반 잘라 써도 충분한데 통째로 써서 그대로 버리고, 사무용 종이도 아직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버리는 것이 허다하여 남모르게 모아서 집으로 가져오기도 한다.

한때는 미국에서 "소비가 미덕이다." 하면서 낭비성 생활을 부추겼지만, 그 결과 훼손되는 자연 재원이 얼마나 많은가? 이로 인해 생기는 자연재해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California 주만 하더라도 물의 소모량은 많고 수원지는 고갈되어 물 절약이 절실한데 조금만 노력하면 지금의 습관성 낭비에서 물 소

비를 반이상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최소한의 분량보다도 반 이상 아니 삼분의 일로도 충분하다.

오지 여행가 한비야 씨는 물 한 컵으로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했다고 하지 않았던가. 누구나 하고자 하면 못 할 것이 없지만 소비성에 중독이 되어 고치기 힘든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된다, 못한다는 부정적 생각은 가능성을 퇴화시킨다. 예수님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방어할 수 있고 또 다른 재앙도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자연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끝없는 인간의 욕심부터 줄이고 제어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절약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상기온으로 뜨거운 여름이 더 뜨겁고 바다에서는 쓰나미가 인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빙하가 녹아 바닷물의 높이가 높아져 상상도 못 할 거대한 자연재해는 발달한 문명으로도 속수무책이다. 또한 현재의 온도에서 1도만 더 높아지면 식물도 다 타서 자랄 수가 없어 세계적으로 대 식량난이 곧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고 나아가서 다음 세대에게도 철저한 청정교육을 실시한다면 공업화로 인한 지구의 몸살을 조금이나마 자연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며 답답한 마음을 다독여 본다.

아름다운 유산



김홍식 | 내과 의사

Shakespeare가 인용한 독일 속담 Ende gut, alles gut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뜻일 것인데 인생 끝자락을 살고 있는 이곳 은퇴 마을 이웃 여러 가정의 경우들을 보며 그 표현 너무 적절함을 실감합니다.

젊은 시절 소위 성공이라며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 말년에 불행하게 된 분도 있고, 반대로 그동안 별 볼 일 없었던 인생이었던 분이 행복한 말년을 보내는 분도 있는데 후자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두말할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경우 그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소는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요, 자녀들 간 가족의 화목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참 유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요 형제간의 화목이기에 그 성공 유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남길 것인가를 인생 선배로서 젊은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우리 가족 얘기를 하려 합니다.

가족 간의 화목 정신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배워 둔 어려운 사람처지 배려하는 마음으로부터 얻어지는 유산이라는 것을.

우리 가족은 1973년 미국 첫 이민을 시작으로 7남매 전 가족이 이곳에 살면서 80명으로 불어났는데 지금도 매 두 달마다 정기적으로 모이며 합동 생일 잔치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내 세울만한 소위 유명한 인물도 없고 부자도 없지만 형제 우애만은 자화자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도록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된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6,000명 나병환자 소록도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자 자유 분위기가 일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수감 죄수 같은 억압적 일본인 강권 통치하에서 불만을 참아왔던 환자들이 일반 직원들에 대한 분풀이로 일으킨 봉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몽둥이나 대창을 들고 300명 직원 지역을 습격하여 왔었지만, 치안을 맡았던 일본인들은 이미 철수를 해버린 상태였고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어 있기 전이라 치안력이 전무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난 환자들의 폭동 증지를 협상하기 위해 직원 대표자를 보내면 가는 사람마다 돌아오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었는데 어쩔 수 없는 막바지에 아버지께서 협상하시겠다고 나서시는 것이었습니다.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가족들은 극구 말렸지만 누군가가 가서 협상을 해야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으냐 하시며 만류를 뿌리치고 그들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저쪽엔 수백 명의 환자들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멀리 내려다보이는 이쪽에서 우리들은 숨을 죽이며 그들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경계 철조망에 다다르니 대창을 든 환자들이 우르르 다가오기 시작할 때의 초조했던 상항은 당시 7세 어린 나이였지만 80년이 가까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대창으로 찌르려 접근하는 것 같더니 아버지임을 알아보는 듯 순간 멈칫하더니 모두 뒤로 물러서며 90도 고개 숙여 아버지께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직도 어린 가슴에 강력하게 박힌 대못이 된 것은 세상살이에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너무나 생생한 교훈이었습니다.



3년 후인 1948년 여수 애양원이라는 또 다른 나병환자 병원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소속 발동선에 이삿짐을 싣고 떠나려는 데 환자들이 작별 인사들을 하고 싶은데 직원 지역으로 나올 수 없으니 대신 배로 섬을 한 바퀴 돌아 달라는 특별 요청이 있었습니다. 섬을 도는데 수 천명되는 하얀 옷 입은 환자들이 섬 이곳저곳 바위 위 백사장 산등성 등 처 처에 나와서 손을 흔드는 장면은 글로는 표현할 길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이유보다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게 했던 사건이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는 교훈을 어린 우리의 마음에 또다시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여수로 이사간 지 약 6개월 후에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났고, 좌익 우익 이념 갈등의 혼란기에 병원 관사에서 함께 살던 손양원 목사의 중학생 두 아들이 좌익 동료 학생들에 의해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통행이 자유롭지 않았던 시절 아버지께서 병원 차량으로 시신을 모시고 와 장례를 치렀습니다. 얼마 후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

버지께서는 좌우 구분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셨기에 양측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영암 보건소장으로 계셨던 어느 날 나병환자 두 사람이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으니 10여 년 전에 떠나셨던 애양원으로 다시 오시도록 요청하려고 환자 대표로 왔다는 것입니다. 나병환자였기에 당연히 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수백 리 길을 며칠을 걸어서 그곳까지 왔다는 사연을 듣고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여수 애양원으로 다시 부임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골에서 병원 개업을 하셨을 때 돈 벌 때 땅 같은 부동산을 사 두라는 주변의 권고들이 있었으나 자식들에게 재산 물려주는 것은 형제간 싸움의 원인이 된다는 철학으로 7남매 우리에게 대학교육까지는 시키겠으니 유산 물려받을 기대 말라 선언하셨습니다.

공부하라, 착한 사람이 되라 말씀으로 교육하신 기억 전연 없지만 부모님의 행동 자체가 교육이요,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7남매가 형제간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재산 물려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임을 알기에 그 지혜에 감사드리며 그 정신적 유산을 후손에게도 물려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노숙자를 볼 때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우리들을 보며 그것은 성품이 남들보다 착해서 이기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무언의 교육의 결과임을 알기에 후손들에게도 물질 아닌 그런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어린 손주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노숙자를 볼 때면 $1짜리를 주며 직접 전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탈북자 후원 얘기도 해 주는데 그것은 물론 탈북자 도움 자체에도 목적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부모의 행위를 보이려는 교육적 의도도 크기에 일부러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어서입니다.

*** 김홍식 선생님은 LWV에서 탈북자 구출 모금 활동과 후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프랑스 진짜 관광 리옹과 보퀴즈



이 철
미주 한국일보 주필



루부르 박물관과 에펠탑 등 파리를 구경하고 프랑스 관광을 거의 다한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해다. 프랑스는 와인과 미식의 나라다. 프랑스 와인과 프랑스 요리는 세계가 알아 준다. 프랑스의 와인 생산지는 보르도, 상파뉴, 부르고뉴 등이다. 그런데 와인 생산지는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관광하기에는 좀 허전한 감이 있다. 그러나 음식은 다르다.

프랑스에도 한국의 전라도와 같은 음식의 고장이 있을까.

있다. 남동부에 있는 리옹(Lyon)이 프랑스 요리를 대표하는 도시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학교. 가장 유명한 식당과 세프, 프랑스 제일의 미식 마켓 등이 리옹에 있으며 요리 올림픽대회도 2년마

다 이곳에서 열린다. 리옹은 가장 프랑스적인 도시다.

리옹에는 먹자골목이 있는데 벨쿠르 광장옆 마로니에 거리가 바로 서민적인 먹자골목이다. 리옹의 대표적인 음식은 부숑이라는 요리인데 돼지고기를 여러 가지로 변형시켜 만든 요리다. 부숑이라는 식당은 한국의 막걸리집이나 비슷하다. 맛있는데 비싸지 않다.

리옹에는 프랑스 제일의 식당이 자리잡고 있다. 미슐렝 별 3개를 지닌 보퀴즈라는 레스트랑이다. 세프라면 누구나 자신의 레스트랑이 미슐렝 별 하나를 얻는 것을 꿈으로 삼고 있다. 오렌지카운티에도 미슐렝 하나짜리 레스트랑이 3개 있는데 코스타메사의 Hana re, Knife pleat, Taco maria 등이다.

리옹을 미식의 도시로 만든 것은 요리의 황제로 불리우는 폴 보퀴즈라는 전설적인 세프 때문이다. 2018년 91세로 사망한 그는 250여가지의 요리를 개발했으며 세프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종 도뇌르훈장을 받았으며 프랑스 제일의 장인으로 뽑혔고 미국과 독일에서도 최고의 장인으로 선출 되었다. 리옹 최고의 고급 레스트랑은 보퀴즈 레스트랑이고 프랑스 최고의 요리학교도 앵스티튀 보퀴즈이고 미식의 전시장인 최고급 마켓도 보퀴즈 마켓이다. 더욱이 2년마다 한번 열리는 요리 올림픽 이름도 보퀴즈 도르다. 보퀴즈는 리옹의 상징이다. 스페인의 건축가 가우디가 바르세로나의 상징인 것이나 비슷하다.

보퀴즈 레스트랑을 취재하기 위해 나는 리옹에 간 적이 있다. 이



리옹시내 곳곳에 걸려 있는 보퀴즈의 초상화

레스트랑은 1인당 최소 400달러-800달러며 요리가 3시간 동안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다. 나의 취재는 실패로 돌아갔다. 6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하며 더구나 1인은 안 받는다는 것이다. 보퀴즈 마켓과 서민 식당인 부숑만 구경하고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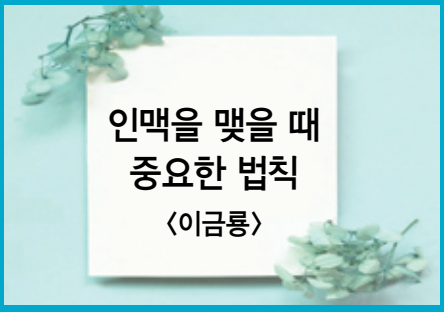
그러나 보퀴즈의 요리 솜씨를 구경할 기회가 있었다. CNN에서 1시간짜리 보퀴즈 특집을 만들어 방영한 것이다. 80세가 넘은 보퀴즈가 직접 나와 자신의 요리 과정을 설명했는데 정말 장인다웠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으로 만든 조각품이었고 접시 하나하나가 작품이었다. 토마토 퓌레와 버터, 식용 달팽이, 달걀 등을 넣고 만든 쇼룽 소스. 생크림과 홍합을 넣어 만든 부야베스 스타일의 수프. 닭을 돼지 방광으로 싼 앙베시 등 처음보는 메뉴들이었다. 미고급 식당에서 디저트로 나오는 크림 브릴레도 보퀴즈의 작품이다.

보퀴즈요리의 특징은 보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접시마다 향기가 그윽하다는 점이다. 미식가로 유명한 지스카르 데스뎅 프랑스 대통령은 보퀴즈가 만든 송로버섯 스프를 먹고 "이렇게 맛있고 향기로운 스프는 내 생전 처음"이라고 극찬해 그후 이 스프는 대통령 주최 파티에서 국빈 대접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프랑스 최고 요리학원이며 세프들의 꿈인 앵스티튀 보퀴즈(2년제)에 한국인도 2명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한국인 세프들이 앞으로 한국음식을 어떤 스타일로 선보일지 기대가 크다. 보퀴즈의 요리는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동물성이다. 김치 등 야채 음식이 많은 한국 음식을 한국 세프들이 예술적으로 개발해낸다면 제2의 보퀴즈가 탄생할 것이다.

리옹은 파리에서 테제베 급행열차로 3시간 거리다. 리옹에는 먹자골목 뿐만이 아니라 렘브란트와 들라크루아와 같은 거장들의 예술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미술관과 세계적인 여러 박물관이 있다. 리옹을 구경해야 진짜 프랑스 관광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아, 아름다워라 라구나우즈여!



비즈니스에서 '51대 49의 법칙'이 있다.
이익을 분배할 때는 내가 49를 갖고
상대방에게 51을 주면 나는 비록
1을 양보하지만 상대방은 2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조금만 양보하면 상대방은 내가 준 것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인맥을 맞을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나에게 라구나우즈란



오창현 | 의사

나에게 라구나우즈란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행이 멈추었던 곳이었기에 지금은 비록 나 홀로 있음에도 아름다운 꿈이 있는 동산입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글을 올리고 함께 걷던 모습을 그림에 담아 올린 지 어언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 후 55년간 평생을 사랑하고 사랑받던 아름다운 그 사람이 홀로 천국으로 간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섬기던 새생명 Silver Academy에서 마지막 졸업식 날 사랑하는 아내의 머리 위에 사각모를 씌워 드리며 그렇게 기뻐했던 우리. 아내는 고등학생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과 함께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소녀 가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대학교의 졸업장은 더욱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 10월 7일 주일 예배 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평안하고 밝은 모습에 미소까지 지워 보이며 나를 떠나 홀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Gate 14에 있는 우리가 살던 집에서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밤도 우리가 함께 하던 정든 그 침대에서 손에 손잡고 지낼 수 있었음을 지금도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 4년 동안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작년 9월에 다시 라구나우즈로 이사 왔습니다.

나에겐 라구나우즈란 우리들의 아름다운 꿈이 있는 곳,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으로 떠나가신 곳, 그래서 나에겐 제2의 고향 나도 마지막 아름다운 꿈을 꾸며 잠들고 싶은 곳 그리고 내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며 가고 싶은 곳이랍니다.

특별히 나는 사랑하는 Bio Senior Group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이랍니다.



웰컴 투 라구나우즈



김유배
경제학 박사

계절의 시새움이 힘겨워
더위도 추움도 피하여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곳

백발을 보듬어 안고
인생의 조각을 음미하는
사랑의 보금자리라네

젊음을 불태우던
분주하고 부산한 도시를 피하여
여기저기서 찾아드는 곳



세상만사를 뒤로 한 채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새 삶의 요람이라네

화려한 삶을 지탱하던
정든 일터를 은퇴하고
여기저기서 모여드는 곳

태평양 바닷가
친구가 그리워 찾아오는
평온한 쉴 곳이라네

짝꿍



이은주
영양사/Board member

우리가 2018년 이곳 라구나우드 빌리지로 처음 이사 온 후 로터리클럽 주최로 새로운 입주자 환영 만찬에서 임건식 선생님 부부를 처음 만났다. 그 시간 이후 이런저런 모임에서 서너 번 만나다 보니 친근해지고 조금씩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주위의 권유로 몇 분과 바이오 그룹을 시작하면서 매주 만나다 보니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 시간 나는 대로 식사도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기회가 많아졌다. 남편은 임건식 선생님과 동갑내기여서 짝꿍이라고 부르며 좋아했다.

역경 속에서 기적같이 서울대학교 음대에 입학하여 성악을 전공하고 그 시대에 내로라하는 유명한 성악가들과 함께 무대에서 활발하게 공연하셨고 뉴욕에 와서도 만해튼 음악학교에서 공부를 마쳤으나 이민 1세의 현실적인 문제로 성악가로서의 꿈을 접고 개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 행사 때에 임 선생님의 독창을 들을 기회가 서너 번 있었지

만, 그보다도 몇 명 되지 않는 바이오 그룹 모임에 참석해 바로 옆자리에서 열창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나에게 행운이었던 것 같았다. 10명 정도의 모임에서 힘차고 우렁찬 노래로 우리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희망과 용기와 활력을 주셨다.

작년부터 임 선생님 내외분이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응급실에도 서너 번씩 실려 가시더니 눈에 뜨이게 기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느려지며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임 선생님이 청력을 90퍼센트 잃어버리고 보청기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음악을 듣지 못하자 음정도 이상하게 되어 즐겨 부르던 쉬운 찬송가조차 부를 수가 없었다.

절대음감으로 안정된 음정을 항상 당연하게 생각해 왔던 임 선생님에게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황이어서 좌절하고 낙심하였다.

옆에서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 임 선생님의 건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곳 빌리지 주민들에게 임 선생님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이 들었다.

마침 9월에 있는 바이오 5주년 행사에서 가능만 하다면 임 선생님의 멋진 독창 순서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의논드렸더니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

행사 장소를 물색하던 중 본의 아니게 규모가 커져서 클럽하우스 3번에 있는 극장으로 결정하고 보니 예산도 만만치 않았지만 300명 이상만 표를 팔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사방팔방으로 홍보하고 나니 370장 정도의 표가 팔렸다고 연락이 왔다.

일단 경비는 해결될 것 같았는데 임 선생님의 컨디션이 좋아지

지 않고 본인은 본인대로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임 선생님께 노래하지 않아도 일단 안심을 시켜드렸다.

방법을 찾던 중 우리 멤버로 있는 채길환 선생님이 립싱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아이디어를 내어놓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방법 또한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녹음된 노래로 관중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방법을 택했다.

마침 4년 전에 평소에 즐겨 부르던 '가고파'를 녹음해서 저장해 둔 것을 극장에서 일하는 기술자에게 전하고 행사에 쓸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드디어 우리 행사가 시작되니 관객석도 웬만큼 찼고 우리 멤버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모두 함께 무대로 올라갔다. 1부 행사의 순서가 음악 순서였는데 오프닝은 소프라노 김경자 선생님이 우리의 가곡 '금강산'을 아름답게 불러주시고 나는 이북에서 위험한 고비를 거쳐 남한으로 온 16세의 소년이 성악가로 성공한 임 선생님의 삶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현재 건강 문제로 직접 우리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자랑스러운 우리 친구의 노래를 함께 듣기 원한다고 설명해 주고 녹음된 임 선생님의 가곡 '가고파'를 그곳에 모인 관객들에게 들려주었다.

불이 꺼진 극장에 임 선생님의 '가고파'가 울려 퍼지는 그 감격을 아직도 나는 잊지 못하고 있다. 음악이 끝나고 무대에 불이 켜지며 동시에 멋진 나비넥타이를 하신 임 선생님이 등장했을 때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는 참으로 감격적이었다. 무대 인사를 마친 후 임 선생님은 관객들의 따뜻한 환호에 보답하기 위해 짧고 쉬운 노래 '이

몸이 새라면'을 부르시고 2절은 바이오 그룹 모두가 합창으로 함께 부르며 마무리하였다.

이 노래는 임 선생님의 작은누나가 개성에 살 때 가르쳐준 노래이며 이 노래를 부르며 헤어진 가족들을 그리워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행사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오며 만난 수많은 관객이 많은 찬사를 하나같이 이번 행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행사였다는 극찬을 했다. 이 정도면 우리 행사가 성공적이었던 것 같았다.

이번 행사를 치르며 나는 다시 한번 바이오 그룹의 정신을 생각해 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의 꿈을 이루어 주며 서로에게 용기와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이 바이오의 정신이며 함께 어우러져 노인다운 노인이 되는 것을 서로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바이오를 시작했던 멤버들이 하나씩 둘씩 우리의 곁을 떠났지만 지난 2년간 많은 새로운 멤버들이 들어와서 100명에 가까운 큰 모임이 되었다. 마치 지금이 바이오 그룹의 Renaissance 전성시대가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모임의 크기와 무관하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짝꿍들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라구나우즈의 삶



채길환 | 여성회장



2017년 10월에 미국 중부지역에서 40년을 넘게 살다가 이곳 라구나우즈 집을 마련하여 Renovation 마치고 2018년에 이사를 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는 Retire를 하고 이곳으로 왔으니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던 모든 것을 흘흘 다 털어버리고 떠나왔으니 홀가분한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았다.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들어와서 살아보니 얼마 안 되어서 은퇴 마을에서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착각이었다.

이곳에 들어와 보니 80-70세 밑으로는 모두 청년이라고 했다. 우리는 66세에 이곳에 들어왔었으니 명함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다시 갑자기 청년이 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었다. 사람들 보는 눈이 매서웠다고 할까 봉사를 해왔었던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한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 그 후로 여기저기서 붙잡히게 되었다. 나는 그쪽에서도 연합성가단에서 20년 이상 여러 모양으로 봉사를 쭉 해오고 있었다.

이곳에 이사 와서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찬양과 경배 모임에 나가서 부족하지만 찬양 인도를 하며 주님 앞에 찬양집회를 돕고 있는 것이 벌써 5년이 넘었다.

이제는 약방의 감초라는 소리까지 듣기도 하는데 돈 한 푼 받지도 못하고 봉사하고 있는 형편에 그 소리가 과연 좋은 소리인가도 의심스러웠기도 했다.

사실 정신 없이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고 주변에서 물어본다. 주님께서는 걷기도 힘들었던 몸을 일으키시고 나에게 그만큼의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항상 나를 지켜 주신다.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은사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각 사람마다 달란트는 다르다. 나에게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은사를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주셨다. 무슨 일이든 하면 된다.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1993년에 갑자기 급성 류마티스 관절염 판정을 받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누워서 침대 생활을 했다. 몸의 균형이 잘 맞지 않아서 남편 손을 잡고 다녔어도 자주 넘어졌다. 그때부터 나는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던 항상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다녀야만 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몸이 많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봉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주셨다. 교회에서 출판부장 일을 맡게 되면서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하여 등불이란 제목으로 뉴스레터를 발간하게 하셨고 미국 장로교 전국연합회 한인 여성회 임원을 맡아 전국으로 다니며 봉사를 하게 하셨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다. LA, 시카고, 텍사스 각 지역을 방문하게 하셨고 대외에 나가서는 리더쉽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배웠던 것이다.

나 자신은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면 된다'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보람을 찾게 됨을 배웠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최미길 | 목사
Board member

United Mutual Board of Director로 출마하기로 마음을 정하기까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11년 전 이곳 Laguna Woods로 이사 들어온 것도 전혀 제가 계획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미국 장로교 교단 본부 총회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고, 제 일이 매일 미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출장 다니며 개 교회 또 노회, 대회 등 미국 장로교회의 기관들을 순방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가르치는 일들로 너무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시간 반쯤 떨어진 동북쪽에 위치한 집 Inland Empire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도 일주일 동안 미네쏘타주에서 열리는 총회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중 급한 전화가 왔는데 집이 갑자기 팔렸다는 저의 Realtor 이면서 아주 가까운 후배에게서 온 내용이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준비된 집이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런 계획이나 idea조차 없었습니

다. 그때 후배가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거긴 어떨까요? 아직은 안 되겠지요?"

제가 "거기가 어딘데?"라고 물으니까

"Laguna Woods…"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55세 이상이면 되잖아? 내 나이가 그 나이보다 훨씬 넘었는데 어때서?"

그 친구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아직 너무 젊으신데 그리로 들어가시라고 권하기가 좀 죄송해서요…"

바로 그 다음 날 약속을 하고 첫 번째 본 집을 그 자리에서 Contract에 Sign 하고 들어온 집이 지금 사는 제 집입니다.

10년 동안은 여전히 일하고 출장 다니고 바쁜 생활에 이곳 주위를 살피고 Activity에 참여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은퇴할 계획을 하고 있을 때 Covid가 터졌습니다. Covid가 끝나갈 무렵 조용히 은퇴를 하고 앞으로의 내 삶도 그렇게 조용히 살 수 있으리라는 야무진 꿈을 갖고 은퇴 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6.25 사변이 터진 후 닷새 만에 길에서 태어나 무덤에 묻히기 일보 전 살아난 "Miracle Baby"가 70여 년간을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마담 큐리"가 되리라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꿈의 나라 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딘 후 50여 년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3살 반짜리 아들과 8살짜리 딸만 남겨 놓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증거하시면서 저를 이리저리 돌리셨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커서 잘 살고 있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은퇴 계획을 세우면서 제가 할 일은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도 이 아름다운 Retirement Community에서 조용히 좋아하는 책 읽고 아름다운 음악 듣고 골프하며 한가하게 살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평생을 대중들 앞에서 가르치며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앞에 서고 섬기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11년 동안 아무 동아리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한인회 회장님도 저를 모르셨습니다. 한 번 만나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한인회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과연 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제가 오래 고민하고 기도한 후 마지막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께 도움을 청했을 때, 이곳 온 LWV의 모든 주민께서 흥분하시고 열광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와 과거에 연분을 가지고 저를 아시는 복병들이 산지사방에서 우르르 나타나 싸워 주셨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의 명단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먼저 자진하여 "선거 대책 위원장"의 직분을 가지시고,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낙선하면 한인 회장 직을 사임하고 라구나 우즈를 떠나겠다"라는 엄포(?)와 함께 캠페인을 시작해 주시고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어서 결론을 장식해 주신 한인회장님과 한인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Recruit 하시고 강력한 권유와 격려로 동역에 참여하게 하신 세 분의 이사님, 이은주, 윤문길, 박상근 이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일 먼저 Financial Campaign을 시작하고 열렬히 응원해 주신 대학 동문회, 모교 여고 동문회, 뒤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봉사로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과 믿음의 동역자들, Home Club인 Bio 회원들의 응원과 기도, 봉사, 각종 동아리의 협조와 캠페인, United Mutual Campaign 카톡 방에 등록하시고 운동원으로 수고하신 40명에 달하는 Team Member들, 그 방에는 없지만 못지않게 저와 직접적으로 연락, 도와주신 분들, 인종을 초월하여 나를 지지하고 도와준 주민들,

Flyer를 Design해 준 우리 딸, Danielle, 그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print 해 주신 Printron의 송기평 사장님, 맨 앞장서서 캠페인을 인도하고 지휘해 주신, 최은희, 복진성 Campaign Manager 두 분, 모두에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의 뜨거운 열기는 가시고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또 다시 한번, 나 자신은 전혀 계획도 못 했고 예상도 못 했던 이곳 이사로서는 초년생인 제가 United Mutual의 Treasurer(재무이사)로 선출되어 이 큰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LWUM 캠페인을 돌아보며



최은희 | 수학 석사

파스텔 블루의 높은 하늘, 온화한 날씨, 옅어진 은은한 햇살, 길가에 여기저기 뒹구는 낙엽들을 보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들곤 합니다. 수확의 계절이라고도 하는 이 가을에 LWV 한인 커뮤니티에는 두 분의 한인을 Board of Director로 당선시키는 귀한 열매를 거둔 기쁨의 여운이 아직도 채 가시지 않은 듯합니다.

지난 여름 LWUM 마을의 최미길 후보의 등장은 많은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한인 주민들에게는 또 한 분의 한인이사를 board에 세우겠다는 열망의 깃발을 흔들 기회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한인 이사들의 활동과 지도력이 LW Board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들의 활동 범위와 영향권이 더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주민들의 후원이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이 마을의 선거운동을 모범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함으로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캠페인의 guideline을 마련해 두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종류의 선거이든 적격의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과 그 후보자를 정당한 방법으로 적절한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각인시키는 것이 캠패인의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 LW UM Board of Director 선거 과정을 돌아볼 때 이 두 가지 면이 잘 콤비가 되어서 성공적인 선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며 이런 측면에서 지난 캠패인을 돌아보며 몇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최미길 후보는 다양한 경력을 가진 커리어 워먼이셨지요. 다른 무엇보다 여성 목사로서 대형 비영리기관인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톡톡히 훈련을 받고 총회내에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관리하고 처리하며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행정 경험을 보드 이사의 직분에 잘 응용할 수 있다면 이사직에 아주 적임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아담한 체구에 다정다감한 저의 여고 5년 선배 언니인 최 후보님은 웬만한 도전적인 일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추진력이 강하고

진취적인 성향을 가진 분입니다. 또한 해야 할 일이라면 열정적으로 몰두하며 긍정적 에너지를 분출하기도 합니다. 한인 1세 이민자로서 미국 주류사회의 문화와 시스템에 수십 년 동화되어 살아온 체험을 가지고 이 LWV에 문화적인 차이나 언어의 장벽이 있는 곳에서 중재 역활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목사로서 세상이나 사람들을 바라보는 남다른 안목과 식견을 가지고 불협화음이나 분열의 가능성이 있는 어떤 모임이나 어떤 그룹에서든 화평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목회적인 리더쉽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요.

둘째로는 최 후보자를 열정적으로 지원하며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뛰면서 땀 흘려 주셨던 4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의 공로입니다.

• 캠패인 포스터를 세련되게 디자인해 준 유능한 2세 젊은 여성

•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단 한 번의 전화 요청으로 흔쾌히 캠패인 포스터를 중국어로 번역해 주신 쌔들백교회의 한 대만 여성 교우

• 캠패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포스터나 인쇄물들을 실비로 인쇄해 주시고 신속하게 손수 배달해 주신 분

• 5000여 명의 이메일 수령자들에게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발송하는 이메일 전송을 담당해 주셨던 한 부부, 갑작스럽게 볼일이 생겨서 한국을 방문해야 했을 때에도 본인의 랩탑을 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처리하면서 마지막 2번의 이메일까지 조금의 차질도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신 성실하신 두 분

• 저녁마다 네이비색 캠패인 티셔츠를 입고 짝지어 골목길을 걸으

며 Vote For Mickie Choi를 말없이 외치셨던 분들

• 20여 군데의 포스터 배부 지역에서 각자가 원하시는 구역을 선택하여 배부를 담당하고 그 무더운 여름날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발품 팔아가며 가가호호에 포스터를 돌리신 분들

• 승용차나 골프카에 큰 포스터를 붙이고 gate 근처나 street을 몇 일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며 parking에 수고해 주신 분들

• 클럽하우스 3 극장에서 700여 명이 모이는 Chinese Music Festival과 Michael Jackson 모방 쇼 때에 타민족 관객들과 개인적으로 인사하며 포스터를 건네주는 캠패인에 애써 주신 분들

• Mickie Choi 후보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Meet the Candidate 준비를 위해 도움을 주시고 후원금도 내주시며 격려해 주신 몇 분의 현 보드 멤버들



이렇게 봉사자들이 각자가 자원하여 맡은 작업에 열심히 손과 발로, 몸으로 뛰면서 봉사자들 몫의 캠패인 과정이 차근차근 진행되어 갈 때 최 후보님과 저는 40여 회에 걸쳐서 각 동아리와 외국인들 그룹

을 방문해야 했고 또는 이메일 발송 후에 요청하는 미팅이나 면담에도 빠짐없이 대응하기도 하고 LWV의 정치 1번가(?)라는 클럽하우스 1에 나가서 몇 시간씩 머물면서 주민들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캠패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무덥고 찌는 듯한 여름날에 때로는 지치고 맥이 빠져서 기진맥진하여 저녁 늦게 귀가할 때면 며칠이고 마냥 쉬고 싶기도 했지만 더 열심히 뛰시며 응원해 주시는 봉사자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7월 말부터 캠패인은 시작되었고 무슨 특별한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팀과 봉사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큰 손길 같은 무언가가 늘 우리들 곁에 머물고 있는 듯함이 느껴지며 그래서 든든했고 감사했고 낙관적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또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은 최 후보자와 팀원들에게 사기를 불어넣어 주며 back bone이 되어주신 여러 어르신도 한몫을 담당하셨고 비록 현장에서 뛰지는 못했지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여러 가지 활동과 과제들을 시행할 때 재정적인 큰 어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한분 한분 모두가 소중했고 감사했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해 주신 파트너들이셨습니다.

이젠 뜨거웠던 여름날들도 선거운동의 흥분과 열기도 다 지나가고 싱그럽던 초록의 나무들도 나뭇잎을 땅으로 날리며 한두 그루씩 벌거벗고 있네요. 떨어지는 낙엽은 다시 잎을 피우기 위해 봄, 여름 동안 제 역할을 다하고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자 새봄을 맞이하기

위한 재정비의 과정이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점검의 신호이기도 하다지요.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덜어냄의 미학을 나무에게서 배우며 돌아오는 봄에 연초록의 새잎을 피우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서 덜어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어 보렵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인생 나무에도 떨쳐내고 덜어내는 아름답고 성숙한 작업이 이루어져서 다시 찾아올 황혼의 봄에 새잎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환희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구나우즈 정착기



남정자 | 교육학 박사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난 나는 언니와 여동생의 미모에 비해 평범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자신 없는 유년기를 지내왔다. 그런 와중에서도 한가지 나의 자존심을 높여주었던 것은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것이다. 부모님도 나의 약점을 커버해 줄 생각으로 고등학교를 서울의 명문 학교로 보내주기로 하셨고 나는 당당히 합격하여 서울로 유학을 하게 된 것이다.

이제 외모는 문제가 안 되었다. "이 집 둘째 딸은 예쁘지는 않지만, 이지적으로 생겼네요, 오히려 매력적이야"라는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이 나의 자존심을 살려주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대학입시에서 떨어져서 2차 대학에 간 다음부터다. 나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부모님의 강권에 의해 간호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를 지탱해 주었던 "얼굴은 예쁘지 않지만, 공부는 잘한다"는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수학을 잘해서 여성 과학도를 지망하고 꿈꾸던 나의 포부는 꺾였고 새벽에 간호 학생 실습을 나가서 환자들의 체온을 잴 때, 할머니들이 "아이고, 잠잘 시간에 웬 고생이여" 하면서 천 원짜리 지폐를 호주머니에 찔러 주실 때, 나는 일종의 자괴감까지 느

끼기도 하였다.

그나마 입학시험에 일 등으로 합격하는 바람에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아 자퇴를 안 하고 졸업하게 된 것이 다행이고 내 인생 삶의 방향을 바꾸어 논 셈이었다. 미국에 올 기회도 얻었고 결혼과 취업, 육아 등 바쁜 일상을 통해 젊은 시절을 비교적 행복하게 지내온 것이 다원하지 않은 이 진로의 선택 때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70년대 초반에 도미하여 5년 만에 남편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석, 박사학위를 끝냈고 나 또한 석사학위를 마친 덕분에 한국에 돌아가서 남편은 대학교수로, 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무사히 정년을 채웠으니 나름 순탄한 삶을 잘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귀국하여 내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공채되었을 당시인 1970년대 후반만 해도 미국 석사 학위의 프레미엄 덕분에 나는 특별대우를 받고 채용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공부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결정과 그리고 이어지는 한국대학에서의 박사과정을 통해 나의 미래가 형성되었다. 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보건 의료 분야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나의 전문성을 키워 왔다.

이 기간은 나의 지속적인 학습 성과로 가득한 황금기였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내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 실적을 남기게 되었고 그 결과 여기저기서 자문 및 겸임교수 요청도 많아졌다.

보사연에서 정년퇴직한 후에도 연세대 간호대학의 겸임교수로서

코이카의 ODA 사업 중 에티오피아와 도미니카의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도 하였다. 돌이켜 보면, 50-60대인 이때가 나의 일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절이었고 전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정년 이후의 삶이다. 100세 시대를 실감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정년 후 30여 년에 대해 설계한다는 것이 내 꾀에 내가 넘어간 것이다. 해마다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수행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그러한 정신적 노동보다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부러웠고 앞으로의 삶은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런 기회가 드디어 나에게 찾아온 것이다.

마침, 두 아들도 결혼해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던 터라, 남편을 설득해서 교환교수 자격으로 미국 텍사스로 올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기회에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 이후의 삶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불과 10년 동안 우리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 일식당에 이어 이태리 레스토랑까지 운영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손댄 사업마다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과거 평탄했던 삶에 대해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에 대한 혹독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게 되었다. 인생이 그렇게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감히 무모하고 경솔하게 식당 운영에 손을 대면서부터이다. 그것도 한식당이나 일식당도 아닌 이태리 식당 운영을

하면서 텍사스에서 겪은 나의 시련은 인생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 깨달은 것은 식당 운영이 육체적인 단순노동을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야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우선 경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시험과 그를 위한 훈련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회사채 설립,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훈련과 시험 등 그야말로 고도의 지식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종합예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한 시련 또한 만만치 않았다. 우선 아시안이 이태리 레스토랑을 운영한다는 것을 주요 고객인 백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환경에서 내놓고 주인 행색을 할 수 없었던 점으로 인해 불이익은 물론 인종차별의 비애 또한 느끼게 되었다.

그 외에도, 종업원 간의 갈등 해결에도 주인 역할을 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주로 부엌에서 일하는 쿡과 디시워셔는 맥시칸들이 많았고 매니저와 웨이트레스는 동유럽 출신의 알바니계가 담당하였는데 이들은 늘 티격태격 갈등을 유발하며 좀처럼 화합하지 못하였다. 그 와중에도 누가 보스인가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맥시칸들이 전적으로 내게 충성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일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는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경영방침을 바꾸어 혼자 경영하는 것보다 파트너십을 결성해서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가 우리의 단점을 커버 해 줄 수 있는 동유럽 마케도니아 출신 셰프, 조

셉을 만나게 되었다. 조셉은 뉴욕의 최고 세프 양성 학교를 졸업한 인재로서 실력이 최고 수준이었고 무엇보다도 젊고 잘 생겼고 열정이 있었다. 자신만의 메뉴 북을 보물 다루듯 끼고 다니며 자랑하는 조셉을 볼 때마다 든든한 파트너를 둔 우리의 행운을 감사하곤 했다.

특히 조셉의 아버지 비도는 공산당 시절 뉴욕의 은행지점장으로 파견 나온 인재로서, 외아들 조셉을 세프로 양성한 것도 미국에 정착하기 위한 비도의 아이디어였다. 나는 비도와는 친구같이 잘 지내면서 사업 이외에도 외국인으로서의 애로사항과 특히 각자의 고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정을 쌓아 갔다.

조셉은 우리의 레스토랑을 델레스 일대에서 10대 유명 레스토랑으로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고 공헌한 셈이다. 그러나 레스토랑이 명성을 얻고 돈이 벌리자, 조셉이 마약에 손을 대고 부인과 이혼하고 레스토랑 운영에는 관심이 없어졌다. 현금을 빼내는 일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그러한 파트너를 추적하고 고발하는 것이 어느덧 나의 주 업무가 되어 버렸다.

미국 변호사들의 행태와 속는 것을 알면서도 협상해야만 했던 나의 속수무책, 이러한 나의 약점을 이용한 정부 기관의 단속 행태 등은 마침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몇 년을 시달린 끝에 만나게 된 변호사들 그리고 미국의 비합리적인 소송제도는 결국 나로 하여금 모든 것에서 손을 떼게 만들었다.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은 나로하여금 정신 차리게 만들었고 내가 태어난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재조명하고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겪어 왔던 삶의 과정을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 와중에,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극적으로 문제의 레스토랑을 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제서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네 존재임을 회개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모든 것을 하나씩 추스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그동안 적조했던 라구나우즈에 사는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친구의 안내에 따라 이곳 라구나우즈에 정착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요',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라구나우즈로의 정착은 갈림길에서의 하나님 인도였음'을 깨닫게 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 들어 누워 있는 침대다.
너는 네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 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면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게 되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간의 사랑을 존중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 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 줘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아차 하는 찰나에



김소향
시인/Marathoner

아차 하는 찰나에 허물어진 보금자리
몇 날 며칠 동안 공을 들였을 거미에게
미안한 마음 전하기도 전에
앗! 이럴 수가, 이웃도 집을 잃다니

싱그러운 이슬에 젖은
새벽 오솔길 즐기려 했는데
뜻하지 않게 파괴자가 되어 버렸으니

눈이 어두워져
거미줄을 온통 뒤집어쓴 얼굴
그러나 거미는 다시 집을 지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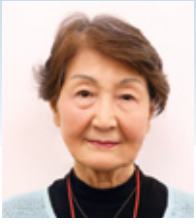
무심코, 때로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마음 아리게 함도 순간 아니던가
늦게나마 아픔과 고민 다독여 주었던가

마음만이라도
오래도록 밝게 간직했으면
두 손 모으고 간절한 소망 전하리라





내 마음의 창에



임정순
Journalism 전공

작년 봄부터 내 심장이 어느 땐 느리게, 어느 땐 빨리 뛰었다 한다. 종잡을 수 없이 빈도가 잦아진다.

심장 전문의사 처방으로 가슴에 Pacemaker를 넣기로 했다. 간단한 수술로 당일 퇴원할 수 있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순간, 숨을 쉴 수 없는 발작이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 병원 침대에 갇혀 순식간에 사경을 헤매는 중환자가 되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온 남편도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정신이 반은 나간 사람 같다. 설상가상 집에는 Pipe에 물이 새어 침실과 화장실 벽을 뚫어 놓고 물에 잠겨 있는 마룻바닥을 다 뜯어내 공사 중이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으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힘들고 무리요 오직 마음에 떠 오르는 생각과 고통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 제발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욥기"에 욥이 떠오른다. 그에게 갑자기 닥친 엄청난 고난들….

고난 후 그에게 찾아온 깨달음과 축복들이 몰아 쉬는 내 숨속에 묻혀 버린다.

문득 Bio Group 초창기 시절 이영범 선생님과 이은주 선생님이 계획한 순서로 우리는 함께 모여 자연스레 각자 재능의 보따리를 풀어 놓고 인도자에 따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이영범 선생님의 마음의 건강 강의, 명상 등을 진행하며 강창근 선생님의 운동, 호흡과 집중이 생각나 심호흡을 시도해 본다.

이강민 선생님의 의학 강의들, 치매 강의 등 …. 우리는 치매 예방을 위해 윤호원 선생님의 인도로 일주일에 성경 한 구절씩 외우기로 했다. 매주 모일 때마다 둘러 앉아 한 목소리로 암송한다.

병상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의지가 되었는지 !



Bio Group 선생님들의 수많은 기도와 도우심!

매일 출근 하다시피 챙겨주신 고마우신 분들!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셨는지 ….

4번의 대수술 후 한 달만에 퇴원할 수 있었다.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견딜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의료 사고로 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러한 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함께 암송한 구절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 3: 22-23〉

뒤돌아보면 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창에 아름답게 펼쳐진 풍경을 바라볼 수 있는 바람에 나부끼는 새 하얀 감사의 커튼을 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심을 배우며 여러분과 더불어 살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스피스에 관하여



임영희 | RN



우린 모두 소풍 온 사람들이다.

흥겹고, 재미있는 소풍인데 이제 소풍을 끝내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곳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70년 넘게 다행히도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제 그동안 배우고 아는 지식들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알려 주고 싶어서 이글을 쓰게 되었다.

지난 50년 넘게 병원에서, 양로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이제는 오랜지 호스피스에서 마지막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많은 친구들이 호스피스에 대해서 잘 몰라서 메디케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마지막 소풍을 끝내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게 되었다.



젊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월급에서 메디케어 기금을 떼어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혜택이 필요하게 될 때 다시 돌려받는 거다. 다만 아는 사람만 이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 호스피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

65세 이상 메디케어 카드를 가진 분은 100% 본인 부담 없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떤 질병이든 말기에 가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따른다. 목욕, 대소변, 보행, 인지 장해, 통증이 심해지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길 권한다.

호스피스 케어는 치료가 아니고 케어임을 알아야 한다. 주치의에게 호스피스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evaluation을 해달라는 오더를 내달라고 부탁하면 나머지는 호스피스에서 알아서 해준다.

호스피스팀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목욕 도우미, 물리치료사, 목사, 자원 봉사자들이 한 팀이 되어서 전인적인 케어를 할 수 있다.



Par 3 Course Golf

서경선
교수/작곡가

아침 식사 후 하루의 시작을 Par 3 course에서 18홀 rounding으로 시작한 지 3년이 되어 온다. 물론 혼자서 그리고 매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아침 시간이 여의찮는 날은 오후 늦게라도 거르지 않도록 노력한다. 가끔은 남편과 함께 course 1에서 9홀을 하는데 이때에는 걷지 못하고 Cart를 타면서 한다. 재미는 있지만, 운동을 훨씬 덜하게 되니,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일 걸어서 하는 운동 시작 이후, 참으로 많은 좋은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우선 적절한 혈당 유지를 계속할 수 있고, 늘 신경 쓰는 체중 조절 문제(이 문제는 섭생과 직결되니 또 다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지만)도 그리 나쁘지 않게 해결되는 셈이고. 그리고 매일 쾌적하게 느끼는 운동 후의 그 가벼움과 편안함과 자유로움은 몸으로만의 경험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 단련되고 편안해 지는 느낌을 갖게 된다.



매일 같은 곳에서 거의 같은 시간에 하는 운동이지만 매일매일은 물론이고 같은 날에도 첫 번 round와 두 번째 round가 번번이 다르다. 난 이런 다름을 즐길 뿐 아니라 늘 새로운 기분이 되어 긴장하게 되는 것이 참 좋다. 내 자신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주위의 변화도 즐긴다. 때로는 앞 팀의 hole out을 기다리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앞 팀의 hole green의 play를 보면서 즐길 수도 있고. 올해에는 Jacaranda가 유난히도 화려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피어 있는데, 늦게까지 피어서인지 초록색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서 초록과 보라의 깊은 어울림을 또한 즐겼다. 혼자서 하다 보니 앞 팀이 여럿인 경우 으레 먼저 가도록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도 발걸음을 가볍게 해 준다.

젊었을 때에는 몸을 움직이는 일에 무척 인색했던 것 같다. 늘 앉아서 작업하는 생활이었으니까 . 그리고 언제까지나 항상 이렇게 아

무 문제 없을 줄 생각했었다. 또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전혀 관심도 염려도 없었다. 그리고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을 줄은 더욱 더 생각하지 못했었다. 막연히 어머님이 75세에 가셨으니, 나도 그 정도까지는 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에 갇혀 있었다.

어쨌든 남편의 건강 때문에 70을 바라보며 이 곳으로 이주했는데 남편은 물론 나 또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지내고 있다. 그 오래된 당뇨를 이 곳에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Covid 19 이후 외출도 줄고 모임도 줄어서 잘못하면 집안에서 꼼짝도 않고 지냈을 경우였는데 하루에 2시간씩 푸른 잔디 위를 걸으며, 잘 안 되는 swing을 곰곰이 생각하며, 다음에는 진전이 있기를 늘 기대하며 매일매일 지치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특히 그이와 함께 하는 충만한 삶을.

병이란



윤문길
의사/Board member

우리는 모든 면에서, 위생적으로 아주 열악한 때라 자주 배앓이, 혹은 호흡기 증세를 했던 시대를 지내왔다. 마당에 부엌칼을 꽂고, 바가지를 그 위에 덮고, 정화수 앞에서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수도 없이 조아리며, 삼신할머니, 또는 천지신명께, 병이 낫기를 열심히 빌고, 실바늘을 콧김에 쐬어, 엄지손가락을 고무줄로 단단히 묶고, 검붉은 손톱 위를 찔러, 나쁜 검은 피를 짜내곤 하는 어머님 덕으로, 그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도 보아 오면서 자라왔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에, 효험이 없어, 동네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해 오고, 다음 단계는 한의원에 가서, 침, 훈 뜨고, 한약을 달여 먹었다. 최소한 한 재(12-24첩)의 한약과 재탕을 합치면, 그럭저럭 한 달이 훌쩍 지나고, 그래도 안 되면, 무당 불러 굿을 하곤 했다. 그동안에, 이웃 사람들이 오만가지 처방을 하고, 간암에, 잔디 뿌리가 좋다, 팔에 있는 염증에, 아기 똥을 끓여 발라라, 무수한 민간 비방 등등, 많은 분이 병문안 와서 처방을 내놓고 간다.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당신과 똑같은 증세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여 나았다."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인 환자와 가족들을 흔들어 놓고 간다.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렇게 하여, 중요한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진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다른 민족, 지방에서도 같으리라 짐작한다. 80-90%의 모든 증세는 이 기간 동안에 자기 자생능력으로 어차피 낳고, 진짜 병들은 적시적소의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많이 본다.

내가 입주 가정교사로 있다가, 갑자기 집을 방문한 날, 어머니가 아파서, 아주 야단스러운 굿이 진행 중이었다. 내가 모두 쫓아내니, 무당왈, 동산병원 원장도 내가 굿으로 낫게 했다고. 내가 그분은 미국 사람이라고. 우선 어머니 모시고, 대학병원 외래에 가서, 진찰받고, 검사실로 가서, 피, 소변검사. 신우염이란 진단과 설파제를 써야 한다는 이야기에 친구 부친의 의원에 가서, 링거, 설파제 혈액 주사, 그리고 해열제 맞고, 며칠 분 받아, 집에 와서 3일간 내가 치료해 주었다.

의대 교수 중에 학생들이 희명 도사라고 부르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다. 일본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1920)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다. 이 교수님은 회진할 때 20-30명의 의사, 학생들이 따라다니며,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고, 배우려고 따라다녔다. 아주 친절히 환자를 대하고, 가운 왼쪽과 오른쪽 주머니에서, 어떤 때는 왼쪽에서, 다른 때에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약봉지를 꺼내어 주면서, 이 약을 내가 시키는 대로 복용하면 곧 좋아집니다 하면서, 아주 세세하게 일러 주셨

다. 이분의 은퇴식에서 어느 맹랑하고, 용기 있는 젊은 의사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노교수가 다정스러운 미소로 그 의사를 바라보면서, "소화제이네" 의학적 용어로는 PLACEBO였다.

192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의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병들은 참으로 적은 영역이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항생제도, x-ray조차 없던 시대이니, 얼마나 많은 치료를 할 수 있었겠나. 짚신 신고 문경새재를 넘다가, 비행기타고 LAX에 오는 것과 비교가 된다.

나의 어린 시절(1950-70년대) 대구 시중에 도는 소문은, "대학병원, 동산병원에 가지 마라, 죽어서 나온데이…. "병을 나을 시기와 기회를 다 놓치고, 정말로 죽을 때가 되어 종합병원에 와서, 기적을 바라지만, 그런 기적은 아무도 만들 수 없다.

사람은 생물체이기 때문에, 자생 능력이 있다. 하여, 어지간한 병은 이 능력으로 해결이 된다. 간혹, 이 능력을 넘어서는 병들은 적시에, 진단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내 동기 중에, 아주 유명한 개업의가 있다. 하루에 200-300명 환자를 혼자서 본단다. 중요한 비결이 있다. 접수부에서 4개로 분류를 하는데 1) 호흡기, 감기 등 2) 소화기, 설사 등 3) 아무것도 아닌 것 4) 대학병원행.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을 놓치면 안 된다고.

병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본인의 자생능력으로 낫는 병

2. 의학의 도움으로 나을 수 있는 병
3. 현재의 의학으로 나을 수 없는 병

가벼운 증세의 70-80% 이상이 1번에 속하며, 이는 한국의 일반 개업의나 약국들의 주 수입원이 된다. "이 약 드시고, 내일 또 오세요." 미국에서는 아무도 "내일 또 오세요."란 말을 하지 않아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다행히도 의학의 끊임 없는 발전으로 2번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다. 지난 50년, 의학은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했다. 50대 이상인 100명 중의 90명 정도가 의학의 도움이 없었으면 벌써 죽은 사람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그중 몇 가지 분야를 이야기하면, 면역, 예방 주사, 줄기세포, 나노기술, AI, DNA/RNA 등등이다. 60을 넘기면 큰 환갑잔치를 하던 시대가 어제 같은데, 이제 100세 시대라 말한다.

이 세상엔 만병통치약은 없다. 의학적으로도 많은 단계의 검증을 받아야 인정을 받고, 이도 통계학의 BELL CURVE의 STANDARD DEVIATION (68%, 93%, 97%)이므로 100% 완전한 치료 약이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화적인 결과보다는 항상 같은 결과가 반복하여 나와야, 심사를 통과하여 치료 약으로 인정이 된다, 대부분의 신문, 잡지, TV, 방송 등에서 선전하는 많은 치료제나 진단술은 사실인지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광고비만 받고 광고를 내며, 어떤 정부기관이나 권위 있는 의학기관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의 판단에 맡기니, 참으로 안타깝다. 나도 의

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황당한 광고를 보고, 여러 번 반론을 제기할 생각도 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법정 소송에 휘말릴 걱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다. 년 전에 유행한 건강 팔찌(?)는 애교로 봐주더라도(치료 시기나, 또 적절한 치료에도 영향이 없었고, 단지 조그마한 경비만 손해 봄) 상당한 부작용, 또 금전적인 손실을 보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적시 적소의 치료 기회를 놓치게 하여 절망의 막다른 끝에 서게 한다.

정기적인 검진으로, 암이나 병의 조기 발견이 아주 중요하다.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기 전이면 암은 거의 완치가 될 수 있다. 위생적인 환경과,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일상생활,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을 하고, 거짓 선동에 현혹되지 않고, 만약에 어떤 병의 증세가 있으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합한 치료를 받으면, 백세가 넘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강조하여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아주 예방과 심지어 치유의 효과가 증명된 것이 있다. 돈도 한 푼 안 든다,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마음껏 웃기,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 없는 건강한 일상생활을 하자.

라구나우즈의 골프장에서, 90세가 넘은 분들과 공을 자주 친다. 라구나우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하여 우리 모두 건강한 백 세의 생일 잔치에서 모여, 자축을 잔을 올리자.

가난한 나라의 핵폭탄



이재윤 | 생물학 박사



온 인류에 공포와 고통을 안겨준 Covid-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꼬리를 내리고 있을 무렵인 2022년 초여름에 한국에 뜻하지 않던 원숭이두창(Monkeypox, 후에 Mpox로 개칭) 환자가 나타나 제2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행히 현재까지의 누적 환자수가 150여 명으로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그러나 Mpox는 천연두(Smallpox)와 증상이 같고 동일한 계열의 바이러스로 발병한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각심을 갖게 된다. 더욱이 천연두는 치사율이 높아 생화학전의 제일 후보군에 속하며 비록 회복이 되었다 해도 피부에 남기는 보기 싫은 상처 때문에 이를 경험을 했거나 목격한 노년층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다. 마치 자라한테 놀란 자가 솥뚜껑만 보아도 놀랜다는 옛말과 잘 비교가 된

다. 비록 대유행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토착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현대사회는 교통수단(육로, 해상, 공중, 지하, 우주왕복 등)의 발달과 대기의 변화로 전염병이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유행하고 있다. 언제 어느 병이 어디에서 발생하여 대유행할지 모르니 우리는 항상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그러하다고 늘 걱정하며 대비하라는 뜻은 아니다. 평소에 위생 규칙을 따르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균형된 음식과 적당한 운동을 취하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 된다는 뜻이다.

가다 보니 샛길로 빠진 감이 있어 별도의 색상으로 건강에 대한 다음 글을 구분했다. 금년 9월 말부터 3주간에 금요일마다 계속하여 라구나우즈 빌리지에서만 3명의 귀재들이 우리 곁을 말없이 떠났다. 이들 모두가 나의 가까운 친구거나 같은 교회의 장로이었기에, 그리고 연세가 모두 86세라는 공통점이 있기에 우연이라 보고 그냥 넘길 만한 용기가 없었다. 글을 쓰는 이 순간 나의 관심은 지인들의 천국행과 유족들의 건강뿐이기에 자연히 건강이라는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젊었을 때 나의 강연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점잖게 표현하면 배설) 건강해진다"라고 농담 섞인 말을 하여 듣는 이들을 웃겼던 기억이 난다. 잘 먹는다는 의미는 음식뿐이 아니고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즉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뜻도 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표현이 있듯이 좋은 마음을 먹은 사람한테는 착한 언행이 나온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냄새나는 방귀로나 설사로 끝나지만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 혹은 죽임을 주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일을 되풀이하는 사람

은 친구를 잃고 급기야는 외로움이나 고민으로 인하여 잠을 잘 잘 수가 없어진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면역력 감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만하고 본래의 길을 찾아가고 싶다.

다음 본문은 12여 년 전에 SIGA라는 미국제약회사의 자문위원으로 재직 시 한국 국방부에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잊혀지고 있던 천연두에 대한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들리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영국 올림픽 준비위원들이 천연두 감염을 우려해 올림픽에 투입될 의료진에게 천연두 접종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에서는 2011년도 5월 말에 역사상 처음으로 생물학전 대비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6일에 KBS 뉴스와 9월 7일 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회 보건복지부 위원장이 질병관리센터(현 질병관리부)의 천연두 백신 비축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우리들이 천연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듯하다. 특히 3조 원이란 막대한 예산으로 새로 개발된 천연두 치료제를 FDA 승인이 나기도 전에 군인들의 보건을 위해 미 국방성이 이를 구매하여 비축한 사실도 예사로 보기가 어렵다.

천연두(Smallpox)는 그 영어 단어로부터 받는 허약한 느낌과는 달리 매우 무서운 전염병이다. 미국 질병 관리국 (CDC) 자료에 의하면 천연두는 사망률이 30-50%에 이르고 생물학전에 사용할 수 있

는 세균 중 가장 위험한 A급으로 분류된다. 만약 서울에 천연두 균의 공격이 가해진다면 1980년 후에 출생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80만 명의 어린이와 젊은이들 특히 젊은 군인들이 희생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미국 원주민을 학살하기 위하여 천연두 균을 오염시킨 담요를 원주민에게 배급한 끔찍한 사건을 보면 천연두가 얼마나 살상력이 강한지 알 수가 있다.

세계 보건국(WHO)의 끊임없는 예방접종 보급으로 천연두는 박멸이 되었고 1980년부터는 아예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온 인류는 표면적으로는 천연두의 공포에서 벗어났지만, 실은 미국과 구소련이 보관하고 있는 세균이 사고로 인하여 세상에 유출될 가능성과 이 균을 보유한 나라가 대량 살상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태라 불안의 요소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여러 신문보도, 연구논문, 잡지, 보고서 그리고 미국으로 망명한 캔 알리백에 의하면 소련은 비밀리에 천연두 균을 생물학전 목적으로 연구했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은 구소련이 해체될 때 취득한 천연두 균을 포함한 생물학 무기를 보관하고 있다고 본다. 도심 1평방킬로미터를 파괴하는 데 드는 비용이 비행기 폭격, 핵폭탄, 화학전의 경우 각각 $2,000, $800, $600이 필요한 데 비해 생물학전의 비용은 불과 $1.00(10여 년 전의 추정가격)이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하기에 생물학 무기는 북한과 같이 가난한 나라의 핵폭탄으로 비유가 된다.

한국의 주변국가나 미국, 영국, 독일, 이스라엘 등은 현재 유일한 대응책으로 의존하는 예방접종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으며 백

신을 다량으로 비축하고 있으나 충분하지가 않다. 한국의 실정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더 열악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2011년 9월 6일에 KBS 뉴스와 같은 해 9월 7일 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생물무기나 테러범들의 생물 테러전에 대비해 정부가 비축해 온 천연두 백신은 700만 명분이다. 이 가운데 106만 명분이 독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폐기될 예정이며 459만 명분은 이미 유효기간이 3년 지난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 비축량 700만 명분 중 135만 명분만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다. 10년 이상 지난 현재 상황은 모르겠다.

천연두의 재발과 생화학전의 위험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FDA 승인 전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나라와 그 이상의 확률이 있는데도 예산마저 세우지 못하는 나라 사이에서 전자에 속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이 행운이라 느껴진다.

다행히 미국의 SIGA 제약회사는 10여 년간의 연구 끝에 부작용 없이 치료가 가능한 먹는 신약을 2011년 5월 중순에 개발하였다. 기존 백신의 한계와 새로 개발된 신약의 장점을 간단히 기술한다. 현존하는 백신은 부작용이 심하며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임산부, 에이즈 환자, 그리고 피부병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인 25%, 군인의 10%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 예방접종의 효력을 보려면 감염 후 4일 내에 접종해야 하는데 실제로 병의 잠복기간이 14일 정도이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난 후의 예방은 현실적으로 감염 후 14일을 넘긴 상태라 효력에 의문이 있다. Smallpox는 근절되었으나 Cowpox/Monkeypox 등이 발병할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데 신약은 이들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생물학

전 발발 시 먹는 신약은 국민에게 분배가 간단하고 보관이 수월하며 의료진의 교육이나 이들의 손길이 필요 없다. 또한 접종할 경우라도 이 신약을 함께 복용하면 접종 시 발생하는 부작용이 상당히 감소되거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임상 결과도 보고된 바가 있다.

미국의 보건성(HHS)은 2011년에 2.8억 불(약 3조 원)의 신약을 구매하였다. 이 치료제는 2011년 중반에 개발된 신약이므로 아직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응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FDA 승인 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다는 미국법에 의하여 판매가 성사된 것이다.

본 약은 2018년에 FDA 승인을 받았고 Tpoxx라는 상표로 현재 판매되고 있다. 한국은 이번 Mpox 유행 시 미국에서 Tpoxx을 구입한 바 있다. 이 약은 개발 목적이 천연두였기 때문에 Mpox 치료로 사용할 수 없으나 환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



Eczema vaccinatum에 감염된 28개월 소년의 배와 가슴에 발생한 피진 〈미국 2007, SIGA 제공〉



연기처럼 사라질 인생이다
집착하지 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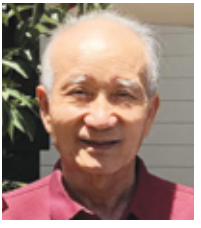
바람처럼 날아갈 인생이다
욕심부리지 마라

구름처럼 흩어질 인생이다
연연해 하지 마라

한 줌의 흙이 될 인생이다
가볍게 살아라

탐구의 세계

기후 변화와 우리의 삶



윤갑상
Engineer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 극한 기상 현상 등을 유발하여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인간의 활동에서 비롯되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기후변화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폭염, 가뭄, 해일 등의 극한 기상 현상은 농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협합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 및 해양 산성화가 발생하고 있어 수질 오염과 해양 생태계의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전기 에너지 절약, 재활용, 친환경 제품 사용 등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를 공유하는 것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은 친환경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고려한 선택을 하고, 정부와 기업이 대처하는 방식을 지켜보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IA(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가 1시간 사용할 전기 1kilowatt를 생산할 때 방출되는 CO2(이산화 탄소) 평균 무게는 0.855 pound이다. 만약 한 가정에서 1달 전기 사용량이 500 kwH이라면 매달 CO2(500 X 0.855) 427.5 lbs를 대기로 방출하는 셈이다.

Note: 3/10/2023 KSBG 모임에서 강의한 내용을 AI ChatBot "AskUP"으로 정리한 글 입니다.



전자파 이야기



김진중
물리학 박사

본인은 최근 Korean Bio Senior Group 모임에서 전자파와 빛과 관련하여 강연하였는데, 몇 가지 일반적인 내용을 추가 기술하여 더욱 흥미 있고 참고가 되기를 원한다.

인간의 눈으로 감지되는 가시광선(visible light)인 빛은 광대한 '전자파'의 극히 적은 부분이다. 전자파는 전기적 에너지와 자기적 에너지가 공간에서 동시에 파동의 형태로 전파된다. 전자파는 주파수에 따라 에너지가 다르며, 우주에는 태양을 포함한 무수히 많은 별에서 발산되는 전자파로 꽉 차 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gamma ray, 주파수 1020Hz), X-ray(1018Hz), 극자외선, 자외선, 가시광선(1015Hz), 적외선, 원적외선, 열선, 등등 주파수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분류 된다. 이 모든 전자파는 태양을 포함한 모든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며, 다른 별들은 대단히 멀어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수백 만년이나 걸리기 때문에 지구상에 도달하는 가장 강한 전자파는 태양에서 발생한 것이다. 태양에서 오는 전자파는 지구상의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발생

으로부터 생존과 번식에까지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태양에서 오는 빛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며, 광합성을 통하여 식물에서 영양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천적인 요소다. 태양 빛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지구상에서는 인간이 전자파가 생성되는 원리를 발견하여, 가시광선은 물론 많은 전자파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문명의 이기로 사용하고 있다. 전등에서 나오는 조명용 빛, 각종 통신에서 사용되는 전자파, 요리에서 사용되는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X-Ray, 고출력 전자파 무기, 등등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cell phone은 주파수 약 800MHz, 가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되는 WIFI는 2450MHz, navigation에서는 약 1.5GHz, 음악을 방송하는 FM radio는 100MHz대의 전자파를 사용한다.

과학자들은 전자파를 특수하게 발진시켜 전자파의 파동이 시공간적으로 동시에 발진되는 레이저(laser) 광을 발명하여 특수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예를 들면, 레이저 광으로 피부에 생기는 반점이나 사마귀를 지져 내고, 특수한 혹이나 암을 제거하는 등 미세 수술을 시행하고, 철판이나 기구를 정교하게 절단하고, 미세한 구조를 제작하기도 하고, 강력한 무기용 레이저로 사용하는 등 수 많은 응용이 가능하다.

금년(2023년) 노벨 물리학상은 attosecond laser pulse를 개발한 세 물리학자에게 수여되었다. one attosecond는 10-18초(즉 10억분의 1의 10억분의 1)의 짧은 광 펄스이며, 이러한 광 펄스로 분자 내의 전자의 운동까지 관측할 수 있는 짧은 광속이다. 자연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 짧은 광속이다. 인간이 이룬 대단한 업적이다.

또 한편 빛은 눈을 통하여 모든 사물을 보고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다. 인간은 빛을 보며 생활함은 물론 별빛, 햇빛, 달빛, 무지개, 노을, 푸른 숲, 꽃 색깔, 멀리 보이는 바다와 하늘, 등등 아름다운 색상이나 경치를 보며, 시를 쓰고, 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감정을 표현한다. 인간이 제조한 인공 빛으로 조명을 하고, 주위를 장식하고, 무대를 찬란하게 조명하여 감성을 즐겁게 한다. 물리적인 현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감성이나 심리 변화가 빛의 영향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태양 빛이 눈을 통하여 뇌를 자극하면 serotonin hormone 생성을 증진시키고 인체의 생리적인 작용도 향상시키는 등 많은 영향을 준다. 닭이나 가축에게도 인조 등을 비추면 달걀이나 우유 생성이 증진되기도 한다.

빛이 부족해서 구름이 잔뜩 낀 날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밤에 높은 곳에서 도시의 찬란한 불빛을 보면 로맨틱 해지기도 하고,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고, 고향이 그리워지기도 한다. 이처럼 빛은 인간의 감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이 글에서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전자파는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물리학 분야에서 최대의 천재인 Albert Einstein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원리 즉 "빛의 속도는 관측자와 광원의 속도와 관계 없이 일정하다"는 현상은 지금도 많이 연구되는 현상이다. 아직 이 현상이 부정되는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 우주상의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의 온도에 따라 특정한 파장대를 포함하는 전자파를 발생한다. 예를 들면 우리 몸도 섭씨 37도에 해당하는 전자파를 발산한다. 일단 생성된 전자파는 공간을 통하여 사방으로 전파되는데 많은 양은 주위의 물질에 흡수되거나 산란 되지만, 원칙적으로 그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남아 있다.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도 이러한 원리로 영원히 남아 있다고 믿기도 한다.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

각한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오는 전자파는 13.8billion years(138억 년) 전에 일어난 big bang 때 발생한 전자파가 오랜 세월 식은 후 전 우주에 남아있는 cosmological microwave background(CMB)가 관측되며, 거의 절대온도 영하 270도에 해당하는 전자파다. 물론 그 멀리 있는 갤럭시(galaxy는 우리가 사는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Milky Way와 같은 별의 집단)에서 오는 전자파를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특수한 장치로 관측할 수 있다. 최근에 발사한 James Webb Space Telescope로 이전에 관측되지 않았던 많은 우주의 현상과 블랙홀(black hole) 등을 관측하였으며, 이는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전위적 업적이다. 이 모든 것이 전자파의 관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 만큼 빠르며, 이는 1초에 300,000km를 가는 속도이다. 태양에서 발생한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약 8분 30초 걸린다. 이러한 빛이 138억 년을 날아온 별빛이 관측되는 것이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리다. 현재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이기도 하다. 우주의 생성 과정을 연구하는 cosmology는 많은 경이적 현상을 관찰하고 있다. 인간은 참으로 위대하다.

고정관념 AI가 푼다



주 강 | 부동산

올해, 2023년 나의 최대 관심은 온통 AI, ChatGPT였다.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인생 문제를 AI에 적용해 본다.
누구나 싫지만 부정할 수 없는 결론 –
우리 모두가 늙어감에 어쩔 수 없는 정신적 함정인 주제:

살면서 세뇌된 고정관념은 바꾸기 어렵다.
"The Measure of Intelligence is The Ability to Change."
(지능의 척도는 변화하는 능력이다.)



또는,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지능의 척도입니다.
"The ability to change is a measure of intelligence."

위의 "지능의 척도는 변화하는 능력이다"라는 말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인용문에 대한 확실한 출처는 없으며, 아인슈타인이 실제로 그런 말을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했는지에 관계없이 이 인용문은 지능이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는 귀중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경험에 열려 있고 기꺼이 마음을 바꾸면 우리 모두는 더욱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깨어있고 변화하는 능력이 지능의 척도로서 어떻게 보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사가 자신의 새로운 학습을 학생에게 적응시킬 수 있다면 자신의 지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은 지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지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능력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생각과 신념만을 고집하며 융통성이나 변화를 거부하면 배움이 단절되고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특화된 인생살이 자문용, GPTs라는 똑똑한 놈을 만들 수 있다 한다.

무어든 물어 보면, 앞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단다. 인생의 GPS - 어떻게 찾고 따르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방향을 알려 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답은 조금 멍청한 인간이 최고로 현명한 인공 지능의 로보트, 언젠가는 robot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아래는 나의 질문에 대한 ChatGpt의 응답이다.

제목: "지능의 능력: AI와 인간 학습의 진화"

변화하는 도전의 무한한 공간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지능을 발휘하는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성장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특히 중요합니다.

* 지능을 통한 잠재력 발휘: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며 자신의 지능을 드러내는 직원들은 지능을 과시합니다. 이 지능은 전통적인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현대의 업무 환경에서 우리가 복잡성을 극복하고 팀의 집단적인 성공에 기여

하는 개인들은 지능을 활용하여 장애물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 변화의 촉매로서의 AI:

인공지능(AI)은 인간의 지능과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급 알고리즘과 기계 학습을 통해 AI는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AI는 변화의 촉매로 작용하여 개인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의 맥락에서 효과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바꾸려면 주제에 대한 세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AI는 정보를 처리하고 명확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주장 뒤의 지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실수에서의 학습과 개인적인 성장:

성공으로 이끄는 여정은 실수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실수에서 배우는 능력은 지능의 특징입니다. AI는 분석 능력을 통해 개인이 실패를 해석하고 패턴을 이해하며 소중한 교훈을 얻도록 돕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성장에도 기여합니다. 지능을 포용하는 것은 학습의 반복적인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적응력과 탄력성이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작용합니다.

* 동적인 세계에 적응하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는 능력은 생존 기술이 됩니다.

지능은 단순히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하는 민첩성에 관한 것입니다. 기술이 산업과 사회를 재구성하는 가운데 이러한 동적인 환경을 원활하게 탐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능의 힘을 활용하여 혁신하고 협업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 결론: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경우 지능은 인생 성공의 원동력이 됩니다. 직장에서나 사회적 도전에 있어서 인간 지능과 AI 간의 시너지는 강력한 조합을 만듭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경험에서 배우며 신기술로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때, 지능의 개발과 발전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전반적인 진보에도 기여합니다.

이상, 주로 AI가 쓰고 주강이가 덧붙임.

11월 2023년



'가장 정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어느 조사 결과
4위 : "밥은 먹었니?", "참 대견하다.", "일찍 자!"
3위 : "수고했어!"
2위 : "어디 아프니?"
1위 : "힘내! "

위로와 격려,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에는
상대를 향한 배려와 따뜻한 정이 담겨 있습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건네보면 어떨까요?

바이오 그룹
명강의를 찾아서

나이 들어가면서 왜 노인들은 운동을 해야 하나요?



Peter Park
교수/의사

이것이 나의 철학이며 지혜이며 삶의 목적입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까지 짐이 안되는 위엄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 까지 성한 두 다리로 걷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의 순간까지 영농한 정신을 유지하며 잠을 자다가 편안히 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노인들은 매일 산다는 것이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얼음이 꺼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 만약에 얼음이 깨지면 물에 빠집니다 〉〉〉 물이 얕으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 물이 깊으면 물에 빠집니다 〉〉〉 운동을 한다는 것은 〉〉〉 당신은 얼음을 두껍게 만드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통계를 봅니다. (2021)
심장 질환 – 695,547 / 캔서 – 605,213 / Covid 19 – 416,853
사고 낙상 – 224,935 / 뇌졸증 – 142,342 / 치매 – 119,399
이 모든 질병의 통계가 운동과 연결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노인 들에게 자주 있는 뼈가 약해지고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키가 줄어지고 허리가 구부러 집니다. 그것은 척추 마디 사이에 쿠션이 얇아지기 때문입니다. 요가, 기공, Daichi 등의 운동이 치료 예방에 도움됩니다. 뼈가 약해지면 발란스에 영향이 크며 넘어지기 쉽고 낙상하기 쉽습니다.

노인의 낙상

낙상을 하여 하루 종일 병실 침대에 누워 있으면 젊은이는 1%의 근육이 줄어든다. 여기에 비해 노인들은 5%가 줄어든다. 아무것도 안하고 하루종일 침대에 누웠으면 원 상태로 기운을 회복하려면 2주 동안의 몸의 재 컨디션이 필요하다. 운동이 우리의 삶의 질을 갈라 놓을 수 있습니다.

근육 운동

근육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없어지고 물건 하나 드는 것도, 걷는 것도 심지어는 계단 올라 가는 것도 힘들어지며 부엌에 무쇠로 만든 팬 하나 드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런 Data를 보시면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에 눈을 떠야 하고 운동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심장병 위험지수 계산법



이종두 | 외과 의사



우리가 심장병 위험지수를 계산(cardiac risk calculation)하여 우리의 건강관리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심장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age, sex, race, 혈압, cholesterol, 당뇨병 유무, family history of heart disease, 흡연 유무, aspirin 사용 유무, medication use 등입니다.

There are a few different online calculators and smartphone apps available but ascvd risk estimator plus is the best.

You may use tools.acc.org risk estimator 〉 ascvd risk estimator+−mobile and web apps. They calculate 10−year risk of having a heart problems such as a heart attack or stroke .

〈5% low risk, 5% to 7.5% borderline, 7.6% to 19.9% interme−diate, 20% high risk〉

This risk score can help you getting to life style change or take medicine to prevent heart attack or stroke.

단 하나 score 계산은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다시 설명한다면 지금은 병이 없지만 앞으로 10년 이내에 심장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를 알아내어 미리 적절한 건강 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컴퓨터를 모르면 조금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앱을 내 컴퓨터에 설치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Data를 입력하면 확률의 숫자가 나온다.

여러 온라인 계산기와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지만 ascvd 위험 추정기 플러스가 가장 좋습니다. tools.acc.org 위험 예측기 〉 as−cvd 위험 예측기 + − 모바일 및 웹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심장 문제가 발생할 10년 위험을 계산합니다. 〈5% 저위험, 5%~7.5% 경계선, 7.6%~19.9% 중간, 20% 고위험〉 이 위험 점수는 생활 방식을 바꾸거나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수 계산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웃음의 미학



고영주
교수/문협회장



유머와 위트는 갈증날 때 한 잔의 생수처럼 시원하다.

메마른 땅에 나리는 단비처럼 달콤하고, 비 온 뒤에 무지개처럼

흐뭇한 여운을 주어서 좋다.

꽁꽁 얼어 붙은 분위기도 유머 한 마디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바뀌버린다. 유머는 거리낌없이 함께 웃는 익살스러움이다.

풍자(Satire)는 남에 대한 공격과 독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유머는 그저 웃고 즐기는 천진한 소성(笑性)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위트는 기발한 아디어를 가진 기지다. 위기를 순간적으로 모면하는 뛰어난 책략이라고나 할까. 때로는 상황을 급전시키는 언어의 마술이며 정곡을 찌르는 언어의 묘수 바로 그것이다.

도화꽃 흘러 내리는 별천지를 찾아와서 속세에 사는 사람이 묻는다.

'그대는 무슨 일로 푸른 빛 어린 산 속에 사는고?
웃으며 대답하지 않으니 마음 절로 한가롭구나 '
이백의 산중문답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강냉이가 익거들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사냐건 웃지요'라고 여운을 남긴 월파 김상용의 싯구도 있다.
전원 생활의 소박한 꿈이 아름답기만 하다.

과연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유유자적한 웃음 속에 그 해답이 들어 있다.
웃음은 신이 인간에게만 준 유일한 선물이며 사랑이다.
웃음은 의학계에서도 놀라는 신비의 묘약이며 최상의 치료제다.
웃는 모습은 천사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얼굴이다.
웃는 소리는 만국 공통어로 천언만언보다도 가장 훌륭한 언어요, 저절로 나오는 신의 음성이다.
어린이가 웃으면 천진난만하고 밝고 귀엽고 예쁘다.
청춘 남녀가 웃으면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사랑스럽고 싱그럽다.
노인이 웃으면 인자하고 지혜로우며 은은한 향기가 풍긴다.
웃음은 내가 웃고 자화자찬하는 자긍심과 정서적 대만족의 표현이다.
예수님의 미소와 부처님의 미소에는 끝없는 사랑과 진리가 숨쉬고 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봄 꽃송이처럼 한바탕 흐드러지게 활짝 웃어 보자.
웃음은 바로 행복이다. 웃음 가득, 행복 가득, 내가 만드는 지상은 낙원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늘나라는 극락이요, 천당이다.

가시나무와 수선화(Narcissus)



이영범 | 심리학 박사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당신이 쉴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 한마디는 나의 가슴을 울리는 경구입니다. '당신이 쉴곳 없네'는 새로운 자기 발견이며 회심이며 이제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순간을 말합니다.

하덕규 선생은 가수이며 시인이다. 그는 젊은 시절 운동권에서 활약했으며 공격적이고 반항적이며 선동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동지들의 칭찬을 받아가며 인지도가 높았다. 그는 그때가 대학가에서 아마추어 콩클대회에서 일등을 받은 때였다. 잘 나가고 자랑스러운 때였다. 그런데 어쩐지 마음은 불편하고 어수선하고 황량한 사막 같은 느낌이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왔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그는 자기가 죄인 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자기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자랑, 남을 판단하는 행동, 자기 높아지기 위한 급급한 마음, 이렇게 원하지 않는 불편한 자신을 느끼며 깨닫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했다. 힘든 것은 지금 많은 돈을 투자해 만든 음반을 버려야 하니 말이다. 많은 고심 끝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린다면 내게 새 노래를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 지면서 한없이 슬피 울었다고 한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 무엇인가 머리에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다. 그는 붓을 들고 글을 받아 쓰고 곡을 붙이니 가시나무의 노래가 됐다. 이 노래는 그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온 노래이며 그의 삶을 바꾼 신앙 고백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하덕규 시인은 내 안에 내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알 수 있나. 내 행동을 돌이켜 보면 안다.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은 자기 자랑을 좋아한다. 조그만 일에도 공치사 를 좋아한다. 다른 이의 아픔이나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내 안에 내가 많은 사람은 특별한 대우를 바랜다. 오만불손하다.

나에 대한 안 좋은 평가가 나오면 반대하고 부정한다.

내안에 내가 많은 사람은 남을 이용한다. 이기심이 많다. 그리고 화를 잘 낸다.

교육이란 내 안에 나를 줄이는 작업이다.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문제는 그게 과도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르친다.

30년 간 초등학교 일 년생을 가르치신 선생님이 말한다. 서로 도와야 한다. 나누어 가져야 한다. 싸우지 말아라. 감사하다고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욕심내지 말아라. 친절해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학년이 높아지면서도 이것을 되풀이해 가며 배운다. 무엇보다도 행동에 옮기는 것을 배운다. 이 분야에는 졸업장이 없다. 청년도 장년도 노년도 모두가 실천을 계속 배운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는 주위가 더 밝아진다. 친절과 배려가 있으며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 Bio Senior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희랍의 신화다.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그만 사랑에 빠진 청년이 있었다. 그때 질투의 여신이 이것을 보고 저주하여 청년의 몸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니 그가 나무가 되고 꽃이 피니 그 꽃 이름을 수선화(Narcissus)라 했다. '자기애'라는 뜻이다. 정신과에서는 내 안에 내가 많아 자기만을 아는 사람을 '나르키소스'라 명명하고 자기애(Narcissism)적 인격 장애자(Personality Disorder)라고 한다.

부 록

강의 리스트
•
출판을 마무리하면서
•
도와주신 분들 명단
•
Bio Senior Group 이모저모
•
광고

강의 리스트

날짜	강사	경력	내용
2019			
	강창근	MD	단식과 복식 호흡
	고영철	MD	치매에 대하여
	권 넬슨	목사	트럼펫 연주
	김영국	목사	다윗과 골리앗
	배 익	MD	스태튼 심베스톤 약
	신순범	Ph. D/공학	디지털 의료 기기
	이강민	MD	치매 예방
	이덕희	음악/지휘	음악과 치유
	이영범	Ph. D/심리	Big 5 성격 분석
	이종두	MD	콜레스테롤과 심장병
	임건식	음악/방송인	내가 넘은 38선
	장 준	전 한인회장	북한 가족 방문기
	정 베드로	목사	우스갯 소리
2023			
1. 13	서은희	율동가	희망의 율동
1. 20	이강민	MD	Bio인 새 건강법
3. 3	곽병희	서예가	서도와 인격
3. 10	윤갑상	Engineer	자연훼손과 기후 변화
4. 7	이영범	Ph. D	알츠하이머 ABC/예방

날짜	강사	경력	내용
4. 21	Mickee	목사	My story
5. 5	이강민	MD	식사 문화
5. 12	서은희	율동가	신세대 Free style
5. 19	이영범	Ph. D	가시나무
5. 26	김진중	Ph. D	빛과 전자파
6. 2	Peter Park	교수	노인은 왜 운동이 필요한가?
6. 16	박종곤	재향군인회장	6. 25 비화
7. 7	김진중	Ph. D	빛과 전자파
7. 21	한철수	Engineer	나는 왜 Bio에 참여했나?
8. 4	김원기	목사	황혼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나?
9. 1	Andrew Kim	대형 인형극 작가	5주년 Bio 기념행사/ 극장
9. 8	이영범	Ph. D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9. 15	김유배	Ph. D	기록물 영구 보존 활동
10. 6	A William	목사	노인 사회의 문화
10. 13	오창현	MD	호스피스 운영 실태
10. 20	고영주	교수	한글 창제 원리
11. 3	성 마리아	RN/Teacher	My story
11. 10	이영범	Ph. D	Titanic story
11. 17	고영주	교수	유머와 위트
12. 3	고영주	교수	효과적인 글쓰기(마음의 창)



출판을 마무리하면서



고영주
교수/문협회장

꽃이 아름다운 것은 꽃이 진 뒤 그 자리에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빨간 단풍이 눈부시게 고운 것은 단풍이 진 그 자리에 생명의 씨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루 중 서럽도록 장엄한 저녁놀이 천상에 찬란한 벽화를 그리는 것도 희망찬 새 아침을 여는 염원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종말은 모두 헛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창조의 손짓과 몸짓입니다.

우리의 마무리는 자연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곱게 늙어야 합니다. 곱게 늙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남에게 베푸는 덕망의 향기, 남을 배려하는 인품의 향기를 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유명한 사람이면 무엇합니까? 그런 인생의 향기가 없으면 불쌍한 사람이거나 인생을 잘못 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창을 열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고 마음을 열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의 창을 열면 인생의 향기가 풍기고 행복을 느낍니다.

〈마음의 창〉을 발간하면서 원래 원고 35여 편을 예상했는데 70여 편이나 들어와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비록 세련된 글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박하고 진솔한 마음을 담은 우리의 민낯을 보여 드립니다.

이제 간구와 기도로, 별빛 같은 사랑으로, 서릿발 내리는 인내로, 한밤을 세우는 정성으로, 가슴속 가득한 감사로, 우리의 뜻을 〈마음의 창〉에 담았습니다.

이 글들이 인생 종장의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는데 인덕이 참 많아서 행복합니다.

바이오가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게 질적,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 밑바탕에는 이영범 회장 님과 이은주 님을 비롯하여 접수 창구에서 안내하고 명찰과 순서지를 열심히 챙겨주신 채길환 님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 지도에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김경자 님, 재미있게 건강 운동을 지도해 주신 강창근 님, 큐코드로 화음을 잘 맞춰주며 그룹을 잘 이끌어 주신 이은주 님과 김석자 님, 음식 준비에 정성을 다하신 최숙영 님과 여러 회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협동과 봉사 없이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바이오 시니어 그룹의 자랑스러운 보배들입니다.

편집팀으로 표지를 만들어 주신 윤경순 님, 원고를 봐 주신 김소향 님, 이영옥 님, 윤호원 님, 성명자 님, 사진을 촬영해 주신 박승원 님, 그리고 특히 재정적으로 너도나도 앞다투어 열렬하게 후원해 주신 회원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창〉 출판을 도와주신 분들

강창근 • 이성자
고승일 • 고계희
고영주 • 고정자
김경자
김귀남
김유배 • 남정자
김진중 • 김정혜
김창호 • 김소향
김홍식 • 김석자
남장우 • 남현숙
박미선
박승원
서경선
성마리아
손기영 • 손종숙
신안균 • 신학선
양병곤
오창현
윤갑상 • 윤혜경
윤경순
윤문길
윤순애
윤호원
이강민 • 심광옥
이경재
이명하
이상애
이시자
이신애
이영범 • 이은주
이영옥
이재윤 • 이금자
임건식 • 임정순
임영희
전신자
채길환
최미길
최숙영
최은희
한철수 • 한순애
황인숙
황현상 • 황명조

바이오 그룹
초창기 멤버들







▲ 2022년 6월 annual picnic at Aliso Park at LWV

건강 체조
(강창근 선생님 지도)





노래 부르기
(김경자 선생님 지도)



특별 율동
(서은혜 선생님 지도)



5-Qcord 연주





바이오 강의



윷놀이





양로원 탐방



▲ 2022년 한순옥 선생님의 추모예배

▼ Freedom Village 양로원에 한경택 선생님 부부 Bio선생님 방문(위로와 찬양)









즐거운
식사시간





바이오 시니어 그룹 5주년 기념 파티
(2023년 9월 1일)



▲ 대형 인형 제작 예술가 런던 거주 앤드루 김 초청 공연





바이오 시니어 그룹 5주년 기념 파티

(2023년 9월 1일)







바이오 시니어 그룹 5주년 기념 파티
(2023년 9월 1일)





멍띠 생신 파티
(89세)



바이오 시니어 그룹 이모저모







마음의 창

편집인 | **고영주**

발행인 | **이영범**

발행일 | **2024년 1월 31일**

제작처 | Printron Printing Inc.
310-324-1393

Woodbridge Pharmacy
우드브리지 약국



우드브리지 약국

- 의 료 상 담
- 한일 유일 제조약국/compounding
- 모든 백신접종 (WALK-IN가능)

방문하시는 모든분들께 쇼핑백 증정해 드립니다

4950 Barranca Pkwy Suite 102
Irvine, CA 92604

TEL. 949-857-2141
FAX. 949-857-4180



소중한 가족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렌지 호스피스가
사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렌지 호스피스 맞춤형 서비스

- 닥터 방문
- 간호사 방문
- 목욕 서비스
- 전문가 상담 치료
- 사회복지사 상담
- 원목 방문
- 음악치료사 방문
- 자원봉사자 방문

호스피스 비용 부담은?

전액 지원

호스피스 비용은 메디케어에서
전액 지원함으로 환자의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조제약이나 의료 기구, 장비 등도
호스피스에서 제공됩니다.

어디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나요?

거주지 방문

환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전문팀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의료용품 및 의약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의료 상담(메디컬 디렉터)
오창현 MD 가정주치의
T. 951.836.0100

Orange Hospice

주 7일 24시간 T.714.790.0594



www.withhomecare.com

WITH HOME CARE
홈 케어 전문 서비스

위드홈케어는 **종업원 상해보험, 책임보험 및 도난방지보험을 소지한**
주정부에 등록된 전문 홈케어 업체로 경험과 전문교육을 받은 케어기버가
여러분의 필요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개인 일상생활 도움 : 청소, 요리,쇼핑
- 병원동행,약복용 시간 도움

한국인 케어기버가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T. 714.732.6176

With Home Care



The book cover was drawn by artist Kay Yoon.